

와 본
김 동 현
구 술 집

한국건축 보존연구에 바친 한평생



와본 김동현 구술집

한국건축 보존연구에 바친 한평생



채록일자

- 1회차 2007.10.26 장소_ 종로구 통의동 85-1 다정 인터뷰어_ 김동욱, 이왕기, 이강근, 김철민, 김기주, 이경미
2회차 2007.11.16 장소_ 종로구 통의동 85-1 다정 인터뷰어_ 김동욱, 이왕기, 이강근, 김기주, 이경미, 최지혁
3회차 2007.12.06 장소_ 종로구 통의동 85-1 다정 인터뷰어_ 김동욱, 이강근, 김기주, 이경미, 최지혁
4회차 2008.01.11 장소_ 종로구 통의동 85-1 다정 인터뷰어_ 김동욱, 이왕기, 이강근, 김기주, 이경미, 최지혁
5회차 2008.02.01 장소_ 종로구 통의동 85-1 다정 인터뷰어_ 김동욱, 이왕기, 이강근, 김철민, 이경미, 최지혁
6회차 2008.03.07 장소_ 종로구 통의동 85-1 다정 인터뷰어_ 김동욱, 이왕기, 김철민, 김기주, 이경미, 최지혁
7회차 2008.05.02 장소_ 종로구 통의동 85-1 다정 인터뷰어_ 김동욱, 이왕기, 이강근, 김철민, 김기주, 이경미, 최지혁
8회차 2008.07.04 장소_ 종로구 통의동 85-1 다정 인터뷰어_ 김동욱, 김기주, 이경미, 최지혁
9회차 2014.08.13 장소_ 종로구 사직로 119 목천문화재단 사무실 인터뷰어_ 우동선, 이강민, 엄운진, 박민정

편집 · 감수

우동선, 이강민, 박민정

일러두기

1. 본문의 각주는 구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술자가 직접 작성한 것임.
2. 본문의 그림에는 국가한옥센터 보유자료 코드가 병기되어 있으며, 코드명은 다음과 같이 부여됨.
유형 1. 사진, 상장, 증명서 등 개인자료: 개인-폴더번호-파일번호
유형 2. 건물 별로 정리된 바인더를 스캔한 PDF 문서: 바인더-건물번호(파일번호)-쪽수
유형 3. 슬라이드 필름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 슬라이드-파일번호

와 본 김 동 현
구 술 집

한국건축 보존연구에 바친 한평생



발 간 사

한옥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도 통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건축문화를 후손들에게 남겨준 선조들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21세기 한옥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는 한옥의 일상화·현대화·세계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매진하는 한편, 옛 한옥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쉬지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와본 김동현 구술집’은 건축 문화재 분야의 산증인이라 하실 수 있는 김동현 선생님의 육성을 정리한 책입니다. 선생님은 1950년대 말부터 우리 한옥의 수리와 복원에 종사해 오셨고,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여러 대학교에서 한국건축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열정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현대 한옥 연구사의 귀중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선학들이 겪어왔던 고난의 근대사와 불굴의 인간적 면모가 함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치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책에 수록된 이미지들은 선생님께서 연세대학교에 기증하신 자료를 국가한옥센터에서 정리한 디지털아카이브의 일부입니다. 선생님의 자료는 슬라이드필름 약 25,000여 건, 사진자료 약 2,500여 장, 서면자료 약 5,000여 장, 디지털자료 약 2,0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문화재 도면과 사진뿐만 아니라 각종 공문서, 보고서, 공사일지,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우리 문화재 수리와 정책 발달사의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현 문화재의 수리 이전의 상황과 공사과정의 기록이 자세하기 때문에 향후 한옥을 연구하는 귀한 자료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처음에 구술을 시작하신 김동옥 명예교수님 이하 학자분들, 단행본을 함께 기획하고 감수를 맡아주신 우동선 교수님, 오랜 시간 편집에 매달린 이강민 센터장, 박민정 연구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도 한옥문화의 숨은 기록을 찾고 널리 공유하여 한국건축문화의 융성을 위한 발판이 되겠습니다.

김동현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

와본 김동현 선생은 우리나라 건축 문화재 보존에 평생을 바쳐 오셨고 지금도 80을 바라보는 고령에도 현장에 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후진들을 격려하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고 계신다. 건축물을 대하는 선생의 자세는 치밀하게 세부를 살피면서도 주변과 조화를 염두에 두고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선생께서 모임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신라인들의 예술혼은 정교한 세부를 만들어내면서 큰 틀의 조화를 살려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선생님께서 건물 조사에 임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신라인의 전통을 이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지난 2007년 어느 날, 와본 선생님을 모시고 그간 작업해 오신 우리 문화재 보존의 뒷이야기를 좀 물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당시 경기도박물관 학예직을 그만두고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던 이경미 선생이 했다. 삼성건축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전통건축 연구모임을 마련 자리였는데, 몇 사람이 즉석에서 찬동을 했고 곧바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 승낙을 얻었다. 모임은 통의동의 작은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겸해서 시작되었는데, 초창기 활동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르는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준비한 질문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대답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두 여덟 차례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는 김동욱, 이왕기, 이강근, 김철민, 이경미, 최지혁 여

첫 사람이었다. 저녁을 곁들인 편안한 자리였으므로 이야기가 가끔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 준비가 소홀하여 체계적으로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책이나 글로 볼 수 없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만날 때마다 넘쳤다.

당시 대연건축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던 막내 최지혁이 녹음한 내용을 다시 원고로 정리하는 지난한 일을 도맡아 해서 모임을 마치고 두어 달 지나서는 원고가 정리되어 나왔다. 기왕의 소중한 자료를 책자로 발간하여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결정을 하기까지는 일이 일사천리로 나아갔다. 그러나 막상 원고를 책으로 만들려고 보니 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는데다, 책을 찍어 줄 출판사를 섭외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차일피일 일을 미루다가 마음에 부담만 안은 채 4, 5년이 흘러가 버렸다. 그러다가 2014년 5월에 반가운 제안을 받았다. 우리나라 건축도시공간의 가치를 창조하고 아울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장하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우리 건축의 선구자들 대담을 책자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일환으로 김동현 선생을 모실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이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우동선 교수가 일을 추진하고 국가한옥센터 이강민 박사가 일을 맡았다. 탁월한 기획력의 소유자 우 교수와 적극적이고 치밀한 추진력을 지닌 이 박사가 원고를 손에 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좌담회의 내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사이 두 사람이 김동현 선생을 직접 찾아뵙고 내용을 재삼 확인하고 또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여 이빠진듯했던 내용이 가지런하게 되었다. 특히 이강민 박사는 두서없이 늘어선 내용들을 어떤 것은 앞으로 보내고 어디는 뒤로 옮기는 힘든 작업을 해서 모양을 갖췄다.

내가 김동현 선생을 처음 본 것은 1980년 경 선생님께서 일본 동경대학에 1년간 연구차 방문했을 때였다. 석사과정 때 책으로만 접하던 선생님을 가까이서 뵈고 궁금하던 일들을 여쭙보면 소상하게 배경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한번은 시로가네다이(白金臺)의 동경대 외국인 숙소로 선생님 쓰시던 방을 찾아가니 한쪽에 이젤이 놓여있었다. 그림을 좋아하시던 선생님은 바쁜 공무에서 벗어난 일본

체류 기간을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취미를 살리시려 한 듯하다. 그때 어떤 그림을 남기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미술에 대한 취미가 문화재 현장이나 대학에서 강의하실 때 유감없이 발휘되어서 현장에서 세부를 스케치하고 강의실 칠판에 멋진 그림으로 살아났다.

와본 선생님이 우리 문화재와 직접 인연을 맺은 것은 1958년에 임천 선생이 불러서 무위사 극락전 도면 잉킹을 한 때로 보인다. 선생님이 1937년생이시니, 그때 나이 19세였다. 그때로부터 국립박물관을 거쳐 서울대학교 조교를 지내고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으로 지내시다가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장, 소장을 맡으시고 동국대학교 교수,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를 지냈다. 그 사이에 법주사 팔상전 해체수리, 봉정사 극락전 해체수리를 비롯한 각종 목조건물 수리와 감은사지, 천마총, 황남대총, 안압지, 황룡사지 발굴 등 굵직한 초창기 고대 유적의 발굴은 물론, 불국사 복원설계, 미륵사지 동탑 복원설계 등 크고 작은 건축 설계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 주요한 문화재 거의 대부분이 다 선생님의 손을 거쳐서 보존과 복원, 수리가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경복궁 복원과 2009년 화재를 당했던 숭례문 복원의 기술자문으로 활동하셨다.

와본 선생님은 새로 학술자료가 발간되면 늘 몇 부를 챙겨두었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80, 90년대까지 나도 경복궁 안 큰 느티나무가 볼거리였던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장실로 찾아가서 구하기 힘든 자료들을 얻어오곤 했다. 선생님의 이런 자상한 후배 챙기기는 현장에서 더욱 빛났다. 내가 접한 많은 현장 기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젊은 현장 기술자를 보면 한 가지라도 가르쳐 주려고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고 잘못된 때에는 엄하게 꾸짖고 또 격려해주시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이 책자 첫 부분에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온다. 나도 처음 안 사실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신 것을 알고 마음이 저렸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매사를 대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오늘에 이르신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장에서 보여주신

선생님의 따스한 언행은 어린 시절에 겪으셨던 어려움에서 우러난 진정이 담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여기 수록한 김동현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우리 건축 문화재 보존의 생생한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60년,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에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던 문화재 보존분야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늘이 맡긴 소명이라 생각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여기 실린 글들을 읽으며,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고 가꾸어나가는 모든 이들이 과거 우리 문화재 보존의 여정을 함께 걸으며 또 와본 선생님의 따스한 인간미를 느끼는 감동의 파동을 겪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책자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신 여러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2015. 12.

좌담회를 대표해서

김 동 욱

목 차

발간사

김동현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

제1장 성장과정 12

1937-1949 유년 시절과 해방정국	14
1950-1954 중학생 시절과 한국전쟁	20
1955-1957 고등학생 시절 건축과 선택	33
1958 임천 선생님과과의 인연	40
1959 한양대학교 입학	52

제2장 문화재 연구 입문 시절 54

1959 감은사지 발굴	56
1959-1960 경천사탑 실측	61
1960-1961 군입대와 남대문 공사	64
1962-1967 박물관 근무 시절	69
1967-1970 고건축단장 집필	76

제3장 문화재 관리국 시절 80

1967 범주사 팔상전 해체수리	82
1970 불국사 복원 설계	100
1970-1971 일본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 연수	105
1972 봉정사 극락전 해체수리	112
1973 천마총 발굴	118
1974 황남대총 발굴	122





제4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시절

128

1975 보존과학실장 발령	130
1975 안압지 발굴	137
1976-1980 황룡사 발굴	148
1979 덴마크 국립박물관 한국실 재설계	157
1980 범주사 청동대불 설계	159
1980-1981 동경대 유학	163
1982 제암리 발굴 외 기타 설계작업	167
1990 동화사 대불과 통일대전 설계	176
1996-1998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182

제5장 대학 교수 시절

184

1998.09-1999.08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186
1999.09-2003.02 동국대학교 정교수	188
2003.03-2007.02 전통문화대학교 석좌교수	192
광복 이후 우리나라 건축 문화재 보존과 와본 김동현	202

제1장

성장과정

1937-1949 유년 시절과 해방정국
1950-1954 중학생 시절과 한국전쟁
1955-1957 고등학생 시절 건축과 선택
1958 임천 선생님과과의 인연
1959 한양대학교 입학

1937

1959

졸업을 얼마 앞두고 있었을 때, 대림산업 용산 미군들 숙소 신축 현장에 실습을 몇 달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박물관에 계시는 임천 선생께서 사람이 필요하다 하시니 가보라고 하셔서 간 것이 임천 선생님과 첫 인연이지요. 그게 아마 1958년, 그때 졸업이 아마 3월인가 그랬어요. 하여간 초봄이었어요.

01 성장과정

1937-1949
유년 시절과
해방정국

우동선 2014년 8월 13일 오전 10시 17분경부터 와본 김동현 선생님을 모시고 구술채록 보강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유년시절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 해화국민학교와 소개의 기억

김동현 내가 태어난 것이 종로구 연건동, 지금의 위치를 얘기하면 옛날 문리대 앞쪽, 서울대학병원 앞쪽, 거기 54번지에서 태어났어요. 1937년 10월 25일, 왜정 때죠. 그래서 유년시절을 연건동에서 자랐어요, 지금은 대학로라고 해서 다 포장이 되어있지만, 옛날에는 문리대 앞쪽으로, 동숭동 있죠, 거기 개천이 있었어요. 개천에 가서 놀기도 하고, 지금은 포장이 되어서 다 덮였지만은, 거기서 왜정 때 태어났는데, 초등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를 8살 때 들어갔어요. 7살인가? 8살인가?

이강민 1944년인가요?

김동현 44년. 해방 한 해 전에. 그래서 그 학교가 혜화동에 있던 혜화국민학교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동선 혜화국민학교는 아직 있습니다.

김동현 거길 다녔고, 2학년 때 해방이 됐어요. 2학년 때 해방이 됐는데, 내 기억에는 왜정 때 폭격을 한다, 비행기들이 온다 그래서 소개를 시킨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사람들이 소개를 시킨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소개를...

우동선 소개가 소카이(疎開, 일본어), 피난 보내는 것.

김동현 서울에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정 때 B29인가? 그게 서울 상공을 흰 색깔만 내면서 고공에서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만 뜨면 사이렌이 울리고 공습경보가 내리고. 그래서 학교를 나가, 한 2시간이나 3시간째 공습경보가 내리면 집으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마음에 두세 시간쯤 되면 공습경보가 내려야 될 텐데, 그래야 집에 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이강민 그게 2학년 때 말씀이시죠?

김동현 그렇죠, 2학년 때. 1945년에. 그래서 나도 소개를 갔어요. 양평에 우리 외가집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고향이 양평인데, 그래서 외가집에 가서 거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유년시절 1 개인-6-1



유년시절 2 개인-6-2



새어머니와 함께 개인-6-3



국민학생 시절 개인-6-6



이강민 다시 학교를, 입학을 하신건가요?

김동현 입학이 아니라 전학이죠. 그게 국수리, 국수리라고. 거기가 양수리 다음 국수리가 있는데, 양평 다 가서 국수리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예요. 지명이. 국수초등학교. 거기에 전학을 가서 거기서 몇 달 안 다녔어요. 근데 그게 한 20리 길이 되요 외가에서. 그걸 걸어 다녔죠. 2학년 때.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로 다시 와가지고, 오니까 혜화 국민학교 학생하고, 효제국민학교라고 있었어요. 지금 종로 5가인가. 거기 학생들을, 창경국민학교라고 일본사람만 다니던 학교예요. 일인들을 위한 학교죠. 거기가 이제 비니까 그쪽에다가 혜화국민학교와 효제국민학교에서 차출을 해서 그쪽 동네 사람들을 전부 그리로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3학년 때 부터 창경국민학교에 다녔죠.

◎ 창경국민학교와 새어머니의 기억

이강민 혜화국민학교와 효제국민학교가 없어진 건가요?

김동현 아니요. 그냥 있고, 창경국민학교가 비니까 양쪽에서 차출해가지고 거기 다 맡긴 거죠. 그게 바로 어디 있느냐 하면, 원남동인가? 원남동하고 서울 대학교 사이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홍익대학교 디자인 무슨 건물이 거기에 코너에 있죠? 거기 조금 위예요. 서울대학병원 쪽으로. 그 때 거기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녔고, 11살 때, 내가 4학년인가? 11살이면 4학년이죠? 1947년인가? 48년에 아버지¹⁾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새어머니 하고 사는데 내가 상당히 불우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낳으신 생모²⁾가 두 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새어머니³⁾가 와가지고 나를 키웠는데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내가 새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지요.

우동선 다른 형제분은 없으셨어요?

김동현 내 위로 누님이 두 분 계세요. 그런데 상당히 불우했던 게, 우리 아버지가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분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거기에서 낳은 딸이 둘이 있었어요.

우동선 그럼 누님들도 이복남매네요.

김동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생모가 다시 온 거지요, 왔는데 또 우리 어머니가

1) 金相浩, 1908-1947

2) 李成玉, 1913-1938

3) 鄭敏玉, 1912-1976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어머니, 나한테 새어머니가 삼남매를 길렀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큰누님이 1930년생이니까 여든 다섯이지. 둘째 누님이 여든 하나, 여든 하나니까 34년생이지요. 그다음 삼년 후에 1937년에 내가 태어났고. 그러니까 삼남매지요, 누님이 위로 두 분이 계셨고. 집안이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복잡한 거지요.

우리 누님들은 그때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가정형편도 어렵고 그러니까 미용기술을 배워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도 그때 못 갔던 거 같아요. 내가 볼 때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새어머니지, 그 누님들한테도. 근데 우리 생모가 돌아가니까 그냥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 쪽에 누님들은 같은 자매지요, 누님 둘은 나가서 생활을 했는데, 누님 두 분도 자기 외가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를 새어머니가 키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이강민 근데 그러면 아까 그 양평에 가신 외가는 새어머니 외가로 가신건가요?

김동현 아니지 생모 외가지요. 이미 생모는 돌아가신 후요. 두 살 때 생모는 돌아가셨지요. 그러니까 원 생모의 외가로 간 거지요. 왜냐면 거기 외삼촌들이 여러분 계셨는데 데리고 간 거지요.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간 건지는 그 분들이 알지, 나는 어려서 가라는 데로 간 거지요.

이강민 그러니까 소개 가실 때 같이 가신게 아니라 혼자 가셨겠네요?

김동현 그렇지 혼자만 갔지요. 나만 보냈어요.

이강민 근데 제가 헛갈리는 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48년이라고 하셨잖아요. 48년이면 선생님 12세 때...

김동현 가만있어 봐요, 4학년 때예요, 틀림없이. 47년이 맞아요. 해방되고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년시절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웠죠. 그래서 새어머니가 그때 나보다 25년 위시니까, 새어머니가, 그때 서른 몇이었겠죠. 그죠? 내가 11살이면 서른여섯?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없는 거지요.

우동선 그럼 저기 하셨겠네요.

김동현 그치. 서른여섯인데 나도 이제 친아들이 아니고, 청상과부지요. 그러니까 팔자가 세셨던 거죠. 그러니까 또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사람이 시원치 않아서 몇 번이고 재혼을 하신 거 같아요. 내 기억에는, 내가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근데 이 새어머니가 날 계속 데리고 다니셨어요, 버린 게 아니고. 내가 오고갈 때가 없으니까. 어리고, 그래서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나중에 재혼한 분이 내가 중학교 2학년 땐가 했는데 그 분하고 오래 사셨어요. 끝까지 사신 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재혼하신 분이랑 늙도록 같이 사셨지요. 그래서 내가 의붓아버지 밑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분이 막노동을 하셨거든요.

옛날에 제재소 있죠, 내 기억에는 제재소에서 목도일, 나무를 왜, 요샌 기계가 하지만 옛날에 다 사람이 나무를 옮기고 그랬어요. 그런 거를 하신 거 같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죽데기라고 있어요, 죽데기. 제재기에서 제재를 하면 그 껍질, 껍질이 나오죠. 그걸 겨울에는, 그걸 내가 신당동에 제재소가 있었는데, 우리가 뚝섬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중학교 몸이면서 내가 그걸 구루마에 싣고, 죽데기를, 땀감이지, 신당동에서 뚝섬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제재소에서 나오는 죽데기를 전부 리어카에 실어서 땀감으로...

이강민 그걸 팔려고 하신 게 아니라...

김동현 땀감으로, 연료로 쓰려고, 그만큼 그때 어려웠지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웠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왕십리 거기에 고개가 몇 개 있는데 그걸 넘을 때 마다 참 애를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1950-1954

중학생 시절과 한국전쟁

● 성동공업중학교 입학과 한국전쟁 발발

김동현 그래서 광희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초등학교는 창경국민학교고, 1950년에, “집안이 어려우니까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배워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신당동에 있는 성동공업중학교라고,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갈라지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성동공업중학교 시험을 봤어요. 그게 1950년이야요.

이강민 그럼 광희중에 입학을 하시고 안가신건가요?

김동현 아니 광희중학은 1950년에는 없었고, 나중 얘기 야요. 내가 중학교를 광희중학을 나왔지만, 처음에 들어간 게 성동공업중학교. 음, 6년제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고등학교는 없을 때니까요. 그때 6월 달에 입학한 거 같아요. 기억에, 그래가지고 책을 받고 학교에 나간 게 6월초인데, 6.25가 난거지요. 한 달도 안 되서 6.25가 난거예요. 학교가 풍비박산이 되고 학교를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는, 그때 신당동에 살았는데, 동네에 방이 붙었어요. 여기저기 벽에 방이 붙었는데, 성동공업중학생들 몇 월 며칠 학교로 모여라. 그렇게 방이 붙었어요. 그래서 뭇도 모르고 나갔죠. 그게 7월인가? 7월 말인가 8월 초인가 한참 더울 텐데, 학교를 나갔어요. 나갔더니 강당에다 전부 나온 아이들을 모아놓고, 김일성대학의 학생이라 그래, 그 사람이 나와서 강당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강당 중앙에 분필로 중심에다 선을 그어. 그러더니 이쪽에 다 앉으라 그래. 한쪽은 비워놓고, 이쪽에다 대고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의용군 지원하라는 거예요.

우동선 아... 인민군 나가라고...

김동현 의용군 지원하라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 끝나면, 한 30분 하는데, 한 번 끝나면 몇 명이 가고, 저쪽으로. 분필 이쪽으로, 제 발로 걸어가는 거죠.

우동선 연설을 잘했겠죠.

김동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고학년부터 가는 거예요. 난 1학년 들어간 지 얼마 안됐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5, 6학년, 4, 5, 6학년 이런 형들이 다 저쪽으로 건너가요. 그게 자진이야 자진.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거니까요. 그런 식이에요, 공산당이. 그럼 이제 몇 명이 가는데 그럼 저쪽이 많고 한쪽이 적죠? 지원자는 적고 안간 쪽이 많고. 그럼 또 해. 반복해서 해. 그럼 결국에 저쪽이 많아져요. 그럼 거기 간 친구

중학생 시절 1 개인-6-4



중학생 시절 2 개인-6-11



들이 이쪽에 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이강민 다 갔어요?

김동현 그럼. 다 갔어요. 다 가는데 안갈 수 있어요? 그러더니 바로 거기서 장백산 뒤편 줄기 줄기를 가르치는 거야. 바로. 그러더니 띠를 미리 준비했는지 머리띠를 전부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두르는데, 머리띠에 의용군, 이렇게 써 가지고.

이강민 흰색인가요?

김동현 흰색. 벌써 다 준비했어요. 또 피켓을 메게 하고 군가를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저녁텐데 군인들이 앞뒤로 서 가지고 우리를 인솔해 가지고, 수송국민학교. 내가 거기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게 현 종로구청 자리에 있었어요. 종로구청 자리에 수송국민학교가 있었는데, 그리 전부 인솔해갔어요. 거기 가니까 어두컴컴 저녁이 됐어요.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집에 연락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소위 부대 편성을 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몇 중대, 몇 소대, 몇 분대 뭐 이런 거까지 다. 내가 그때가 1학년 때니까 13살인가 14살인가...

14살 때지요. 근데 그때 키가 클 만큼 컸어요. 그래서 그런지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끌려갔지요. 근데 부모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리로 몰려온 거예요. 수송국민학교로. 그래가지고 그 담장 밖이 아주 아우성인 거예요. 근데 인민군들이 드문드문 서서 제지를 하고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그 담장에 몇 군데가 무너지고 구멍 나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6.25때 아마 폭탄을 맞았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몇 군데가 깨져가지고 거기다 엉성하게 이렇게 철망을 쳐놨는데, 그게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임시로 급하게 해 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 구멍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껌껌해지는데, 내가 구멍 사이로 내다보니까, 군인이 저쪽에 가있더라고요. 근데 그 구멍이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로 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이강민 그러면 여러 명이 아니라 혼자만 도망쳐 나오신 거예요?

김동현 아니 여러 명이 나왔지요. 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집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그걸 뭐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의용군 가는 길 면하게 됐어요. 나중에 들은 얘긴데 우리 반 학생들 중에서도 몇 명 갔었던 거 같아요. 거기 끌려간 거지요. 나중에 정전 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낙동강 전투에 끌려가서 대부분이 거기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참 운 좋게 살았죠.

● 전쟁 시기의 생계 유지

김동현 그리고는 다시 학교를 안 갔죠. 몇 번 오라고 방이 붙었는데, 그때는 뭐 방송도 안 되고, 벽에다가 방을 붙여가지고 그런 식이었는데 안 나가고. 그 대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장사를, 소위 어깨에다 메고 뭘 팔러 다니고, 옛날에 그랬어요. 요새도 사진 보면 나오죠. 어깨에다 메고서 파는...

이강민 좌판을 목에다 해서 이렇게요.

김동현 그렇지. 그거를, 중앙시장이라고 있어요. 신당동에서 왕십리 쪽으로 보면 중앙시장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서 바닥에 놓고도 팔고 어깨에 메고도 팔고. 그때 주로 사탕,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하기에는 콩 볶은 거, 콩을 볶아가지고 소주잔 같은 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강민 하나를 주는 거네요? 간식으로 먹는 건가요?

김동현 그렇지.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주로 콩 볶은 것을 아마 팔았던 거 같애요. 그 다음에 엿. 엿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손으로 만든 것들을 받아서, 방산시장이라고 있지? 거기 가서 아침에 가서 받아다가, 엿을 싸게 사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씩 벌고. 1951년? 그쵸, 51년.

이강민 6.25 다음 해? 근데 피난은 안가시고요?

김동현 피난은, 그때는 6.25때는, 서울 사람들이 거의 피난을 못 갔어요. 뭐 갑자기 인민군들이 들어왔으니까. 28일날 들어왔거든요. 25일날 6.25가 터지고 서울에 들어온 게 아마 28일이었지요, 내 기억엔 그래요. 6.25 나던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나는 그때 동대문운동장 그 근처에 있었던 거 같애요. 근데 그때 군인들이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트럭에 타고 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어요. 그제 바로 6월 25일날이었던 거지요.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휴가 나온 군인들을 다 소집했는지 소식을 듣고 군인들이 길에서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6.25를 그렇게 보내고, 9.28 수복이 됐어요. 그해 9월 28일이야요. 그러니까 아까 51년이 아니고 50년이에요. 왜냐면 50년 9월 28일에 3개월 만에, 그러니까 딱 3개월이네, 6월 28일에 들어왔다가 9월 28일날

서울이 수복됐으니까. 그러니까 50년이야 아까 얘기는. 3개월 동안 그런 장사를 했었고. 9.28이 되면서 다시 국군이 서울에 들어왔지요. 그때까지 고도 학교는 아직 열리지 않았었고. 그러다가 금세 그 다음 해에 중공군이 개입을 했다고 해서 1.4후퇴, 51년 1월 4일, 그때 중공군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월 28일부터 1월 4일까지, 그 다음 해에. 한 4~5개월, 아니지, 3개월 조금 더 되는 그 기간에 장사를 아까 하던 걸 계속했고, 그 다음에 신문배달을 했어요.

● 경향신문 신문팔이

김동현 그때 내가 신문배달한 것이 경향신문이었어. 경향신문사가 어디 있었냐 하면, 지금 롯데백화점, 그 옆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건너편 쪽에, 그러니까 미도파지, 미도파 뒤쪽, 거기 있었어요. 기억이나요 또렷하게. 그때 신문이 발행됐어요. 수복된 다음에. 9.28 이후에 신문이 발행됐어요. 그때는 가판이었죠. 배달하는 형식이 아니고, 신문팔이들이 신문을 받아가지고 길을 뛰어다니면서 파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떠를 해서 신문 문치를 메고 뛰는 거예요.

뛰어야지 멀리 빨리 팔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누가 지나가면 다들 신문을 샀으니까 되도록이면 1등으로 가면서 팔아야 많이 파니까. 그러니까 그 신문을 50부 내지, 상황을 봐서 오늘은 잘 팔린다, 뉴스가 큰 게 났다, 그때만 해도 그런 걸 다 정보를 듣고, 그러면 100부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100부 받는 날, 오늘은 시원찮다 싶으면 50부, 어떤 때는 30부. 그래가지고서 거기 미도파 앞에서부터 뛰기 시작하는데 그게 종로 4가, 5가까지 팔지 않고 계속 뛰어, 마라톤 선수처럼. 왜냐면 그래야 신문팔이 사람들이 안 온 데 가서 팔 수 있어요.

이강민 동대문부터 거꾸로 오시는 건가요?

김동현 그래가지고 신당동까지. 을지로 3, 4가에서 신당동, 장충동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신당동 살았으니까, 장충체육관 앞으로 해서 약수동으로 해서 신당동 쪽으로 내려오면 거의 다 팔려 100부가. 어떤 사람은 신문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지만 그냥 잔돈을 거슬러 받지 않고 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집에 오면은, 약간 추울 때니까, 11월 12월 이때니까, 오바를 입고 뛰는데 온몸이 다 땀이지.

그래서 오바 주머니에 돈을 쑤셔 넣고, 집에 오면은 그때 새어머니의 외 할머니⁴⁾가 계셨어요. 같이 살았는데, 그 할머니가 호주머니에서 전부 돈을 꺼내서 다림질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했을 거야요. 이렇게 프라이팬처럼 생겨가지고 위에 솥을 넣어가지고 밑이 뜨듯해지면 그게 다리미야요. 그걸로 지폐를 전부 할머니가 밤에 다려가지고 차곡차곡. 그런 식으로 신문팔이를 했어요. 그때 참 수입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대우를 참 많이 받았죠, 고생한다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안 팔리는 날에는 밤에 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요. 동네를, 몇 부 남은 걸 팔려고. 그러면 창 너머로 사는 사람도 있었고.

우동선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신문이 100원이면은...

김동현 그때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반 정도 남았어요. 50% 정도. 그러니까 그 신문을 타려고, 그게 전쟁터야요. 신문 받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가야돼요. 그러면 거기서 번호표를 줘요. 왜냐면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니까. 왜냐면 나 같은 아이들이 한 둘이 아니니까. 수백 명이 신

4) 梁順永, 1877-1961

문사 앞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야 빠른 번호를 받아. 그래서 그 번호순으로 신문을 내주는 거지요. 그 앞에 그 당시에 장사도 많았어요. 애들 상대로 해서. 뭐 수백 명이 모이니까. 50부씩 받을 때는, 100부를 받으면 신문사에서 딱 받아서 혼자 가지고 뛰는데, 50부씩 할 때는 두 사람이 합쳐서 해야 돼. 거기서는 50부씩 안주고 무조건 100부씩만 나오니까. 그룹을 짜가지고 나눠 갖는 거야. 그러면 먼저 세는 놈이...

이강민 먼저 50부를 세서 들고 뛰는 거네요?

김동현 50부가 아니야요. 이렇게 막 세니까 어떤 때는 55장도 가져가고 어떤 기술 좋은 놈은 60장도 가져가고, 그러면 마지막 친구가 손해 보게 되는 거지요. 그게 친한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람이 그룹을 짜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1.4 후퇴와 중공군의 기억

이강민 신문은 1.4 후퇴 때 까지만 하신 거예요?

김동현 그렇죠. 1.4 후퇴 때에 중공군이 들어와서, 근데 나는 피난을 가지 못했어요. 그때는 대부분이 피난을 갔어요. 서울 사람들이 워낙 인민군한테 당한 게 대단했으니까. 무서운 걸 알고 다 도망간 거지요. 그때 김장들을 다 한 상태였어요. 서울 빼앗겼을 때, 전쟁이 그렇게 날 줄 모르고 김장들을 한 거지요. 그때는 다 집집마다 김장을 했는데. 다 고스란히 놓고 필요한 물건들만 가지고 거의 다 서울이 비었어요. 근데 난 왜 못 갔느냐, 나도 이제 가려고 우리 집에서 다 짐을 다 구루마, 요새 구루마라고

하면 안 되지, 리어카, 그것도 일본말이지. 수레,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짐을 다는 못 챙기고 어느 정도 챙겨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때 70이 넘으셨을 텐데.

이강민 외할머니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돈 다리시던.

김동현 새어머니의 어머니지. 외할머니지요. 새어머니가 어머니나 마찬가지로. 생모는 내가 두 살 때 돌아가시고 오셨으니까. 새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모셨으니까요. 어머니의 어머니지. 그 분이 안 간다는 거야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피난이나, 너희들이나 가라. 짐은 다 실어놔는데. 근데 할머니를 혼자 두고 우리 어머니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짐을 다시 수레에서 다시 내렸어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때 뭐 서울이 완전히 텅텅 비었어요. 근데 이제 중공군이 들어왔어요. 근데 못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근데. 근데 거기에 시장이 형성됐어요. 중앙시장. 아까 말한 중앙시장에 초라하지만 엉성한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중공군을 상대로 해서 나는 빵장사를 했어요.

우동선 대단하십니다.

김동현 빵장사라는 게 뭐냐 하면, 할머니가 솜씨가 있으셔서 밀가루를 구해가지고 그걸 찰빵처럼, 집에서 만드셔서 통을 어떻게 해서 보온 통처럼 만들어가지고, 겨울이니까. 그래서 그걸 메고 나가서 중앙시장에서 중공군 상대로 해서 빵장사, 그때 중국 돈 많이 만져봤지요.

이강민 중국 돈 받으시면 그걸 어디서 환전을 어떻게 합니까?

김동현 그렇지, 그건 그대로 통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중공군을 이렇게 보면 딱 거지들 같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대가 아니고 삼삼 오오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부대야. 일개 분대 정도의 인원들이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는데, 저희들끼리는 다 연락이 되겠지만. 추운데 겨울에, 중앙시장 양지바른 데 전부 이렇게 앉아가지고 완전히 거지야. 그래가지고 양말을 꿰매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형짚을 신발에다 형짚을 붙이더라고. 신발인데 그게 이상해, 뽕 같은걸 으깨가지고 풀처럼 해가지고 그걸 발라가지고 퍽퍽이 신발에다가 붙이더라고요.

이강민 추워서 그런 건가요? 신발 바닥을 붙인다고요?

김동현 그게, 형짚 신발이야 말하자면. 형짚을 자주 붙이면 켜가 이렇게 두꺼워지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 신발이야. 밑창을 막 붙여. 그러니까 가볍죠, 그게. 형짚으로 된 신발이니까. 그니까 앉기만 하면 그 작업을 하더라고. 붙이고, 붙이고 자꾸만. 그런 꼴도 보고.

❶ 피폭 현장의 철근 수거

김동현 그러다가 이제 다시 수복이 되서 그때 참 서울에 폭격을 많이 했어요. 6.25맨 그런 폭격이 없었고, 1.4 후퇴 난 후에 미군들이 서울을 폭격하는데, 그때 무자비하게 폭격을 했어요. 내가 자두를 팔았어요. 자두 장사를 했는데 폭격을 하여간 엄청나게 했는데, 용산 폭격할 땐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비 오듯이 폭탄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이 전쟁 텔레비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비 오듯이 폭탄을. 그러니까 이렇게 곤두박질쳐서 폭격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폭탄을 투하하는데 뭐 완전히

서울이 매일 거의 불바다였어요.

그때 서울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망가뜨렸다고 보다 미군들이 서울 탈환을 위해서 폭탄을 투하한 거예요. 중앙청도 그 앞에 빌딩들이 있었는데 그때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수복해서 서울 탈환해서 돌아왔는데, 그때는 또 무슨 일을 했느냐면, 폭격 맞은 건물들, 거기서 콘크리트를 떼 내는 거. 그 장사가 괜찮았어요.

이강민 그걸 어디다 쓰죠? 콘크리트를?

김동현 깨가지고 철근만 뽑아.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망치를 갖고 다니면서 콘크리트를 깨. 그러면 이제 철근이 나오죠? 그걸 모아요. 모아서 그걸 철사로 엮어서 끌어. 밑 수는 없으니까 무거워서, 끌어, 그래가지고서 끌어가지고 그제 종로3가인가? 그쯤에서 그 철근만 사는 데가 있었어요. 세종로에서 부터 끌고 종로4가까지 끌고 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가지고 그 철근을 팔아요.

그니까 그건 완전 공것이지. 내가 돈 들어서 신문처럼 사가지고 이익 남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콘크리트를 깨가지고 그 안에 철근을 뽑아내는 거니까. 그건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젊은, 우리 나이 또래, 다 거기에 종사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 한 거 같아요. 그 철근을 일 부러 뻔래도 힘들었을 거야요. 그때는 수복되면서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53년인가? 정전이 됐죠. 53년 7월 며칠인가 정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사회가 안정이 됐어요.

이강민 그러면 51년, 52년, 이렇게 2년 동안 학교를 못가신건가요?

김동현 학교는 뭐 갈 수도 없었지요. 고난의 시대였지요, 지금 젊은 분들은 아마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 남자는 나 하나고.

우동선 그러면 돈을 벌어 오시면 야시장 같은데 가서 식량으로 바꿔 오시는 건가요?

김동현 그렇지. 군데군데 시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1.4 후퇴 그때는 식량이, 사 람이 없으니까 식량을 살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어디로 갔느냐, 방 앓간. 방앗간에 가면, 정미소지, 서울 시내가 아니고 교외 방앗간에 가 서 쌀겨, 쌀겨라고 아세요? 쌀을 빵고 나면 떨어지는 가루가 있어요. 그 걸 푸대에다 담아 와서 그걸 프라이팬에다가 볶아요. 소금을 좀 뿌리고. 그러면 찹쌀하면서 씹쌀하면서 그래도 먹을 만해요. 그걸로 연명을 하는 데, 며칠 지나면 이렇게 부어요. 얼굴이 붓고, 언뜻 보면 살찌는 것 같은 데, 통통 부어요. 누르면 안 나와. 그거를 먹고, 그 다음에는 인민군들이 남아있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뒤지는 거예요.

우동선 뭐 감춰 놓은 거 있나 없나.

김동현 군인 자체로는 힘드니까 피난 못간 사람들을 소집을 시켜가지고 군인 하 나가 따라다니면서 집집마다 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까 내가 김창 은 다 담갔다고 그랬죠. 김치는 어느 집이건 다 있어요. 땅에 묻은 거. 그 러면 그걸 전부 옮겨가지고서 수레에다가 실어줘. 그러면 끝나고 나서 그걸 배분을 해. 인건비로, 수고비라고 해서 그 중에 몇 포기씩 김치도 주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 광희중학교 복학

이강민 1952년에는 계속 철근도 하시고, 이것저것 하셨고, 53년 7월 정전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던 거네요. 정전되고 그 이후에 얘기를...

김동현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갔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가, 중학교가 서울에 4군데 밖에 없었어요. 서부 중학, 동부 중학, 북부, 남부. 동서남북으로 해서 4개가 있었어요. 동부중학은 지금 서울운동장 앞에 덕수상업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동부중학교, 그 다음에 서부는 서울고등학교 자리, 남부는 용산, 용산중학교 자리, 북부는 경동중학교 자리. 그래서 나는 성동공업을 다녔으니까 동부중학교에 들어갔지요.

이강민 그러면 성동공업은 학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건가요?

김동현 없어졌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학교든지 자기 학교를 내걸고 이름을 건 게 없어요. 처음에는 혼육소라고 해서, 서쪽에 있던 학교들의 학생들은 그쪽에, 동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쪽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네 곳에 있었는데, 나는 성동이니까 동부로 갔죠. 덕수상업학교 그 자리에 동부종합중학교. 그때 들어갈 때, 대부분 속이고 2학년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3학년으로 뛰어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엉망이었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학교가 제 학교를 다 찾는데, 그때 중학교가 생겼어요.

이강민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1953년 여름인가요, 가을인가요? 정전이 되고 바로 생긴 건가요?

김동현 아마 정전 바로 1년 전에 생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중학교가 중 고

등학교로 갈라졌지, 그래서 내가 다니던 성동공업중학교가 광희중학교,
그 다음에 성동공업고등학교, 그렇게 한 학교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내
가 자연히 광희중학교 학생이 됐지요. 그래서 거기서 55년에 졸업을 했
지요.

이강민 광희중학교를 처음부터 다시 다니신 거죠?

김동현 1학년부터 나는 곧이 곧하게, 딴 사람들은 2년 쉬었으니까 뭐. 그렇지.
그니까 연계해서, 동부중학교 다닌 게 연계돼 가지고 그리로 갔지. 그때
부터는, 아르바이트는 계속 했어요. 중고등학교 계속 했어요. 학교는 계
속 다니고, 열심히 살려고 했죠.

1955-1957

고등학생 시절 건축과 선택

● 서울고등학교와 교통학교 응시

이강민 광희중학교를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성동공업고등학교를 가는 건가요?

김동현 아니죠. 그때는 고등학교 시험을 또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우리 형님
이 서울중학을 다녔어요. 친형이 아니고 사촌형, 사촌형이 서울고등학
교를 다녔기 때문에, 형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때가 서울고등학교가 일
류 학교였어요. 경기, 서울, 용산, 경북, 이런 정도가 일류학교라 아주 들
어가기가 힘든 학교였죠. 그래서 형님이, 사촌형님이 너는 서울고등학교를
쳐봐라 시험을, 그래서 서울고등학교에 시험을 쳤어요.

그때 김원규⁵⁾ 교장인가, 내가 그건 어디다 쓴 것 같은데, 김원규 교장이 계실 땐데 그 분이 아주 여러 사람한테 존경받는 교장선생님이셨어요. 학교를 아주 참 운영을 잘하시고 학생들 실력 배양을, 영어를 전공 하셨었나? 영어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서울고등학교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내가, 이건 어디다 얘기한 거 같은데, 타교생은, 바로 올라오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코스데, 몇 프로 안 뽑았어요, 타교생은. 그래서 웬만하면 다 떨어뜨렸어요.

이강민 서울중학교 나온 사람이 서울고등학교 가게 해놨군요.

김동현 그게 제 코스였어요. 근데 옆구리에서 들어가니까 잘 안됐어요. 하여간 떨어졌어요. 시험을 잘 못 봤는지. 그래서 그때 특차가 있었는데, 교통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교통고등학교, 용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장학금 많이 주고 돈 안내는 데, 그런 데를 가자 그래서 교통학교를 지원했어요.

그게 특차였어요. 2차 보기 전에. 거기 기계과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통지서를 받고, 이제 그 학교를 가야되겠다. 거기 장학금이, 국비로 가르쳐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졸업하면 기차 바퀴 두드리면서 다녀야 된다더라. 그게 바로 교통학교 기계과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안내키더라고요. 기차 바퀴나 두드리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그만 뒀어요.

이강민 한 번 가시기는 하셨어요? 아니면...

5) 金元圭, 1904-1968

김동현 아니, 안 갔어요. 합격증만 받고, 그래서 2차로 본 게 다시 성동공업고등학교. 우리 원 학교지요. 거기는 1, 2차를 뽑았어요. 1차를 뽑고, 2차도 또 보완해서 학생을 뽑고. 거기를 시험 봐가지고, 거기는 당연히 됐죠.

우동선 그게 지금 철도고등학교죠? 거기 가셨으면 지금 철도청장도 하시고, 더 잘됐을지도 모르겠네요.

김동현 글썄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대학도 다 가고, 거기 머리 좋은 아이들이 많이 갔어요. 그때는 거저 다니는 학교라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철도고등학교가 지금 휘어잡고 있잖아요, 철도청을. 그래가지고 성동공업고등학교에 2차로 다시 시험 봐서 들어갔죠. 그래서 건축과를 지원했어요.

❁ 성동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진학

이강민 아, 이때 건축과를 선택하신건가요?

김동현 그렇지요. 내가 원래 처음에 6.25 때 들어간 거는 과가 전기과였어요. 중학교 때. 6.25 나던 해에 들어간 거는 전기과인데 과를 변경해서 건축과로 갔죠. 내가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회화 같은 건 아니고 기계적인 것.

이강민 자 대고 그리는 거.

김동현 자 대고 그리는 거. 그런 걸 좋아했죠. 그래서 건축과를 가는 게 좋겠다고 주변에서 그래서, 그래서 간 거죠. 그래가지고 건축과에서 계속 반에

서 수석을 했어요. 그때 제도를 잘했고, 김재홍 선생이라고 지금도 살아 계신데 그 분이 건축과 담당 선생님이셨는데, 서울공대 전신인 경성고공 출신이세요. 정말 꼬장꼬장한 선생님이셨지요. 나보다 16년 위니까 지금... 아직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근데 그 분의 제자로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인연을 가졌었죠.

☉ 김재홍 선생님과 장세동 선배

이강민 그때는 한 번 담임이시면 3년 동안 계속 담임이신가요?

김동현 아니, 매년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1학년 때 담임이었고 3학년 때 담임이셨어요. 장세동 씨의 스승이예요. 장세동 씨가 나보다 2년 선배야요. 건축과. 그래서 김재홍 선생의 제자지. 나도 김재홍 선생의 제자고. 성인이 되서 끝까지 선생님 하고 인연을 가진 사람이 아마 두 사람일거예요. 장세동 씨하고 나하고. 성동공고 졸업하고 장세동 선배는 육사를 갔지요.

고등학생 시절 1 개인-6-29



고등학생 시절 2 개인-6-31



그래서 김 선생님을 내가 한 번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냐, 우연히, 내가 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인천에 있었어요. 거기 기술사들이 3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를 7년인가 강사로 나갔어요. 보존과학연구실장 할 때, 근데 그 당시에 기술사, 기술사들도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하루는 강의를 나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거기 앉아 계세요. 참나.

깜짝 놀랐죠. 감히 내가 그 선생님 앞에 나서기도 저거하고. 내가 강당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아이고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그래서 내려가서 선생님께 인사를 했죠. 강의 전에.

김재홍 선생님은 나중에 경기공고로 가셨다가, 그제 무슨 기술학교, 산업대학인가? 경기공업고등학교가 그걸로 바뀌었죠. 전문학교인가 무슨, 경기공고가 없어지고, 무슨, 그, 서울산업대학인가? 산업대학으로 바뀐 거 같아요. 거기서 학장까지 하셨어요. 근데 다 퇴직하시고, 아마 기술사 자격증이 있으시니까, 그걸 쓰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 수강 받으러 온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은사 선생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랬더니 전부 두리번두리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리키면서 저 분이라고. 전부 박수를 치더라고요. 참 쑥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되어서 자주 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세동 선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잊지 못하는 제자 중에 너도 있지만 장세동 선배도 있다고.

이강민 장세동 선생이 되게 똑똑하셨나 봐요,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김동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그때 어려웠어요, 장세동 선배도. 그래서 육사를 간 거죠. 나하고 처지가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세동 선배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명절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한테 인사를 왔다. 그런 사람 자기는 처음 봤다,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못 올 때, 예를 들어 청와대 들어갔을 때, 바쁠 때에는 자기 부인을 보내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선생하면서 그런 제자는 그 사람 한 사람 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의리가 대단했던 사람이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두환 씨가 좋아하는 것도 아마 그런 면이 있었을 거예요. 장세동 선배가 육사 다니면서 학교에 왔어요, 학생 때. 나보다 2년 선배니까, 내가 고3 때 육사 2년생이었을 때, 와 가지고 아래 학년들 모아놓고 육사에 와라. 그래서 내가 육사에 시험을 봤어요. 거기 돈 안 들고 다니니까. 근데 워낙 몸이 부실해가지고, 체중 미달로 떨어졌어요.

● 성동공고 취업반

김동현 해사도 마찬가지야요. 해사도 또 봤는데 체중 미달로 떨어지고, 군대 갈 팔자가 안됐는지, 잘 된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반, 취업반이지, 취업반하고 진학반하고 나뉘어요. 실업학교니까 취직반 쪽이 많았어요. 공부도 그런 쪽으로 주로 했고, 학생 때도 현장실습을 선생님이 데리고 다니고, 나는 그때 졸업반 때, 3학년 때, 3학년이니까 졸업을 안했을 때지, 대림산업에 갔어요.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습을 했고.

이강민 취업반이라서 실습하러 가신 거죠?

김동현 그렇죠. 취업반을 나는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대학은 갈 수 없고,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대림에 실습이 끝나고, 그 다음에 갈 데가 없는데, 돌아

가신 우리 아버지의 친구가 종로 4가인가 5가인가 거기서, 2가인가 3가인가? 거기서 동양정판이라는, 동. 양. 정. 판. 그게 출판사예요. 그걸 운영하고 계신 아버지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가지고 거기 취직해라,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 같은 거예요. 인쇄하는 텐데. 보니까 또 나하고 동년배 아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뭐 대학 간다 그러고, 뭐 부잣집 아들이니까, 가보니까 내가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때려쳤어요, 안되겠다. 자존심도. 그런데 그때 김재홍 선생님이 임천 선생님을 소개해줘서, 그래서 간 거예요.

이강민 김재홍 선생님과 임천 선생님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신가요?

김동현 그러니까 그게 전공은 다른데, 그게 내 생각에는, 이한철 선생님이라는 분 얘기가 나와요. 이한철 선생님이 경성고공 출신이예요.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였어요, 김재홍 선생님과.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닌가. 그 내막은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내 추측에는. 왜냐면 영 동떨어진 분야기 때문에.

그래서 임천 선생님이 김재홍 선생한테 부탁을 해서 학생, 손재주 있는 아이를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나를 추천해 주셨죠. 그래서 임 선생님하고 인연을 갖게 되고, 거기에 가게 되고. 그래서 졸업 막바지에 박물관에 가서 임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바로 평북으로 임 선생님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런 얘기는 이제 저기 다 나오니까.

고등학교 시절 차주환 선생님과 함께
개인-6-30



1958

임천 선생님과과의 인연

● 이한철 선생과 임천 선생

김동욱 스기야마⁶⁾ 선생 책 보니까 1936년에 경기도 대풍군 관음사 대웅전을 했는데, 그 때 현장에 경성고공 건축과 졸업반 이한철⁷⁾ 씨가 경기도 축탁으로 공사담당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오고, 또 그 양반이 졸업하구 바로 결혼하구 신혼 때라...

김동현 부인과 같이 갔지요? 아마.

김동욱 공사장에 그렇게 오래 못 있었다고 하고, 그 후 단청일이 생기니까 추천을 하기를, 관음사 현장에서 이한철 씨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화가를 소개했는데 관음사 주지 딸의 남편인 임천⁸⁾ 씨다 라고. 임천 씨는 고색칠을 아주 잘 하는 것으로 소개가 돼서, 아마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선 처음으로 문화재 수리 문헌에 나온 것 같아요.

김동현 그래서 이한철 선생이 거기 한 1년 있었던가 봐요.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해서 간도로 갔대요. 간도로 가서 건축 일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해방 후에 돌아와서 박물관에 관여를 했던 거 같아요. 왜냐면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한철 선생이 그린 작도가 박물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켄트 지에다가 잉킹을 한 도면이 박물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박물관에 아르바이트를 나가면서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6) 杉山信三, 1906-1997

7) 李漢哲, 1909-1950

8) 林泉, 1909-1965

가 홍익대학의 정인국⁹⁾ 선생이 학위논문을 쓰실 때 빌려 드려, ‘한국건축양식론’ 거기에 실렸고, 그 도면 대부분이 그걸 복사한 도면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그 작업을 내가 준 도면을 복사한 것이지요. 도면이 한 뭉치쯤 되는데, 김주태¹⁰⁾ 씨한테 빌려줘 김주태 씨를 비롯, 이정표¹¹⁾ 씨, 안상열¹²⁾ 씨, 최승일¹³⁾ 씨 등이 수고를 많이 했지요. 요새 같으면 복사기로 한 번에 나올 일을, 일일이 다 트레싱을 해가지고 그것을 논문 쓰실 때 정인국 선생이 활용을 했고 그 그림이 한국건축양식론에 사용되었지요.

김동욱 그럼 원도는 이한철 선생의...

김동현 그렇지요. 도면에 연필로 ‘李 漢 哲’이라고 자기의 싸인을 했어요. 싸인이 아니라 서명을 이렇게 연필로 했더라구요. 내가 거기에 주목을 하고 이한철 선생에 관심을 가졌지요. 그래서 이제 며 임천 선생은 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9.28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6.25, 9.28 수복 때.

그래서 정확한 사망 원인은 모르겠는데, 인왕산인가? 거기 토굴처럼 들어가서 숨어 계시다가, 그때는 이제 밤에는 인민군이 여길 차지했었고, 낮에는 국군이 들락날락 할 때예요, 며칠 동안. 그때 아마 토굴에서 나와 가지고 행동을 어떻게 했었는지,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만세 부르다가 총에 맞았다’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불확실한 거고.

하여간 그때 인민군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한철 선생이 계셨으면, 그때 안돌아가셨으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의 전통건축의 수리기

9) 鄭寅國, 1914-1974

10) 金周泰, 1938-2014

11) 李正杓

12) 安相烈

13) 崔承一

술자로서 대단하셨겠지요. 또 소화공전(昭和工事)을 나오신 양철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양철수. 연배가 아마 대목 조원제¹⁴⁾ 씨하고 비슷하고요, 임천 선생보다는 조금 위 같어요. 나는 그 분을 박물관에서 만났으니까요.

김동욱 그럼 이름의 양 모는?

김동현 그렇지요. 양철수 선생이지요. 그 양반은 ‘소화공전’이라고 해서 그 학교 건축과 출신이었어요. 그 양반은 기능자가 아니고 말하자면 ‘업자’지요. 그 양반이 하여간 임천 선생님 계실 때 자주 박물관에 드나들었어요. 친구처럼 서로 터놓고 얘기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양철수 선생은 나를 또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그 양반 다닐 때 따라다니기도 했었구요.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난 연락도 못 받구요. 화엄사 각황전 수리 때도 참여하셨어요.

아, 스기야마 씨가 쓴 「한국중세건축」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세 사람, 임천, 양철수, 이한철이 왜정 때 문화재 공사에 관여했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얘기는 책에 다 있으니까요. 거기 보면 스기야마 씨가 그래도 정리를 잘 했어요. 그것을 잘 정리를 하면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문화재 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관여를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겠어요.

김동욱 임천 선생님은 원래 그림을 그리고 단청하셨는데 어떻게 건축에 관여하게 되었는지요?

김동현 왜냐하면 당시 개성의 관음사 대웅전에 고색단청을 하고, 새 부재가 들어가니까 일본사람들도 고민하게 된 거지요. 그냥 새 부재를 원목대로 둘 수도 없고, 그렇

14) 趙元在, 1903-1976

다고 가칠만 할 수도 없고 해서 고색단청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한철 씨에게 그냥 단청하는 사람은 안 되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천 선생을 추천한 것 같아요. 임천 선생님에게는 이한철 선생님이 은인이지요. 그 후 간도에서 해방 후에 돌아 온 후에 6.25 때까지 함께 일한 것 같아요. 이한철 선생이 간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은 전혀 몰라요. 아마 건축일을 했을 거다 생각은 들지만요. 개성 산골 관음사에서 마나님하고 함께 지내려니 산골에 와 마나님이 답답했을 것이에요. 경성고궁은 그 당시 굉장히 엘리트만 갔던 곳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못마땅해서 그래서 그만 두었을 거예요. 그런 차에 간도에 갔다 해방 후 박물관에서 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글은 보지 못했어요. 나는 그 분이 그린 도면을 보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 임천 선생님을 뵙다

김동욱 임천 선생을 알게 된 계기를 좀 이야기 해 주세요.

김동현 내가 처음 임천 선생을 만나게 된 것은 1958년,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우리 집안이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업고등학교에 갔지요. 공업고등학교에는 진학반과 취업반이 있었는데 난 대학에 도저히 들어 갈 형편이 안 되어서 취업반 쪽으로 진로를 잡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그러니까 졸업을 얼마 앞두고 있었을 때, 대림산업 용산 미군들 숙소 신축 현장에 실습을 몇 달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박물관에 계시는 임천 선생께서 사람이 필요하다 하시니 가보라고 하셔서 간 것이 임천 선생님과 첫 인연이지요. 그게 아마 1958년, 그때 졸업이 아마 3월인가 그랬어요. 하여간 초봄이었어요.

이강근 1958년에 졸업하신 건가요?

김동현 그렇지요. 1958년에 졸업을 했으니까 1957년은 3학년 때지요. 3학년 방학만 마치면 졸업이니까. 나는 형편상, 도저히 대학은 못가니까 진학반, 취업반 중에 취업반을 택했어요. 당시 건축과 담임선생이 김재홍¹⁵⁾ 선생님이었는데 그 분도 경성고공 건축과 출신이었어요.

김동욱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네요.

김동현 당연히 기억해야지요. 내가 요즘에는 잘 뵈지 못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분을 스승의 날 모셔서 인사드리고 했어요. 1921년생이시니까 나보다 16년 위이시죠. 요즘 몸이 좀 불편하시지만, 그 분이 내 담임을 했어요. 건축학회 명부를 보니까 회원번호 10번이에요. 대 원로시지요.

사모님은 돌아가시고, 지금 중랑천 쪽에서 사세요. 그 선생님께서 나를 각별히 생각하셨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제도를 잘했던 것 같아요. 잉킹 같은 것도 잘하고. 그리고 내 자랑 같지만, 내가 학년 1등을 했어요. 3년간 거의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선생님들이 날 아껴줬어요.

2학년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포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은 김재홍 선생이 아니고 역사를 가르치던 김기덕¹⁶⁾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복학이 된 일도 있었어요. 당시 속으로는 검정고시를 치러 졸업 인정을 받으려 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도 받고 대학도 가고 그래서, 나도 그럴 작정이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를, “다 깨끗이 해결됐다.”고 해서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된 거지요. 취업반에 들어가서 2학년 가을쯤

15) 金裁鴻, 1921-

16) 金基德

에 김재홍 선생님께서 불러 “너 실습을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대림 건설 현장이었죠. 용산에 있는 미군들 숙소였어요. 지금도 있죠. 현장에 가서 처음에는 못 줍는 일을 했어요. 목수들이 사용하다 버린 구부러진 못 같은 것을 줍는 일을 했어요. 주머니를 들고 다니면서 못 줍는 일을 대략 석 달 정도 했어요. 현장에서 열심히 했다고 표창장도 받았지요.

그 후 담임선생님께서 또 불러서 가 보았더니, 임천 선생님이라는 분이 박물관에 계신데, 그때 직위가 박물관감이란 명칭이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분이 건축과 학생 추천을 의뢰하셨다고 해서 고등학교 모자를 쓴 채로 박물관 찾아가 만나 뵈었어요. 그때 임천 선생님은 고고과에 계셨어요. 고고과장이 김원룡¹⁷⁾ 선생님이셨고, 윤무병¹⁸⁾ 선생이 차석, 그 다음이 임천 선생, 그 밑으로 이난영¹⁹⁾ 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분이 있었지요.

이왕기 그때 당시 박물관 위치는 어디 있을 때인지요?

김동현 덕수궁에 있을 때이지요. 덕수궁 석조전 2층 코너에 과라고 해도 네 사람밖에 없었어요. 김원룡 선생님은 칸막이 하나 세워놓고 구석에 계셨고, 나머지 세 분이 둘러앉아 계셨어요. 임천 선생님 첫 인상은 좀 깔끔하지 못하시고 동네 아저씨 같았어요.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담임선생님이 소개를 했으니까 말을 들어야 했지요. 나를 보시고 그럼 내일부터 나오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박물관 말고, 약도를 그려주시면서 내자동 선생님 자택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맥은 ㄷ자형 한옥이었어요. 대청에 책상이 있고 제도판이 경사지게 있었어요. 연필로 그린 도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잉킹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무위사 극락전 도면이었지요. 그때는 그 도면이 뭔지 몰랐어요. 무슨 솜씨 테스트를 하려고 하시

17) 金元龍, 1922-1993

18) 尹武炳, 1924-2010

19) 李蘭映, 1934- : 전 경주박물관장, 동아대학교 교수

나 생각했어요. 그때 그 집에는 딸이 셋,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아들이 바로 임영주²⁰⁾ 씨, 내 고등학교 후배예요. 당시 중학 2학년으로 경북중학교에 다녔어요. 외아들이라 대단히 귀여워하고 떠받들어 모시더라고요. 나하고 비교해보면 천지차이였어요.(웃음) 게다가 딸이 셋이었는데 왔다 갔다 번잡해서 도면 그릴 분위기가 아니었지요. 그래도 거기서 점심도 같이 먹고 사모님께서 잘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뭔지도 잘 모르는 도면을 열심히 그렸지요.

● 무위사 실측 도면 잉킹 작업

김동현 (무위사 보고서에 실린 도면에서) 단청 문양은 한석성²¹⁾ 씨가 그린 것이고, 건축도, 이것은 내가 잉킹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측은 내가 안했어요. 내가 갔을 때는 이미 공사는 끝났었죠. 1956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김동욱 보고서가 나온 것은 58년도이지요?

김동현 그렇지요.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 박면수²²⁾ 씨인데, 학교 다닐 때인지 졸업 후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측하는데 보조로 일했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박면수 씨는 삼풍 엔지니어링과 관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나 보다 4년쯤 연배인 것 같고요. 그때 나는 졸업 전이었고 가을이었어요. 그 도면이 뭔지도 모르고 잉킹을 하였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 끝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당시 난 용두동 청계천가에 살았어요. 그곳은 기동차²³⁾길 옆이었고, 종점은 동대문 이스턴 호텔 자리, 반대편 종점은 독섬이었지요. 내가 살던 동네는 목교가

20) 林永周

21) 韓奭成, 1923-2005

22) 朴免洙, 1933- : 홍익대 출신

23) 전자

있는 동네였어요. 돈이 없어서 겨울에 박물관 다니는데 걸어서 10리 길을, 용두동, 동대문, 종로를 거쳐 덕수궁까지 걸어 다녔는데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한쪽 귀가 얼어서 2배 정도로 커지고 동상에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그때 외할머니 말씀에 따라 동치미 국물에 귀를 담그기도 한 일이 있었지요.

아무튼, 일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 임천 선생님이 아르바이트 돈을 안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박물관 일이 아니고 선생님 개인적인 일이라 집에서 그리라고 한 것인데 돈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임 선생님과 연락할 일도 있고 해서 박물관에도 들락날락 했는데 그걸 윤무병 선생님께서 유심히 보셨나 봐요. 아침에 일찍 박물관에 가서 임 선생님을 만나고, 그날 일을 집으로 가서 하라고 하면 집으로 가고, 그 곳 책상에서 하라고 하면 거기서 하고, 그런 식으로 도면만 계속 그렸지요. 6.25때 불난 축석루도 내가 1959년인가에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그려놓은 연필 도면을 잉킹하는 작업이었지요. 그중에 또 팔각정도 그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고다 것은 아닌 것 같고, 팔각정은 아마 남산에 있는 팔각정이 아닌가 생각 돼요.

이경미 무위사 잉킹하실 때 기본도면은 누가 그려 놓으신 건가요? 임천 선생님께서 그린 것인가요?

김동현 그것은 박면수 씨가 한 것이라 들었어요. 박면수라는 사람이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던 같아요. 여의도에 사무실도 있었고 삼풍의 안정환²⁴⁾ 씨와 함께 거기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강근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이 잘 연결이 되셨어요?

24) 安政煥

김동현 고등학교 땀 고건축의 고(古)자도 몰랐어요. 고건축이란 말조차 알지도 못했고요. 도면 못 그리는 애들 도면을 밤 두세 시까지 밤새도록 그려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지요. 그 덕에 숨씨가 늘더라고요. 네다섯 명 것을 계속 그려줬어요. 그 녀석들은 건축과 관련 없는 쪽으로 대학들을 갔어요. 서울 상대, 외대 불어과, 서울대 치과대학 등 건축과 관계없는 다른 곳으로요. 내가 다니던 성동공고가 건축과는 상관없던 경기고, 경북고, 서울고 등 일반고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도면 그리는 재주는 전혀 없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덕에 내가 그들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지요.

이경미 임천 선생님께 한 번도 월급 달라고 말씀 안하셨어요?

김동현 안했지요. 내가 그런 인물이 못 됐어요. 그냥 성심성의를 다해서 했지요.

김동욱 처음에 임천 선생님 같은 분들께서 직접 설계도 하시고 그렸을 텐데 그런 초창기 과정의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동현 축석루가 6.25 때 불나서 새로 지었지요. 1960년이지요. 그때는 무언지도 몰랐는데, 임천 선생님께서 초안을 스케치한 것을 내가 그렸죠. 그리고 남산 팔각정도 임천 선생님께서 하실 때 도와드리고, 그것도 초안은 임천 선생님께서 다 하신 것이죠. 그 다음은 경천사 복원도를 그렸죠. 꼽을 만한 것은 그렇게 세 가지 정도이지요.

처음에 축서루나 남산 정자 같은 것은 임천 선생님께서 다 아이디어를 내셔서 나는 드로잉만 한 것이고, 경천사탑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고 임천 선생님께서는 직접 관여를 안 하셨죠.

● 임천 선생님의 개인 조수 시절

김동현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교복에서 평복으로 옷을 갈아 입고 일했어요. 그때 당시 임천 선생님께서 문교부에서 많은 일을 맡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 박물관은 문교부 소속이었지요. 지금 생각하기로는 아마 당시 학무과에서 문화재를 다뤘던 것 같아요. 예산도 거기서 세우고 집행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보수한다고 하면 임 선생님께서 현장조사를 나가서 견적을 뽑고 보수지침을 만드시고 했죠. 나도 선생님을 따라 남대문도 가고 여러 현장을 다녔지요.

현장에 나가면 난 스케치를 하였지요. 평면, 입면, 단면 스케치. 내 생각에는 당시 임천 선생님께서 내가 그린 무위사 도면을 보고 실력을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실 때마다 나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스케치를 하는 동안 임천 선생께서는 내가 그리는 것도 보지 않으시고 꾸벅꾸벅 졸고 계시다가, 제가 “선생님 다 그렸습니다.” 라고 하면 자로 재지도 않고 그냥 눈으로 읽어서 “주간 8자, 가운데 칸 9자, 측면 8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건물의 크기를 다 불러 주셨어요. “기둥 굵기 1자 2치, 그 위에 주두는 1자 2치에 맞추어서 조금 넓히면 되고.” 하는 식으로 눈으로 읽으셨죠. 그리고 총 높이만 형짚줄자, 누노 테이프로 꼬챙이 같은 것에 연결해서 보 높이까지만 잴어요. 보까지만 재면 되었지요. 그 후 박물관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스케일을 대고 도면을 그렸어요. 그때는 사진도 안 찍고 스케치한 것만 토대로 그렸지요. 그럼 그게 이제 보수도면이 되는 거예요. 실제 보수할 때는 현장에서 목수들이 부재 크기를 재서 하나씩 크게 문제는 없었지요. 견적을 뽑기 위해서 필요한 도면을 그렸던 거예요.

이경미 임천 선생이 현장에서 불러주신 부재 수치가 나중에 재보니 딱딱 맞던가요?

김동현 조금씩 틀린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몇 치 정도 차이가 물론 나지만 대체적으로 맞았어요. 임천 선생님은 원래 단청을 했기에, 수십 년 했기에. 단청하려면 그 짜

임새를 정확하게 알아서 기본도를 그리기에 대강은 짐작을 하실 수 있지요. 여러 번의 경험에 의해 몇 자 몇 치 정도는,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한옥설계도 그릴 때도 대강 비율에 의해 그리면 제대로 건물이 되는 그런 식이지요. 그분도 경험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그려 보라고 권해요. 몸에 배여야 하니까. 그래서 캐드는 안 좋아해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했던 덕분에 안보고 기초서부터 트리스 짜는 것까지 그릴 수 있었어요.

이왕기 세키구치 킨야²⁵⁾ 선생이 학생들에게 꼭 리포트를 손으로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김동현 요코하마대(横浜大)의 세키구치 선생이 아주 대단한 분이예요. 내가 그 전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낸 것 논문이 있는데, 이광로²⁶⁾ 교수 회갑논총, 김동욱 교수가 아실거예요, 거기 실린 것을 세세하게 교정해서 보낸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왕기 교수에게 선생을 소개했었지요. 요코하마대학의 세키구치 교수는 한국건축, 특히 고구려 것에 관심이 많은 분이였지요. 나하고는 친하게 지냈어요. 나보다 5년 위이고, 1932년생, 그리고 뽀뽀이가 바르고 교수같지 않으시구, 연구실적이 많고 소탈하게 살고 있었지요. 동경대 강의도 나오구 했어요.

이왕기 일본 건축회지에 10번인가 연속으로 선종양(禪宗樣)과 관련해서 논문도 냈지요. 학회지에 글도 계속 내시고 그해 논문상도 타셨지요.

● 견적서 작업

김동현 그 다음에 이제 견적서를 만들라고 그러시면, 견적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25) 關口欣也, 1932-

26) 李光魯, 1928-

다 무슨 공사 ‘1식’이었어요. 서까래 몇 본 1식, 그리고 얼마, 이런 식으로 대충 뽑으면 임 선생님께서 총액을 확인하시죠. “이만하면 되겠다.” 하시면 그것을 정서를 해서 견적서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 도면과 견적서를 문교부로 보내면 이제 그것으로 발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천 선생님께서 늘 사업자, 시공자를 지정을 하셨어요. 요새 같으면 참가가 막힌 거지요. 그러니까 줄지어서 손님이 찾아왔어요. 임덕창²⁷⁾, 양철수, 정복영²⁸⁾ 씨 등등. 그때 정복영 씨가 자주 드나들었어요. 임덕창 씨의 아버지는 임배근 씨였어요. 그리고 임배근 씨의 선배 되는 사람이 최원식²⁹⁾ 씨라고 궁궐목수, 그 다음에 그 위가 홍 씨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잘 모르겠고, 임덕창 씨도 원래는 목수예요, 나중에는 사업자가 되었지만. 다 7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지요. 견적된 것을 보시고서는 어떨 때는 “김군, 이건 너무 적다. 동그라미 하나 더 쳐라.” 그러셨어요. 그럼 총액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치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거기에 내역을 맞춰 고쳤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이것은 양철수가 말을 일인데 요전 일에서 그 사람이 일을 잘 했는데 손해를 많이 봤어. 그러니 이번에는 보충을 좀 해줘야지.” 하시면 0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가지고 따질 사람이 없었지요. 임천 선생님이 도장을 팡 찍으면 그게 바로 공사시행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위대가표가 있으면 문화재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문화재업자들도 무슨 득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이 말을 난 꼭 남기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크게 잘못될 게 없다고요. 그리고 임 선생님께서는 다 아셨지요. “저 놈 안 되겠더라”, “박물관에서 너는 안 돼.”, “그 건물은 너는 안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 딱 이렇게 말하셨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임 선생님

27) 林德昌

28) 鄭復永, 1921-2014

29) 崔元植

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일을 잘 해야 했어요. 그래서 양철수, 정복영, 임택창 씨가 주로 일을 많이 했고, 열심히들 했지요.

1959

한양대학교 입학

● 한양대학교 야간부 입학

김동현 1958년에는 학교를 안가고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좀 모았어요. 당시 대학 등록금이 아마 7,000~8,000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1959년 당시 대학등록금 영수증과 성적표가 지금도 다 있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모든 성적표를 다 가지고 있지요. 내 자랑 같아서 좀 쑥스럽지만 중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6년간. 그때는 한 학급에 120명 정도씩 있었죠. 우등상, 개근상, 대학교, 대학원 때 것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1959년에 대학에 갔지요. 대학을 안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물관에 드나들면서 보니까 그 직원들 수준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서울대 출신이거나해서 나처럼 고등학교만 나와서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1959년에 한양대학교 야간부, 그때는 2부라고 불렀지요, 지금의 한양공고 자리에서 강의를 받았어요.

이경미 한양대 본교 캠퍼스가 아니지요?

김동현 그래요. 그때는 본교가 지금의 행당동에 있었는데 민동산에 가설 건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본관건물만이 있었을 때이지요.

제도시간에는 거기로 갔어요. 학생 대부분이 직장인들이었어요. 그때는 청강생

도 많아서 반 이상이었어요. 그제 학교가 하나의 사업장이었지요. 서로 누가 진짜 학생이고 누가 청강생인지 몰랐어요. 누가 진짜 학생이고 누가 청강생인지는 나중에 군대 갈 때 되면 알았어요. 학보병으로 영장이 나오면 정식학생이고 일반병으로 나오면 청강생이죠. 그때 당시 학보병은 복무기간이 1년 반이었어요. ROTC가 생기기 전에. 만약 전쟁이 나면 학보병은 다시 재입대할 때 장교로 임명된다고 했어요. 하여간 이 때 정식 학생과 청강생이 다 드러나게 되었지요. 나중에 알아보니 내가 건축과 입학시험에 우수성적으로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밤에는 학교 가고 낮에는 박물관에서 일하며 살았어요. 이것은 내가 무슨 단청기술을 배웠을 때 같아요. 문교부 주최 강좌를 들었죠. 1959년이니가 졸업 다음 해인 것 같네요. 그때 단청기술자를 양성하는 강습회에서 10강좌 103시간 이수한 거예요. 박물관에서 했었죠.

이경미 그런 강좌를 그때도 했었군요.

김동현 몇 년 시행 후에 그만 두었죠. 이것은 병역을 완료했다는 신고서이에요. 여태껏 본 것이 제1권이고 다해서 모두 8권 정도가 있어요. 모아둔 것이 그렇게 되요. 등록금 영수증까지. 건축과 4학년 13,000원, 6,700원 3학년 등록금. 대학 4년 동안의 것이 다 있지요.

김동욱 선생님 학교 다니실 때도 사회가 안정 된 때가 아니라 어려우셨을 텐데, 다 모아 놓으셨네요.

제2장

문화재 연구 입문 시절

1959 감은사지 발굴

1959-1960 경천사탑 실측

1960-1961 군입대와 남대문 공사

1962-1967 박물관 근무 시절

1967-1970 고건축단장 집필

1959
1970

군대 가기 전인 1959~1960년 초까지 한 것으로는 경천사 10층 석탑
실측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지요. 그 석탑 부재들이 근정전 앞의
서회랑에 짝 낱개로 있었어요. 그것이 탐인지 뭔지도 잘 모르게 있었
는데 느닷없이 실측하라고 임천 선생님이 명령하셨지요. 혼자 하려
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죽을 맛이었지요.

02 문화재 연구 입문 시절

1959

감은사지
발굴

● 김정기 박사와의 인연

김동현 대학 다니면서는 임천 선생님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했지요. 윤무병 선생님께서 임 선생한테 돈도 못 받고 있는 내 처지를 알고 계셨는지, 나를 좀 측은하게 생각하셨는지 감은사지 할 때, “김군, 자네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따라 감은사지에 가겠나?” 하셔서 군대 가기 전, 1959년 가을에 감은사지에 갔어요. 그렇게 해서 감은사지 발굴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그 때 김정기³⁰⁾ 선생과 알게 됐어요. 그 전에도 임천 선생님 아르바이트시절 박물관에 드나들면서 보긴 봤었지만요.

김정기 선생의 첫 인상은 흥터도 있고 안 좋았어요. 윤무병 선생님께서 인사를 시켰어요. 그때가 대학 1학년 때였어요. 내가 듣기로는 김정기 선생은 메이지대학(明治大學) 건축과를 나오시고, 동경대(東京大) 후지시마 가이지로³¹⁾ 교수 밑에서

30) 金正基, 1930-

31) 藤島亥治郎, 1899-2002

발굴할 때 따라다니면서 조수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오사카(大阪) 사천왕사(四天王寺)도 관여를 해서 대표적인 것이 사천왕사지 발굴이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감은사에는 윤무병 선생, 김정기 선생, 나, 이렇게 3명이 갔는데, 이를 동안 갔어요. 그때가 1959년 사라호 태풍이 온 해였어요. 경주-감포 간 도로가 망가져서 차가 못 다녔어요. 경주에서 1박하고 군부대에서 쓰리쿼터를 빌렸어요. 해병대 차였던 것 같아요. 포항으로 해서 해변도로를 따라 감은사지로 가는데 하루가 걸렸지요. 현장에서는 제일 먼저 벤치마크 만드는 일을 했어요. 폴대 잡는 일을 했지요. 건축과에서는 측량을 안 가르치니까 난 측량에 대해선 몰랐는데, 김정기 선생이 그 원리를 알려주셨죠.

김철민 윤무병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것 아닌가요?

김동현 김정기 박사가 알려준 것이지요. 당시 윤무병 선생님도 측량 방법은 모르셨을 거예요. 김정기 선생이 한국에 온 것은, 김재원³²⁾ 박사가 감은사지를 발굴 조사한다는 조건으로 하버드대에서 연구비를 받으신 것 같아요. 누굴 시켜야할지 고민하시다가 황수영³³⁾ 선생님과 의논을 하셨는데, 당시 동경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이던 세키노 박사³⁴⁾와 황수영 선생님이 같은 동경제대 출신이었나 봐요. 당시에 일본에 다니기 힘든 때였는데 황수영 선생님은 그래도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아요. 황수영 선생님께서 세키노 박사한테 감은사지 발굴을 얘기를 했더니 그 분이 김정기 선생을 추천했다고 해요. 그래서 황수영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서 박물관에서 김정기 선생께 연락을 취하고, 발굴조사를 위해 일시 귀국하

32) 金裁元, 1909-1990 : 초대 국립박물관장

33) 黃壽永, 1918-2011

34) 關野克, 1909-2001 : 세키노 타다시(關野貞)박사 아들

셨다고 해요. 영구 귀국이 아니고, 김정기 박사와의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그 분이 불광동에 하숙을 얻었어요. 거기서 한동안 같이 지냈죠. 감은사에서 친해진 후 같이 살다시피 했어요. 집에서 군불도 때고 시장 가서 장도 보고 그랬어요. 내가 잘 하니까 더욱 친해지게 된 거 아닐까요. (웃음) 날 동생처럼 대해 주셨어요. 게다가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말도 발음을 제대로 못 하셨고요. 감은사에서는 또박또박 돈을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돈 받은 것 처음이었지요. 윤무병 선생님께서 그런 돈 관계를 참 잘하셨어요. 감은사에서는 발굴경험도 쌓고 벤치마크 설정, 트랜싯, 레벨 사용하는 법, 평판측량 등을 배웠어요. 김정기 박사가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그대로 다 배웠어요. 거리를 재는 법도 배웠어요. 스틸테이프를 3~5번을 재서 평균치를 내는 방법도 다 배웠지요. 스틸테이프를 꼭 힘주어서 팽팽하게 당기려면 손이 아프니까 손수건을 손에 감고 당기고, 그때 그런 것을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측할 것, 스케치 등은 나를 계속 시켰어요.

김정기 선생께서 내 실력을 인정하셨어요. 그것이 큰 인연이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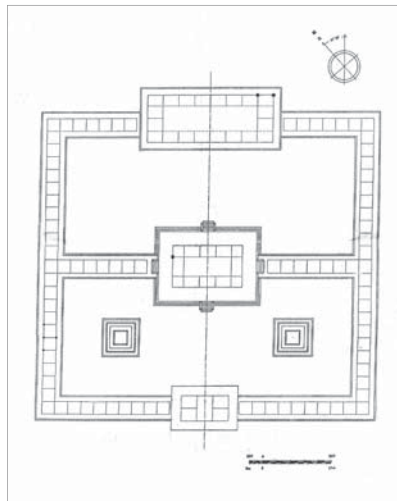
감은사 발굴(임천 선생 조주시절) 개인-6-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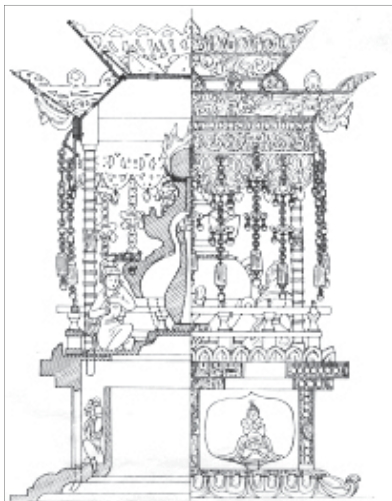
감은사탑 해체(1996) 개인-6-233



감은사 배치도 바인더-028(5)-5



감은사 사리기 실측도 바인더-028(6)-3



나중에 동경대학에 유학을 간 것, 그리고 나라문화재연구소(奈良文化財研究所)도 그분 도움으로 갔지요. 사람의 인연이 참 중요해요. 첫 발도 중요하구요. 여러분들도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인생 초기에 이 일을 하면서 대가들도 알게 되었어요. 김원룡 선생님도, 김재원 박사도. 김재원 박사는 1967년에 내가 결혼을 할 때 주례도 서 주셨죠. 원래 재정보 증은 안 서주시는 분인데 내가 집 마련 대출할 때 처음으로 보증을 서 주신 분이죠. 그만큼 나를 믿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날 이태리로 보내려고 하셨죠. 석조물 보존을 전공시키려고.

조수 시절 수입

김동현 군대를 가려고 하니 임천 선생님께서 나를 불렀어요. 그동안 본인 밑에서

많이 고생했고 기다렸다고 하시며 30만 원³⁵⁾을 주셨어요. 나중에 그 돈으로 결혼하고 답십리에 집³⁶⁾을 마련했어요. 이때 모자란 돈을 김재원 박사께서 보증을 서주셨던 것이고요. 신무림³⁷⁾이라는 내 고등학교 동기한테 군대 가기 전에 이 돈을 맡겼어요. 대학은 1년 먼저 가 입학선배이고 부잣집 아들 녀석인데, 그만큼 믿는 친구라서 그 친구에게 맡겼지요.

김기주 감은사 계실 때는 하루에 얼마씩 받으셨는지요?

김동현 아마 한 150~200원을 일당으로 받은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 박물관에 있다가 서울대학의 김원룡 교수의 개인조교로 있을 때는 한 달에 5,000원을 받았어요. 그때가 1963~1965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50만원 정도 될 것이에요.

이왕기 감은사 발굴이 첫 번째 발굴인가요?

김동현 아니죠. 첫 번째는 서봉총인데, 건물지 발굴로는 감은사가 처음이지요. 쪽 보니까 발굴과 관련해서는 시간만 오래 걸렸지 수는 많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감은사를 하고 1965년에 부여의 금강사, 불국사, 천마총, 황남대총, 안압지, 황룡사,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제암리 발굴이 있었죠. 제암리 이야기도 했지요? 이게 다예요.

35) 당시 기준으로 집 한 채 값

36) 36만원

37) 申武林 : 당시 최고 요리집이었던 청수장집 아들

1959-1960

경천사탑 실측

● 경천사 10층 석탑 부재 실측 및 복원도 작성

김동현 군대 가기 전인 1959~1960년 초까지 한 것으로는 경천사 10층 석탑 실측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지요. 그 석탑 부재들이 근정전 앞의 서회랑에 짝 날개로 있었어요. 그것이 탑인지 뭔지도 잘 모르게 있었는데 느닷없이 실측하라고 임천 선생님이 명령하셨지요. 혼자 하려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죽을 맛이였지요. 하나하나 한 쪽 한 쪽 다 그렸어요. 그런 다음 군대 가기 직전에 복원도를 그렸지요. 복원도는 지금도 문화재연구소에 있고, 나도 청사진을 갖고 있어요. 디테일을 자세히는 못 그렸지만 단면도를 복원해서 임천 선생님께 드렸어요. 당시 그것을 가지고 아마 문교부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1960년 말인가 1961년 초인가에 일을 시작했어요.

당시 신상균³⁸⁾ 씨라는 분이 있을 때였어요. 불상조각을 하는 분이였어요. 그 아들도 같은 일하는 분인데 아마 이름이 신광호³⁹⁾ 씨 일거예요. 의정부 쪽에 살고 있고, 법주사 동불을 만든 사람이에요. 신상균 씨 그분이 그 복원 일을 했어요. 내가 군대 가 있을 때지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 가기 전 임천 선생님께 “저 영장 나와서 이제 군대 갑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삼년 임 선생님을 도와 드렸던 해였어요.

김동욱 당시 공식적인 신분은 박물관 소속이었던 것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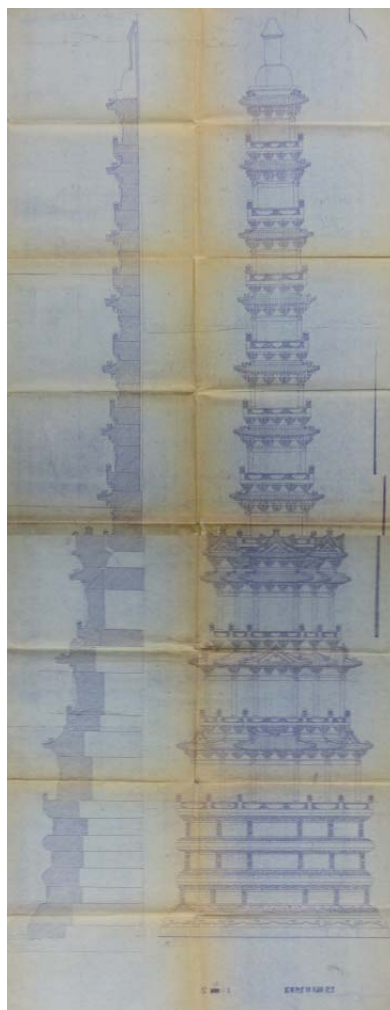
38) 申相均

39) 申光鎬

김동현 아니에요. 당시의 신분은 말하자면 임 선생님 개인조수였어요.

김동욱 군대 가시기 전에 경천사탑을 다 실측해서 도면을 만드셨죠.

경천사 10층석탑 입면도 바인더-058(9)-1



김동현 내가 처음 그린 경천사탑 도면은 청사진이 있는데, 흩어져있던 것을 실측해서 입면도, 단면도(조립도)를 만들었어요. 많이 틀리겠지만 원래 도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재를 다 끼워 맞춰서 10층을 그렸고, 그것을 가지고 경복궁 뜰에 세운 거예요. 군대 가시기 전에 임 선생님께 30여만 원 받았다고 저번에 말한 적 있었지요? 그게 그 설계비를 받은 거지요. 그 양반은 더 받았겠지.

경천사탑 복원 작업

김동현 1961년에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보니까 경천사탑이 조립되어 있었어요. 군복 입은 채로 가서 내가 지적을 했어요. “선생님 탑이 잘못되었습니다. 저기가 빠돌아졌습니다. 7층인가 8층인가에서 빠돌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임천 선생님이 “야 이제 그거 고칠 수가 없다. 콘크리트로 속을 채워 이제 손댈 수 없다.” 그러셨

어요. 그래서 내가 199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끝날 즈음에 그것을 해체했어요.

처음에 축서루나 남산 정자 같은 것은 임천 선생님이 다 아이디어를 내서서 내가 드로잉을 한 것이고, 경천사탑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고, 임천 선생님은 직접 관여를 안했죠. 경천사탑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2차 복원을 하면서 연구소장 때 마무리를 하려고 했지만 다 끝내지는 못했죠. 최초 복원 때는 정밀실측과는 많이 틀릴 것이예요. 세워진 것이 아니고 조각을 모아서 한 것이라 그런 점이 있죠. 그것을 그리고 군대를 가고 제대하니 세워져 있었지요. 약간 휘어져 있었지만 다 콘크리트해서 뜯을 수도 없고 제대로 접착도 안되고.

김철민 제가 일할 때 보니까 위아래를 접착한 것이 아니라 올려놓은 것이었어요. 틈도 많이 벌어져 있었죠.

김동현 가운데 찰주 구멍에다가 전부 콘크리트로 메꾼 것이 아닌가요?

김철민 그때 보았을 때는 동으로 만든 철심 같은 것을 끼워서 했었어요.

김동욱 가운데 찰주 구멍에 콘크리트를 메워서 기둥역할을 한 것은 일제 때 한 것 아닌가요?

김동현 일제 때 한 거죠.

1960-1961

군입대와 남대문 공사

☉ 군입대와 전별금의 추억

김동현 1960년 11월, 그러니까 2학년 마칠 때쯤 영장이 나왔어요. 그것이 소위 '00' (0021960) 군번이었어요. 4.19가 나고 6개월 정도 지난 때에 최전방으로 가게 되었죠. 그 후 군대 있을 때 5.16도 났어요.

요즘 사람들 일을 맡아서 마치면 보고를 하고 알리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잘 못해요. 이것을 잘 챙기고 따지는 분이 서울대의 김원룡 선생님이시지요. 내가 그분의 영향을 받은 거 같아요. 그 분은 일일이 다 답장을 보내고 해요.

선생님이 박물관에 일하시던 시절에 내가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박물관 직원들이 전별금을 모아 주었어요. 내가 정식 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인데. 과장은 말할 것도 없고 수위장까지 전별금을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매표소 아가씨까지 했어요.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정금옥이라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그때 박물관에 다녔는데 전별금 기록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것을 들춰보면서 따졌지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집사람은 그때는 김동현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했다고 변명을 하었어요. (웃음)

이것은 군대 갈 때 전별금 기록지죠. 김원룡 선생께서 2,000원, 지금의 200,000원 수준이에요, 윤무병 선생께서 2,000원, 임천 선생께서 3,000원, 이난영 씨 500원, 이영철 과장, 김석순 씨, 최희순 선생 5,000원, 정금옥 씨 500원, 수위 양반들까지도 줬어요. 미술과장으로 있던 분 등록금이 7,000원이었으니 엄청난 돈이었죠.

● 남대문 공사의 참여인력

김동현 군 복무 중 1961년인가 남대문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때 남대문 공사에 서울대, 홍익대, 한양대에서 사람들을 차출했어요. 대학에서는 아마 한 명씩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공립 공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경기공고, 서울공고, 성동공고에서 3명씩 추천을 받아서 투입이 되었어요. 그때 홍익대에서는 김주태 씨, 서울대에서는 최용완⁴⁰⁾ 씨, 한양대에서는 나를 지목했지만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난 참여를 못했지요. 그래서 서울대와 홍익대에서만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는...

김동욱 김의중⁴¹⁾ 씨가 참여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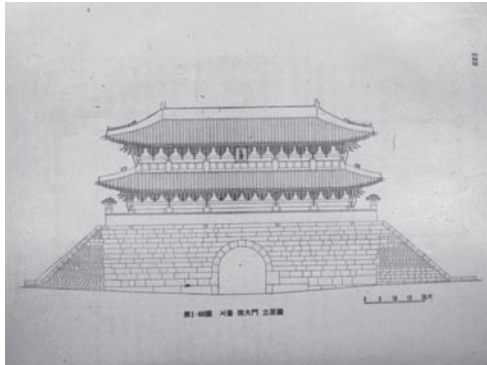
김동현 그 사람은 경기공고 출신인데 참여를 했다고 들었고, 서울공고에서는 최승일 씨, 성동공고에서는 3명이 참여했었는데. 안상렬 씨, 현 기술자협회 회장이예요. 이정표 씨, 체격이 크고 화성행궁 했던 사람이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기억이 잘 안나요. 성동공고 출신이 나를 시작으로 해서 문화재 보수와 관련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유문용⁴²⁾ 씨가 3년 후배이고, 안상렬 씨가 4년 후배이지요.

5.16 후에는 남대문과 석굴암이 당시의 큰 문화재 공사였어요. 남대문은 내가 직접 참여 못했고, 석굴암은 군대 갔다 와서 나중에 참여했어요.

40) 崔容完

41) 金義中

42) 俞門龍



☉ 임천 선생님 사무실을 거절

김동현 결국 나중에는 임천 선생님을 배반 했지요. 임천 선생님이 박물관 그만두고 설계사무소 차렸을 때, 날 오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때 김재원 박사가 날 불러서 “너 거기가면 큰일 난다. 거기 가지마라. 잘못하면 업자된다. 거기에 휩쓸리면 넌 끝난다.” 하시며 말렸어요.

김재원 박사가 안목이 있으셨어요. 5.16 나고 문화재기술자 뽑는 새로운 시험제도 생기고, 회사가 생기고, 설계사무소도 생기고 할 때 꽤나 시끄러웠지요. 그때 임천 선생님이 뒀에 빠져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속상하셔서 병에 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김동욱 그 전에 책임 잘 맡아 일하시다가 밖에 나가서 업자로 일하시는 것이...

김동현 김재원 박사가 참 대단하신 분이예요. “당장 월급은 많이 받겠지만 장래

를 위해서는 가지 마라.” 그때 최용완, 신영훈⁴³⁾ 씨가 거기 임천선생 사무실에 갔지요. 두 분이 사이가 서로 안 좋았다고 들었어요. 문화재 몇 곳 잘못 수리 했다고 지탄도 받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김동욱 남대문 수리할 때 최용완 씨가 계속 복원도와 글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최용완 씨.

김동욱 서울공대 출신이지요?

김동현 맞아요. 똑똑한 사람이었고 너무 고집이 센 사람이었죠. 주변의 의견들도 참조해야하는데, 무슨 타격을 받고 그만 두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미국 가서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있었으면 아주 대가가 됐을 것인데 아쉬워요.

김동욱 남대문 수리할 때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김동현 그랬어요. 대단했어요.

이경미 임천 선생님 사무실 이름은요?

김동현 사무실명은 ‘고건축연구소’였던 거 같아요. ‘신양사’라구 영관급 군 출신들이 5.16 후 제대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곳인데 문화재공사를 전부 싹쓸

43) 申榮勳, 1935-

이 했지요. 그래서 임천 선생 연구소를 그곳의 부설연구소처럼 한 것이
예요. 위치가 바로 시청 앞에 있었는데 신양사 건물 안에 연구소 즉 건축
사무실 만들고 그곳에서 설계를 하구 공사는 신양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나와 김주태 씨가 기술자 면허가 있으면서 어디에도 소속을 하지 않았으
니 박병기 전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다른 곳에 면허를 넣지 말아
달라고, 다른 경쟁 회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한 달 얼마씩 돈을 주
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와 김주태 씨가 완강히 거부했지요. 난 1회 때
시험에 합격했지만 한 번도 면허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번은 내가 서울대학에 있는데 대전에서 전화가 왔는데 “취직했으면 얼
굴이라도 보이랴구. 면허를 넣었으면 사장한테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 가보니 누군가가 나의 면허를 맡기
고 월급을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추적을 했더니 관리국의 어떤 직원이,
이름 밝히지 않을게요, 몰래 나의 면허를 맡기고 챙겼더라고요. 그 사람
한테 백배 사죄를 받았지만 그때 참 허술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전의 모
회사에 취직한 일이 한번 있어요.

1962-1967

박물관 근무 시절

● 국립박물관 미술과 취직

김동욱 임천 선생님께서 사무실을 내실 때, 그때가 제대하실 때 였겠네요?

김동현 제대 조금 후에요, 석굴암 수리할 때 임천 선생님께서 공무원을 그만 두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1965년에 돌아가셨지요. 그때는 박물관에서 건조물실측조사 예산을 세웠어요. 임천 선생님께서 박물관을 그만두시기 전, 내가 군대 제대한 직후, 나에게 시키신 일이 정수사 법당, 전등사 약사전, 나주향교 대성전 현황실측과 같은 박물관 사업이었어요. 건축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사업의 하나로 세웠지요. 그때는 현장에서 건물 안에 제도판을 놓고 실측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렸어요. 전등사 약사전 실측은 화폐개혁이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1962년이었지요.

김철민 그럼 그때도 소속은 박물관 소속이 아니시고요?

김동현 그렇지요. 소속은 박물관이 아니고 그냥 임 선생님의 개별 조수였어요. 그러다가 한병삼⁴⁴⁾ 씨와 같이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봤는데, 다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나머지 수험생은 다 들러리였지요. 실제로는 박물관 특채지만 외형은 공개모집이었지요. 서울대의 김원룡 교수님, 최순우⁴⁵⁾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다고 해서 한병삼 씨하고 같이 김원룡 선생님을 찾아뵙고 힌트를 달라고

44) 韓炳三, 1933-2001

45) 崔淳雨, 1916-1984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문제를 무엇을 냈는지 다 잊어버렸다고 하시면서 다 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문리대 사학과 출신, 사대 역사과 출신 등 50여명 정도가 응시를 했었어요. 문제가 났는데 ‘조선고적도보’에 관해서 논하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문제지요. 우리는 박물관에서 맨날 보던 거구요.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박물관에 들어 왔는데, 처음에는 미술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박물관 미술과장인 최순우 선생님하고 이 모라는 관리과장하고 매일 싸웠어요. 내가 행정직한테 돈도 청구하고 물품도 청구하면 매번 꺾였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과장 앞에서 서류를 찢어 던지고 사표를 냈어요. 박물관을 이때 그만 두었지요.

마침 앞서 얘기한 친구 신무림 군이 설계사무실을 냈을 때였어요.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거기에 나갔어요. 그때 대학은 계속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대학은 8년 다녔어요. 돈 없으면 휴학하고 해서 1959년에 들어가서 1966년에 졸업했어요.

김철민 그럼 박물관에 들어가신 게 언제이신지?

김동현 그때가 1962년인가 1963년이지요.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시험을 봤으니 까. 그러니까 그때도 학생신분이었어요. 졸업하기 전에 사표를 낸 거지요. 아마 1년도 안 되었던지 1년 반 정도 근무한 것으로 기억해요. 지금도 집에 박물관 근무했던 관련 자료가 있어요.

이것은 내각사무처장이 보낸 합격 통지서예요. 공무원시험보고 합격한 것이죠. 박정희 시대니까 내각사무처장이겠네요. ‘임용후보자등록필증’, ‘미술과 근무를 명함.’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1962년부터 66년까지의 개인의 향후 5개년에 계획을 세운 것이예요. 시간 절약할 것 등. 62년이니까 제대 후에 만든 거네요. 카드를 최저 10,000매 구

입, 일본어 숙지(기초 완전 숙지), 참고서류, 신문 기타 서적 매입, 건축 연표 작성, 저축액 10만 원, 심지어 66년도에 결혼 목표까지 세웠어요. 결국 67년에 결혼 했지만, 대학시절 전 과목을 다시 한 번 체크하겠다는 것도 있네요.

❁ 서울대학교 박물관과 김원룡 선생님

김동현 그만 두고 친구 사무실에 있는데 어느 날 엽서가 왔어요.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김원룡 선생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서울대로 올 것.” 이라고 간단하게 붓으로 쓰여 있었어요. 갔더니 “자네 다음 주부터 이리 나와라.” 이러시길래,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여쭙봤더니, 김재원 박사님께서 선생님께 저를 데리고 있으라고 하셨대요. 돈은 본인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하버드대의 연구비를 그쪽으로 돌려서 매달 5,000원씩 받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김원룡 교수는 김재원 박사 말이라면 반드시 따르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대 박물관을 가게된 거죠. 방 하나 주시면서 본인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이때 ‘고건축단장’을 썼어요. 도서관도 이용하고 교수실도 드나들고, 그래서 고고인류학과 1회 출신들을 많이 알게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측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실측법 같은 것을 강의도 했지요. 대학도 졸업 안한 상태에서, 지금 생각하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1, 2, 3회 졸업생들하고 그래서 인연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문리대

는 동승동 캠퍼스였죠. 김병모⁴⁶⁾ 교수, 임효재⁴⁷⁾ 교수, 안휘준⁴⁸⁾ 교수, 정영화⁴⁹⁾ 교수, 손병현⁵⁰⁾ 교수 등이 다 1회 출신이고, 지금까지도 이 분들과 친분이 두텁죠. 당시 졸업반이라 논문을 쓰는데, 도면 그리는 것 도와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녁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강의하고 그랬지요. 지금 생각으로는 좀 이상한 생활을 한 것이죠.

이강근 발굴도면이라는 것은 그때 처음 그렸던 건가요. 고고학 하시는 분들은 발굴도면 그리신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김동현 그때 레벨 보는 방법, 실측하는 방법, 김정기 선생께 배운 것, 내가 현장에서 배운 것으로 교재를 만들었어요. 등사판을 굽어서 교재를 만들었지요. 그것을 나눠주고 강의했어요. 캠퍼스 나와서 측량실습도 하고요.

이강근 그 교재를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김동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죠. 박물관 건축도면은 후배들과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한 것인데...

김동욱 복사 할 때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김동현 뭔지도 모른 채로 그렸어요. 도면에 명칭을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고, 그걸 우리가 잘 체크해서 건물을 알아낸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한

46) 金秉模

47) 任孝宰

48) 安輝濬

49) 鄭永和

50) 孫秉憲

철 선생이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관음사하시다 그만 두고 만주로 갔기 때문에, 해방 후에 돌아 왔는데 6.25때까지 했는지는 불문명해요. 9.28때 돌아가신 것은 틀림없고요.

김동욱 해방 후에는 어수선하니까 그리기가 어려울 텐데요.

김동현 왜정 때는 그분이 간도에 가셨고 간도에서 뭘 했는지도 불분명하구요. 건축 일을 했다고 생각들 합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지요. 이한철 선생 후손들도 모르고 만나 본 적도 없고 얘기만을 들었기에.

김동욱 스기야마 선생이 작업을 같이했을 텐데요.

김동현 그런데 아주 짧은 기간이라 그 분도 간도에 간 것 밖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 연구발표 및 기고

이왕기 건축과 관련해 처음으로 발표하신 글은 무엇인가요?

김동현 1965년도에 법천사 석등에 대해서 쓴 글이 처음이에요. 그 전에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전지를 내가 정비했지요. 그래서 그것이 고고미술동인회에서 자료집으로 나왔어요. 그때도 내가 서울대에 있을 때인데, 황 선생님께서 법천사에 가보라고 하셔서 갔더니 거기 유물과 유적이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도면을 전부 다 그렸지요. 그 자료집을 여러분들도 다시 보길 바래요. 청사진을 다 떼어요. 거기 한 3

개월 있으면서 일일이 다 그랬어요. 김천석⁵¹⁾ 씨와 같이 일을 했지요. 김천석씨는 드잡이하면서 무너진 석축을 쌓고, 나는 그것을 감독하면서 실측하고 도면 그리고, 그걸 자료집으로 낸 것이 내가 처음 낸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상한 석등(화사석)을 보고 그것이 팔각이 아닌 것 같아서 육각이라고 발표했던 것 같아요. 석등에 대해서는 1965년도니까 42년 전인가? 그것이 「고고미술」에 찰막한 글로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마 처음 일 것 같아요.

대왕암 실측 조사

김동욱 그 당시면 아직 학교 졸업도 안한 상태시네요?

김동현 그렇지요. 아직 졸업 전이지요. 아마 1964년인가 1965년인가 그렇지요. 그때도 황 선생님께서 나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요번에 황 선생님 구순 논총에 찰막한 글을 하나 썼어요. 제목을 ‘자네 요번 휴가에 뭐하시나?’로 했어요. 그 양반 때문에, 나를 아껴주시는 것은 좋았지만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연구소 실장 시절 여름휴가 때, “자네 이번 휴가에 뭐하려나?”,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대왕암에 내려가게.” 그래서 대왕암을 최초로 실측하게 되었지요. 그 땀별 밑에서 한창 남들 해수욕하고 놀 때 고생을 했어요. 거기는 응달도 없고, 어떻게 앉을 곳도 없었어요. 측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지요. 뭐 엉터리 실측이지요. 그래서 윤곽만 대강 잡고, 높이 정도를 체크를 하고, 중간은 그냥 내가 적당히 그려 넣었어요. 그래

51) 金千石, 드잡이공

도 수중에 잠긴 바위는 정확히 그렸어요. 거기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이왕기 물을 다 빼고 작업하신건지요?

김동현 그렇게는 못했어요. 고생은 했지만 대왕암에서 일주일이나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거라 생각하면 행운이지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을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 때 나오는 식으로 매일 드나들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금은 죽었지만 경주문화재연구소 직원이었던 박문재 군과 함께 갔지요. 내가 처음 대왕암에 간 것은 갑은사 발굴 때인데 그때만 해도 유심히 안 봤어요. 황 선생님께서 그 이후에 삼산오악 조사할 때 그것을 한국일보에 크게 내셨지요. 우리는 벌써 1959년에 봤어요.

❁ 석굴암 도면 작성

김동현 석굴암 도면도 서울대에 있을 때 그렸어요. 석굴암수리공사보고서에 나오는 도면이 그때 내가 그린 것이지요. 그게 자꾸 설계변경이 되서 준공도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황수영 선생님이 나한테 시켰던 거예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곳에 3개월 살면서 도면을 그렸어요. 교통문제로 석굴암 토굴에서 살았어요. 1973년에 도로가 생겼으니 당시에는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서 토굴에서 스님들과 같이 살면서 했어요. 나는 석굴암의 기초조건을 알지요. 그 무슨 해돋이 운운하는데 그거 보기 힘들어요. 석굴암 가지고 떠들고 그러면, “당신 거기서 며칠이나 자봤소?” 하고 물어보지요.

1967-1970

고건축단장 집필

◎ 고건축단장 연재

김동현 1966년에 졸업을 하고 1967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불(김원룡 선생 호) 선생님 밑에 있을 때 ‘고건축단장’ 이란 제목으로 「공간」지에 실었지요. 이때 이름이 조금 알려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1회 분에 100매 내지 150매 썼거든요. 그림까지 추가하고 사진도 넣어야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김철민 「고건축단장」은 얼마 동안 연재하신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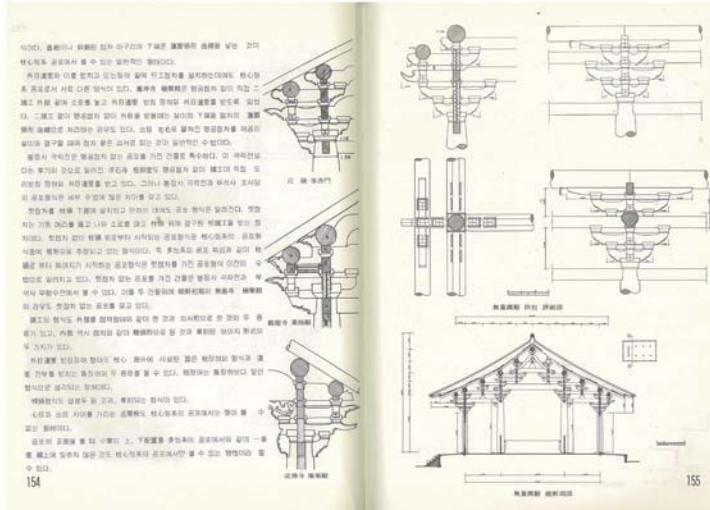
김동현 몇 년 정도 되요. 고건축단장 책은 잡지에 연재한 것에서 추려서 냈어요. 현대미술관장을 했던 오광수⁵²⁾ 씨가 그때 공간지의 편집장이었어요. 매달 원고 내기가 어려워서 나중에는 신영훈 씨와 격월로 썼지요. 그러다 일본에 갔어요.

◎ 최순우 선생님과 공간지

김동욱 서울대학 박물관에 계실 때 공간지에 원고 쓰시기 시작한 것, 그 뒤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서는 3년 정도 계신 것이 맞는지요?

52) 吳光洙

고건축단장(하) 내용



고건축단장(하) 표지



김동현 약 삼 년 반 정도 될 거예요. 그 당시 공간지 편집장 오팡수 씨가 김수근⁵³⁾ 선생님과 최순우 선생님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김수근 선생이 우리 문화를 알게 된 것이 최순우 선생의 영향이 굉장히 컸지요. 김수근 선생이 국회의사당 당선이 되서 일본서 돌아왔지요. 그때는 남산에 지으려 했어요. 그때 당선작이 김수근 선생과 한양대 도시공학과 강병기⁵⁴⁾ 선생의 합작이었어요.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때까지도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에 깊이가 없었는데 최순우 선생과 자주 접촉을 하시면서부터 관심을 넓혀가신 듯해요. 공간지를 창간하게 된 것도 최순우 선생님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미술지로 하면서 전통건축에 관한 연재도 추천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요. 최 선생님께서 나와 신영훈 씨를 불러서 권하셨지요.

53) 金壽根, 1931-1986

54) 康炳基, 1932-

「고건축단장」이라는 제목 명칭 자체도 최순우 선생께서 정하셨습니다. 단장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연결하지 않고 토막토막을 이어가는 얘기 정도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전통건축의 세부를 밑에서부터 위로 공사하는 순서와 같이 써나가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혼자서 하기는 벅차니까 신영훈 씨와 번갈아가면서 격월로 일본 갈 때까지, 1970년까지 3년 정도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것도 있지요.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것이지요. 한 편에 100~150매 정도 썼어요. 나는 기술적인 것을 많이 쓰고, 신영훈 씨는 문헌 관계, 사상 관계를 많이 썼지요. 「고건축단장」이 건축 문화 재계에 나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요. 이때가 30대 초반이니 지금 생각하면 참 겁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계기로 여러 가지 잡문 의뢰를 많이 받았어요. 신영훈 씨가 글재주가 많은 사람이라 많이 배우기도 했지요.

❁ 이병철 회장 별장 설계

김동현 그러던 중에 삼성 이병철⁵⁵⁾ 회장의 별장을 용인에 짓기로 해서 그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때가 「고건축단장」을 연재하는 동안이었는데, 아마 누가 그 글을 보고 추천을 한 것 같아요. 신영훈 씨가 발이 넓어서 연결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워커힐에 3개월간 독방을 한 채 내주어 그곳에서 설계를 했지요. 지금도 용인 미술관 뒤쪽의 한옥이 있는데 그것이 그 별장이예요. 시공은 이광규⁵⁶⁾ 씨와 신응수⁵⁷⁾ 씨가 했어요.

55) 李秉喆, 1910-1987

56) 李光奎, 1918-1985

57) 申應秀, 1941-

김동욱 신응수씨가 그때 벌써 활동했었나요?

김동현 신응수씨는 그때 이광규 대목장의 제자로 활동했고 많은 일을 했지요. 그
게 불국사 복원 전 이지요. 내가 설계를 했지만 지하에 비밀스러운 구조
가 있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제약이 좀 있네요.

김동욱 선생님의 첫 번 작품이신 거네요?

김동현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중간에 변경도 많이 되었지만 기본설계는 우리가
한 그대로 이지요.

제3장

문화재 관리국 시절

1967 범주사 팔상전 해체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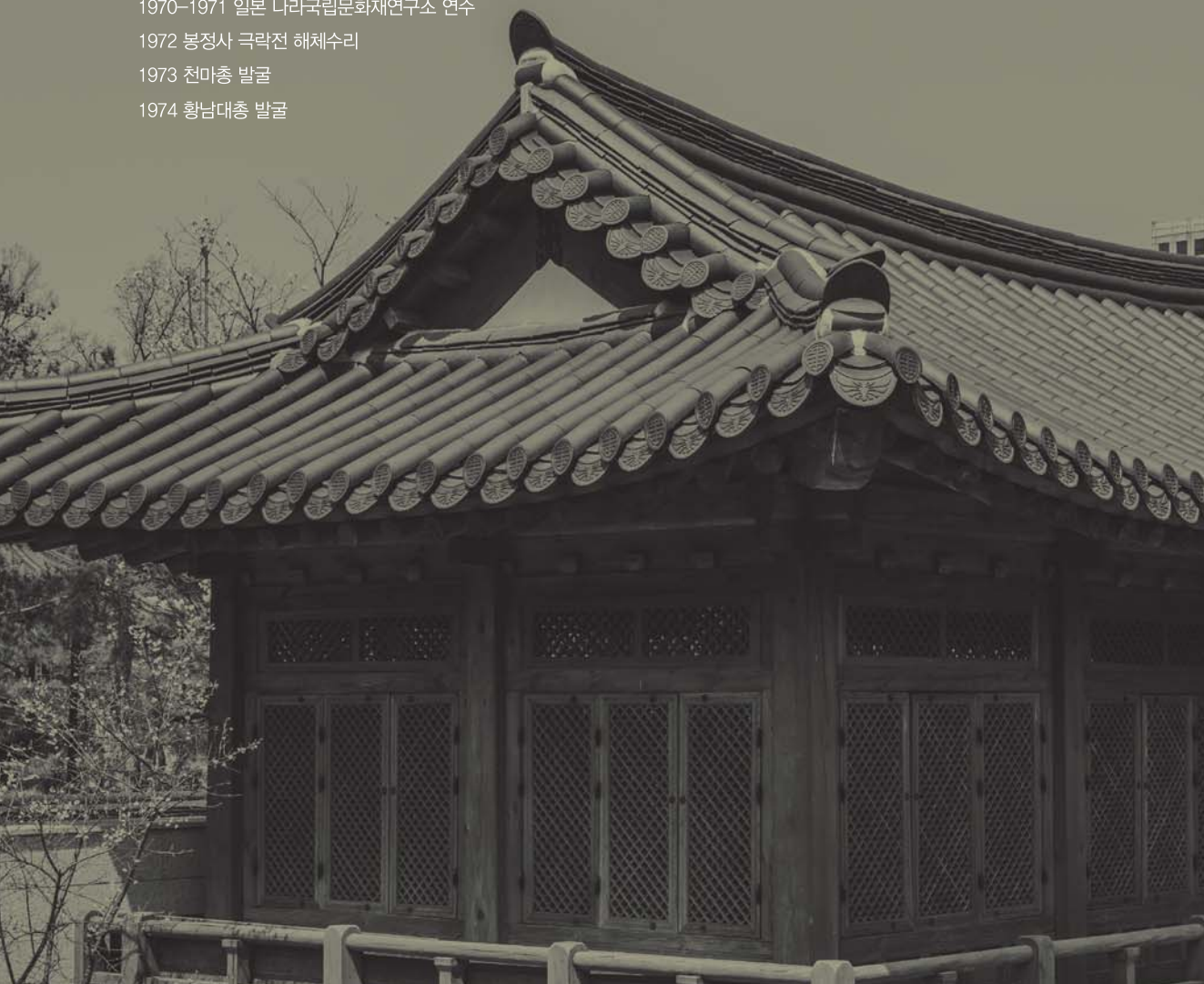
1970 불국사 복원 설계

1970-1971 일본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 연수

1972 봉정사 극락전 해체수리

1973 천마총 발굴

1974 황남대총 발굴



1967

1974

1972년에 봉정사 극락전을 해체한 것이에요. 일본에서 배운 대로 현장서 본 대로 하였어요. 우리나라는 체제가 제대로 안되어서 많이 부족하였지만 내가 직접 부재실측도 그리고 잉킹도 하고 했어요. 보고서는 늦게 나왔지만 그 당시로는 파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한 것이 없었어요.

03 문화재관리국 시절

1967

법주사 팔상전

해체수리

☼ 문화재관리국 상임전문위원

김동현 서울대에 있을 때 결혼을 했어요, 1967년이니까. 결혼 후 삼불 선생께서 문화재관리국의 상임전문위원으로 천거해 주셨어요. 그 당시 김주태 씨는 남대문이 끝나고 바로 상임전문위원으로 가있었고요. 남대문은 1961~1963년이었고, 나는 1968년에 갔어요.

☼ 문화재공사의 자격 제도

이왕기 팔상전 할 당시는 설계사무실은 몇 개나 있었습니까?

김동현 장기인 선생님의 것 삼성과 강봉진 씨의 것 국보건설단, 임천 선생이 하시던 것 해서 대략 3군데 정도였어요. 재밌는 것이 장기인 선생님도 실측설계시험을 보셨는데, 본인이 시험문제를 내고 본인이 봤어요. 본인이 다 낸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시험문제 낼 사람이 그분 밖에 없다

보니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임천 선생님은 자격증은 없었지만 그냥 나라에서 신임했으니 준거지요.

나도 1회 시험을 봐서 합격했는데, 나중에 아마 장기인 선생님이 건축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인정해야 한다고 해서, 나는 취소되었어요. 그게 아마 되도록 사람이 적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독점을 하신거죠. 나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럼 그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 해야 하는데 이미 합격한 사람에게 적용해서 무효화하구, 좀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요즘은 건축사 면허가 있어야만 시험을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소송감이지만 그때는 그냥 그런가보다 했지 뭐. 그래서 장 선생님께서 안 좋은 소리를 좀 들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워낙 어르시니 그런가보다 해서 넘어 간 거죠.

김철민 그럼 그 당시 그런 분이 여러 분 되셨겠네요?

김동현 장경호 씨, 김주태 씨 등이 모두 됐지만 건축사 면허가 없으니까 무효화됐지요. 장 선생님과 강봉진⁵⁸⁾ 씨 정도만 된 거예요.

이강근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1968년 당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소 이름이 세 개가 나왔는데, 국보건설단, 삼성건축사사무소, 임천고건축기술사, 이렇게 세 군데만 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건축사사무소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사무소는 삼성건축사사무소 밖에 없네요.

김동현 그 당시는 그것이 대단한 줄도 몰랐죠. 보수기술자나 실측설계기술자중

58) 姜奉辰, 1917- ?

을 한 번도 써먹질 않았으니까. 예전에 한 번 이야기 했지만 사고로 내 자격증이 등록된 적이 있지만 난 한 번도 자격증을 써 본 일이 없어요.

이왕기 그때 당시는 문화재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은 어땠습니까? 일반 건설회사가 했습니까?

김동현 일반 건설회사는 아니고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거였어요. 저 사람은 문화재를 할 수 있다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만이 가능했지요. 회사 이름은 있었어요. 나름나름으로 과거에 했던 사람들만이 일을 했어요. 그게 5.16 후에 법이 제정되면서 회사가 몇 개가 생겼어요. 보수기술자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법이 생겼지요.

김동욱 1962년도에 건설업법이 생기면서 회사가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김동현 그래요. 그때 아마 요새의 초창기적인 회사가 있었어요. 아무나 하지는 못했어요. 그 이전에는 임천 선생님이 양철수 씨, 정복영 씨 등에게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김정기 선생은 6.25전 해화전문에 다니시다 6.25 나뉘는 해 일본 가서 메이지대에 들어가셨지요. 해화전문에 1년 정도 다니다가 일본에 가셨을 것이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마산에서 다니시다가 국교 정상화 이전이라 공식적으로 갈 수는 없었을 때였지요. 그 당시는 다 밀항한 것이지요. 공무원이 되니 군대 문제로 일시 그만 두셨죠. 5.16 이후 국토개발단이 생겨서 군대 안간 사람들 데려다 일시키고 했죠. 장경호 씨도 그 곳에 갔다 왔다고 해요.

김동욱 군대 미필자들은 그때 다 끌려갔었죠.

김동현 이정재, 임화수 등 폭력배들이 덕수궁에 끌려왔었어요.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휴가 나와 본 일도 있어요.

이왕기 그러다가 문화재 체계가 잡혀 자격제도도 만들고 한 것이 언제부터로 볼 수 있는지요?

김동현 5.16이후 1961년인가 1962년에 제대군인들이 생각한 것이라 봐요. 주체 세력 중에서 제대한 군인들이 갈 곳이 없으니 생긴 것 같아요. 신양사가 제대군인들이 운영했던 회사지요. 그 당시는 거기서 거의 다 싹쓸이 했어요. 장군이나 영관급 출신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곳에 임 선생님도 계시니까 나한테도 오라고 했지만 거절했죠.

이왕기 그때가 언제인가요?

김동현 그때가 서울대 있을 당시였어요. 그때 다들 회사에 자격증을 넣고 근무했어요. 김주태 씨와 나만 하지 않았지요. 김주태 씨는 전문위원이라 안 하고, 나는 그런 것은 그때 생각지도 않았지요. 신양사에서 두 사람에게 아무 곳에도 자격증을 안 넣는다는 조건으로 매달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했죠. 나도 김주태 씨도 거절했어요. 김주태 씨와는 달리 나는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거절했어요. 회유를 몇 차례 받았지만, 그렇게 하였기에 나중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큰소리도 칠 수 있었죠. 하여간 그런 일에 조심해야해요.

작년 말에 모 회사 다니는 후배가 모 사찰의 공사를 맡았는데, 빨리 수정 설계도를 잘 통과시켜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돌아오는데 그 회사 사장이 봉투를 가방에 넣으면서 거마비라 해 받았는데, 와서 보니 수표 30만 원이라 생각했었는데, 백 만 원짜리 수표더라고요

요. 그래서 후배 은행계좌를 물어서 되돌려 줬어요. 같이 갔던 모 문화재 위원에게도 전화해서 보내라고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업자한테 잡히는 일이에요. 이러한 일 젊은 분들 조심해야 해요.

그것을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그 사장이 다음날 전화했을 때 태도가 너무 건방지고 무례하더라고요. 그 후 인연을 완전히 끊어 버렸지요. 그런 경우가 살다보면 많아요. 다리 보수문제로 모 사찰에 갔을 때도 책자에 수표를 넣어서 줬어요. 백 만 원을 넣었더라고요. 이걸 수고비가 아니라 뇌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받아들이면 스님들이 문화재위원을 우습게보지요. 그래 다음날 시춧돈으로 해 되돌려 주었어요.

업자들과 밥을 먹을 경우, 밥값에 더 추가해서 장부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데요. 그래서 당한 사람이 많아요. 아주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이광노 교수께서도 당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김철민 그럼 그 당시에는 문화재 설계는 그 세 곳에서 다 했겠습니까.

김동현 그래도 신양사에 계셨던 임천 선생님이 주로 하셨지요. 그 분이 그래도 제일 경력이 많으셨고 했으니, 그래서 신양사에서 임 선생님을 모시고 간 것이지요. 신양사에서 설계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문화재위원들, 학자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도 하고, 봉투도 주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우리가 보기엔 고매한 선생님들이신데 거기를 다니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내가 보기에 안 좋았어요.

한 번은 내가 김재원 박사께 “신양사에서 저를 오라고 하는데 가도 좋겠습니까?” 여쭙보니, “너 거기가면 끝난다.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다.” 그래서 서울대학으로 간 것이예요. 물론 회사에 갔으면 대접 받고 돈도 벌었겠지만, 김재원 박사께서는 그런데 일체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댁에 가면 토기 조각 하나 없었어요. 관장을 하셨는데도, 문화재를 하는 사람

은 골동품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셨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 일이 적지 않았지요.

이경미 자격증이 이때부터 제도가 생긴 것인가요?

김동현 그래요. 결국 신양사도 5~6년 뒤에 없어지고, 그곳에서 나온 뒤 사람들이 이 회사들을 차리고 했어요.

이왕기 팔상전 공사는 신양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보고서를 보니까 공사하는 장면을 보니까 기계를 하나도 쓰질 않고 옛날 방식으로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김동현 이 분들은 도편수 아니고 그냥 목수였지요. 정영진⁵⁹⁾ 대목이 수고 많이 했어요.

❁ 법주사 공사의 인물들

김동현 문화재관리국 첫 번째 임무로 법주사 팔상전 감독을 맡았어요. 공사현장은 나로서는 처음이지요. 원래는 김주태 씨의 임무였는데 무슨 문제인지 관리국하고 문제가 있어 나로 교체가 되었어요. 아마 그때 김주태 씨는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교체되어 갔더니 덧집도 엉성하게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김의중 씨, 경기공고 출신인데요, 이 사람을 조수 격으로 데리고 갔

59) 鄭榮鎭 : 지방인간문화재, 충청도 서천 분

어요. 사람이 꼼꼼하고 착실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재 실측을 다했죠. 그 때의 노트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다 있어요. 여러 권의 대학 노트에 실 측도를 다 그렸죠. 보고서 쓸 때 그 쪽에 쥘서 연구소 자료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967년 3월에 결혼하고 5월인가 6월에 바로 가서 거기에서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약 2년 반, 끝날 때까지 절에서 상주를 했어요. 집사람은 박물관에 다니고 나는 현장에 있고 했어요. 절에서 방 하나를 내주어서 스님들 이랑 같이 생활을 했죠. 그때 스님들과 친분을 많이 쌓았어요. 당시 주지 스님으로 계셨던 월산 스님⁶⁰⁾, 월탄 스님⁶¹⁾, 월서 스님⁶²⁾, 그리고 재무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옷을 벗으셨어요.

별명이 마끼자꾸(卷尺)⁶³⁾ 였는데,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니시며 상가를 재고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이 임무였어요. 돈을 다루는 일을 하다보니까 불미스러운 실수로 나가게 되었지요. 똑똑한 분이었는데... 몇 년을 야인처럼 지내시다가 절에 납품도 하시고 하다가 잘 안되어서 군대의 이등병처럼 다시 처음부터 스님을 하셨죠. 세상을 살면서 순간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조심해야 되요. 잘될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시 이름 없는 절의 스님이시지요.

사리장치와 월산 스님

김동현 법주사에 있으면서 월산 스님에 대해 느낀 게 많아요. 원래 일본 기마병 출신인데 인품도 대단한 분이셨죠. 일본군 기마병하면서 만주벌판에서

60) 月山

61) 月誕 : 당시 총무스님

62) 당시 교무스님으로 김동현 선생님께서 2~3세 많음

63) 일본어로 '형꺾으로 된 갑는 자'라는 뜻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해서 그것을 참회하기 위해 스님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 분도 존경하는 여러 스님 중에 한 분이지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법주사 팔상전의 사리장치를 발견해서 동국대에 인계한 것이에요. 그리고 복원할 때 내가 새 사리장치를 설계해서 넣었어요. 대구의 금은방에 제작을 맡겼지요. 금은방에 물건을 찾으러 갔을 때 월산 스님이 현찰 돈 가방을 내놓으며 금은방 주인에게 가질 만큼 가지라고 했어요. 나는 이것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주인도 많이 놀라고, 나도 놀랐어요. ‘이런 분이 스님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 후로 스님을 존경하게 되었지요. 스님께서는 나한테도 갖고 싶은 만큼 다 가지라고 하셨지요. 그때 나는 금으로 된 작은 토끼 모양 브로치를 하나 가졌어요. 집사람이 토끼띠라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작은 것을 가진 것이 후회가 되네요.(좌중 웃음)
나도 그때 참 순진했어요. 지금도 월산 스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내가 40대 중반에 간이 안 좋아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10년 넘게 왕래가 없었는데도 스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약재와 함께 편지⁶⁴⁾를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불국사에 갔을 때 주변 스님들께 여쭙보니 일부러 대구에 가서 지은 약인데 엄청나게 비싼 약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불국사에 갈 때마다 용돈을 주셨어요. 자식처럼 혜택을 많이 받았지요. 잊을 수가 없어요.

64) “소식을 들으니 아픈 것 같아 귀한 약을 보내니 드시면 효과가 있을 것이에요.”

❁ 설계변경과 예산증액

김동현 법주사에서 고생이 심했던 사람이 임종수⁶⁵⁾ 씨와 사촌의 임종업⁶⁶⁾ 씨였어요. 수원화성 할 때 있던 임종업 씨는 근래에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거기에서 일을 했죠. 그때 내가 법주사 설계변경을 대폭적으로 했어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올렸지요. 예를 들면 1천만 원짜리 예산을 1천5백만 원까지 올렸어요. 그랬더니 문화재관리국에서 깜짝 놀라서 특별감사까지 받았어요. 내가 업자와 결탁을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감사하러 오신 분들이 맹인재⁶⁷⁾, 김정기, 정재훈⁶⁸⁾ 씨였는데, 맹인재 선생이나 김정기 선생은 나를 잘 아니까 내가 세운 예산 증액이 맞다고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다행히 법주사를 잘 끝내게 되었지요.

이왕기 팔상전 해체 수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김동현 아, 그것은 내가 서울대학에 있는 동안 결혼을 하니깐, 김원룡 선생님께서 결혼을 해서 5,000원으로는 살림이 어려울 테니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신 거죠. 선생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문화재와 관련 있는 문화재관리국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시면서 상임전문위원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1968년에 그리로 갔어요. 그때 처음으로 법주사를 갔지요. 착공은 안한 상태로 있었지만 비계는 영성하게 맨 상태였어요. 피라미드 식으로 영성하게 비계를 매 놓았어요. 이미 김주태 씨가 가 있던 상황이었

65) 林鍾洙

66) 林鍾業

67) 孟仁在, 1930-

68) 鄭在鏞, 1938-2011, 당시 관리계장

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같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행정직과 시공자 사이에서 미묘한 문제가 발생해서 김주태 씨가 코너에 몰린 것 같았어요. 일이 진척이 없어서 나를 보냈던 거예요. 내가 가니까 김주태 씨는 그만 두었어요.

가보니까 임종수씨가 시공업체의 사장이었어요. 큰 회사에 문화재부를 두고, 말하자면 보파리 장사였죠. 가서 내역서와 현장의 물건들을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니 안 맞더라고요. 설계내용과 실제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관리국에 제출하니 놀라서 감사가 내려왔어요. 김정기 선생, 맹인재 선생, 정재훈 씨 등 대여섯 명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 하나 설명해 드렸더니 다들 잘 아는 분들이기도 했고, 내가 업자하고 짜고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며 이해해주시고 그대로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때 원래 계획이 현실과 너무 안 맞아서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맞게 공사비를 지불해야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김철민 설계는 원래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김동현 원래는 강봉진 선생, 국보건설단에 계셨죠, 그분이 했을 거예요.

이왕기 그때 혹시 품셈이나 일위대가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김동현 그때는 품셈, 일위대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때는 공사장마다 내역이 다 달랐어요. 문화재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면 공사가 도시에서 할 수도 있고, 산골짜기에서 할 수도 있고, 차가 들어갈 수조차 없는 외진 곳에서 할 수도 있고, 등등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수가 없지요. 인건비, 자재 운반비 등 모두 조건이 다르니까. 일위대가표

라는 것은 불국사 할 때 만들어졌어요. 1970년 초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졌지요. 워낙 공사가 컸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아무튼 그때 설계변경이 잘 통과되어 공사가 잘 진행이 됐고 팔상전이 끝났지요. 업자 측에서 많이 고마워했어요. 임중수 씨가 팔상전 끝난 후에 나하고 친해지고 나한테 잘 했어요. 내 덕분에 손해 안 보고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고 했죠. 일찍 죽었어요. 다혈질이었는데 상대방과 전화로 말다툼하다 혈압으로 그만. 수원사람인데 최근에 죽은 임중업 씨가 그분의 동생이죠. 임중업 씨는 팔상전할 때도 형님 밑에서 뒷바라지를 했죠. 그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분이 있었죠.

이왕기 팔상전을 처음에 수리하자고 했던 분과의 관계는?

김동현 그것은 잘 몰라요. 나는 처음에 왜 내가 하게 됐는지 몰랐어요. 이미 발주가 되고 업자가 선정되고 감독이 내려가 있고 덧집까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내려갔으니. 내가 해체를 시작하고 뜯어내 보니까 부재는 많이 상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서까래는 좀 상해있었고.

김철민 그럼 그 당시에도 예산이 미리 세워진 상태에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진행을 했었나요?

김동현 금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라고 해서, 전년도에 전문위원과 건축 관계 공무원들이 전국을 다니며 수 백 개의 건조물을 조사를 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매기죠. 국보나 보물급들 중에서도 이게 더 위험하다, 이런 것을 전문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열을 매겨 가지고 미리 예산을 세워 놓고 그 다음 해에 집행을 하지요. 그러니 설계변경이 아주 어렵죠. 이미 공사별로 건물별로 예산이 다 세워진 상태이

기 때문에 갑자기 공사비를 추가한다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도 팔상전은 받아 들여져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내가 해체부터 조립까지 끝까지 했어요. 그때가 결혼하고 몇 달 안 되었을 때였지만 2년 반 정도 법주사에서 살았죠.

그때는 그곳에 가는데만 하루 종일 걸렸어요. 스님들과 함께 생활을 했죠. 당시 월산 스님이 주지이셨고, 후에 주지를 하신 월탄 스님이 총무스님으로 계셨고, 월서 스님도 계셨죠. 그때 그분들과 오래 살았으니깐 친분도 두터워졌지요. 새벽 5시 반에서 6시쯤 공양을 하시는데 그 시간을 도저히 못 맞추었지만 함께 살았었죠. 봉정사 극락전 수리 전으로 처음 경험이고 여러 사람이 주목하는 것 같아서 더욱 열심히 했어요.

그때 김의중⁶⁹⁾ 씨가 나와 함께 갔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상수⁷⁰⁾ 씨와 같은 학교 동기동창이에요. 이상수 씨는 토목과 출신이고 김의중 씨는 건축과 출신이었죠. 두 사람이 박물관에 아르바이트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아주 사람들이 성실하였죠. 나보다 아마 4~5살 아래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목을 해가지고 나랑 같이 일을 많이 하였죠. 요즘 건설회사 부사장이고 송례문 복구공사 현장 감독을 맡고 있어요. 정복영 선생 아들 정충식 씨 회사에 있다고 들었어요.

● 실측방법과 도구

김동현 그때 내가 부재를 전부 대학노트에 하나하나 샘플로 그리고 거기에 번호를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붙여 일일이 다 치수를 썼어요. 지금도 문

69) 경기공고 건축과 출신

70) 박물관 보존과학실 근무

화재연구소 도서관에 있어요. 그것을 김봉건⁷¹⁾ 소장이 요즘에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보라고 권한다고 해요. 요새 같으면 영조적으로도 해보고 용적 조사도 하였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은 생각도 못하고 기록만 남겼죠. 그것을 잘 보존하라고 했어요. 나하고 의중 씨 둘이서 다 재가지고 했지요. 여기에 다 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잉킹으로 하나하나 다 그린 것이예요.

이경미 무엇으로 재셨습니까?

김동현 컨벡스로 잼쥬. 그건 작은 부재이니까.

김동욱 밀리미터 단위로 재셨는지요?

김동현 아니죠. 척으로 했어요. 그때는 밀리미터로 할 생각은 하지도 못 했어요.

이경미 컨벡스가 척자가 있습니까?

김동현 일본에서 수입한 척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 해체하면서 보고서에 그렇게 그리는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사진도 엄청 많이 찍었죠. 일본 가서 배우기 전의 솜씨지요. 봉정사는 일본 갔다 와서 한 것이고요.
인사사고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한 사람이 비계에서 떨어져서, 5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1층 비계를 딱 잡아서 죽진 않았어요. 원래 비계공이다 보니 비계 외줄타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그 사람이 환갑이 다 됐을 텐데 요즘도 비계를 매려 다닌다고 해요. 이일선⁷²⁾ 씨라는 사람의 친구

71) 金奉建

72) 李一善, 1939-

였지요. 둘 다 경주 출신으로 지금 이일선 씨는 문화재 시공회사의 사장이라고 해요. 지금도 경주가면 많은 도움을 주려 하죠. 불국사 발굴할 때 그 친구 집에서 식사대접도 많이 받고 그랬지요. 그 사람도 원래는 비계 공이었대요. 지금은 보수기술자가 되서 아들도 대를 이어서 하고 유명한 사람이지요.

김철민 그럼 그 당시에는 척으로 표기했나요?

김동현 그래요. 스케일도 모두 척으로 했어요. 그것도 다 일본 것이었죠. 요즘은 아마 척자, 척스케일은 없을 거예요.

이왕기 요즘도 곡자 정도는 척으로 된 것이 나온다고 해요.

김동현 나는 지금 밀리미터로 하는 것이 못마땅해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세웠지만, 고건축이나 미술사는 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밀리미터로 하면 몸에 와 닿지를 않아요. 척으로 해야 익숙하죠.

관리자의 자세

김철민 그럼 그 당시에 해체해 놓으면 선생님께서 다 실측하신 것인가요?

김동현 해체를 지시하고, 해체 기법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끝내라, 그러니까 해체에서부터 부재실측 조립까지 다 했어요.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공정을 다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한 건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잠깐 잠깐 가보는 것은 크게 득이 안 되

고, 그 현장 있으면서 다 해봐야 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기술자가 거기 가서 직접 지휘를 해야 해요. 요즘 현장을 가면 기술자는 없어요. 회의한다고 하면 다 오지만, 어디 가다가 불시에 들르면 인부들끼리 하구 있어요. 한심하죠.

내가 문화재청에 의견을 항상 내지만, 문화재청에서 갑자기 현장에 가서 체크해라, 처음 걸리면 경고를 주고, 두 번째면 징계를 주고, 세 번째면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죠. 비단 문화재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발굴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해요.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기죠.

● 팔상전 복원의 문제

이왕기 팔상전은 공사를 하면서 5층이기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요?

김동현 문제는 없었어요. 그때 다소 소홀히 했던 것은 발굴이죠. 그게 원래 3칸 3칸 집인데, 그것을 5칸으로 늘린 거예요. 기단 끝에 기둥을 세운 것이지요. 원래는 없어야 하는데, 3층인지 5층인지 모르지만 지금 퇴칸으로 돌아간 외진주가 없어야 하지요. 거길 제대로 발굴을 했어야 했어요. 그 안쪽, 내진주에는 초석이 엄청나게 큰 것들이 있었어요. 외진주 쪽에는 기단에다 돌조각을 붙여서 초석으로 하고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만약 다시 해체한다면 제대로 발굴해서 3칸으로 해야 제대로 된 복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거기에 탑구까지 있는 것이니까 목조건축으로 전형적인 목탑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쌍봉사와는 다르지요. 쌍봉사는 탑구도 없어요. 탑 같지 않고 체감도 좀 이상하죠. 아마 원래는 체감이 지금처럼

완만하지 않고 탑과 같이 셋을 것이에요. 누군가가 공부하는 사람이 3칸 짜리로 팔상전의 복원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김철민 없는 것이지만 선생님이 하실 때는 원래 5칸이었던 것이죠?

김동현 1624년인가 임진왜란 직후, 원래는 없던 칸이 한 칸 더 만들어 진 것이라 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앤 것으로 해서 기단은 그대로 하고 3층이 될 지 5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3칸으로 해서 복원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해요. 지금은 탑 기능 보다는 전 기능을, 그러니까 두 기능을 복합해서 만든 것 같아요. 예전에 해체 수리할 때 창문은 다 같았어요. 원래는 창살이 이상했었어요. 피살문으로 다 했었지요.

이왕기 해체하면서 또 재미있는 것은 없었는지요?

김동현 재밌는 것으로 말하자면 사리장치이죠. 그 당시에 1624년에 넣은 기록도 다 있었어요. 지금은 동국대학교에 사리장엄구가 있는 것 같아요. 낙서도 많이 있었는데 오래된 것이 아니고, 근래 것이 많았죠. 그리고 원래 해체 전에는 1층에서 천정이 막혀 있었어요. 중간에 스님들이 흠이 떨어지니까 1층에 천정을 했어요. 원래 3층에 천정이 있었지요. 거기에 그림도 다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1층 것은 가짜여서 떼어 버리고 3층에 천정에 했어요.

이왕기 그러면 팔상전을 마치고 나서는 다시 연구소로 간 것인가요?

김동현 팔상전을 마치고 봉정사 극락전 일에 관여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어요. 1970년 12월이죠.

법주사 팔상전 슬라이드-4181



법주사 팔상전 입면도 바인더-256(5)-1



이강근 팔상전도 선생님께서 찍은 것이지요?

김동현 법주사 팔상전, 봉정사 전부 내가 찍은 것이예요. 아사히 펜탁스 카메라로 찍었어요.

● 수리보고서와 정재훈 국장

김동현 그곳 수리보고서가 상당히 늦게 나왔어요. 그 당시는 행정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해체 수리하면 공문서 처리로 끝내고, 전에는 보고서 예산도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봉정사 극락전 수리에 앞서 법주사 팔상전이 더 먼저 되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나는 수리공사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보고서를 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재훈 씨가 국장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지요. 그 분이 계장일 때, 법주사 팔상전 수리 때 행정지원을 했던 담당자였어요. 그래 그것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애써서 예산을 마련하고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어요.

비록 행정직이었지만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정재훈 씨는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공무원 시험을 봐서 재경주사, 돈 다루는 일로 관리국에 들어와 처음에는 하갑청 국장 비서로 있었어요. 하갑청 국장 비서할 때, 기술자시험을 치루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주관식 논술시험을 쳤지요. 그때 나의 답안을 정재훈 씨가 본 모양이에요. 그 답안지를 보고 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답안지의 글이 정재훈 씨한테 와 닿았다고 해요. 그래서 알게 되었다구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대학에 가 있을 때 정재훈 씨가 비서를 하면서 나한테 연락해 건축사 관련 질문, 건축사 공부방법 등을 많이 묻곤 했어요.

그래서 임천 선생과 윤무병 선생이 6.25때 쓴 ‘고고미술 용어집(건축편)’을 빌려주기도 하고 도면을 그려 질문에 답해 주기도 해 서로 친하게 되었죠. 건축용어집은 탄생하기까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원고를 쓴 것이 1.4후퇴 후 부산 피난시절이에요. 6.25때 박물관이 소개를 못하고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자 바로 집을 싸서 특별열차편으로 중요 유물을 싸서 부산으로 옮겼지요.

김재원 박사님 덕분에 미국인과 함께 직원들까지 한 열차로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되었대요. 광복동에 이층집인데 사무실을 얻어서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직원들이 매일 나가고 유물은 부산대학교에 보관하였대요. 그 당시에도 공무원이란 신분이기엔 월급은 받지만 하는 일이 없다보니 생 각한 것이 용어집이라도 여기 있을 때 만들자 해서 시작하셨다고 해요. 원래는 표지가 두꺼운 하드 카바로 하고, 종이는 얇지만, 윤무병 선생과 임천 선생이 주로 원고를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박물관에 있으면서 원본을 구해서 보니까 서울신문사에서 출판을 했더군요. 정재훈 씨한테 그것을 주었어요. 용어부터 알아야 한다고 하며 용어집을 주었는데, 복사기가 없을 때니까 그걸 다 손수 베꼈다고 해요. 그런 것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정재훈 씨를 잘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특히 한국 조경에 관심이 많았고 나도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보고서 내는 데에도 그런 인연으로 예산도 세워줘서 팔상전, 봉정사 극락전 수리보고서 출판하는데 애쓴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보고서들이 아마 거의 20년 지나서 나왔어요. 봉정사가 먼저 나오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봉정사가 더 중요하니까 이걸 먼저 하자고 그랬었지요. 봉정사에 이어서 법주사가 나왔어요. 그때 내가 직접은 못쓰고 법주사 팔상전은 윤희상 교수가 건축사 공부하겠다고 연구소에 잠시 와 있을 때 원고정리를 했고, 봉정사 극락전은 장헌덕 교수가 맡아서 했고, 나는 원고를 교정했어요.

1970

불국사 복원 설계

● 불국사 복원위원회 설계팀

김동욱 설계를 직영으로 현장에서 직접 하셨는지요?

김동현 그때는 불국사복원위원회가 있었고, 나는 설계팀에 소속되었어요. 법적으로 김정기 선생과 복원위원회와는 계약이 안되는 관계였어요. 계약은 업자와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서류상으로 불국사복원설계용역을 장기인⁷³⁾ 선생과 계약하였지요. 그러나 실제로 일은 우리가 다 한 것이지요. 장기인 선생님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청

73) 張起仁, 1916-2006

받아서 하는 것이었죠. 장기인 선생은 일체 관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하었죠. 그러니 말들이 많았어요. 문화재위원회에서 말이 많았어요. 김정기 선생님은 일본에 있었던 사람이고 김동현은 30대 초반에 불국한데 무슨 경험이 있다고 어떻게 그들에게 불국사 설계를 맡기느냐며 말들이 많았죠. 김원룡 선생님, 황수영 선생님, 진홍섭⁷⁴⁾ 선생님이 그래도 밀어주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임천 선생님이 계셨으면 모를까 누가 하겠느냐고 해서 우리가 하게 되었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설계팀의 총책임자는 김정기 선생님이시고 실무책임은 나와 신영훈 씨가 맡았고, 그 밑으로 실무자들까지 총 15인이 설계팀이었어요. 불국사 극락전 뒤 요사채 한 채를 다 쓰면서 설계와 숙식을 거기서 했지요. 요사채의 가운데 큰 방에 제도판을 짝 두고 했어요. 그때 기억나는 사람이 박지명⁷⁵⁾ 씨라는 사람인데, 나와 동갑이고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나오고 다시 학사편입해서 건축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신영훈 씨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박종석⁷⁶⁾ 씨라는 사람, 지금 현대건설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유문용 씨, 김태조⁷⁷⁾ 씨가 있었어요. 김태조 씨는 그때 막 경주공고를 졸업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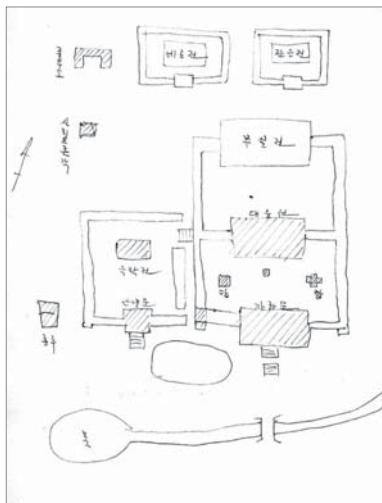
불국사 바인더-286(27)-3



불국사 복원시(1971) 개인-6-148



불국사 배치도 스케치(1969) 바인더-286(9)-1



74) 秦弘燮, 1918-2010

75) 朴志明, 1937-

76) 朴宗錫

77) 金泰祚

을 때였어요. 그때 연필 깎고 군불 때고 그랬어요. 그때 박종석 씨가 돈을 관리를 했지요. 그때 설계비가 엄청났는데, 지금의 5~6억 원 정도였어요. 그때 잘들 먹이고, 월급도 잘 주고 그래서 신나게 일들을 했었죠. 그러다가 설계가 마무리 될 즈음에 봉정사 때문에 일본으로 가게 됐었던 거죠.

● 후지시마 교수의 자문

김동현 1969년 불국사 복원 문제 때문에 일본 동경 선생 댁으로 갔을 때 뵈었는데, 그분 나이가 그때 70세였는데 불국사 자료를 부탁했더니 정리된 불국사 사진을 금방 찾아가시고 나오시는 것을 보고는 자료가 이미 잘 정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놀랐어요. 교훈을 많이 받았지요.

평소 자료를 정리를 해두신 것도 그렇고 두꺼운 하드지에 일일이 2×3정도의 작은 사진까지 칼로 썰가지고 끼넣고, 제목 및 촬영일자 등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어요. 넘버링도 짝 되어있는 것이예요. 나도 슬라이드 정리, 논문 정리를 할 때 그런 것을 본받으려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자료도 중요했지만 선생님의 자료 정리에 들인 정성을 보면 대학자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지요. 내가 연세대에 슬라이드 3만여 장을 쫓는데 일일이 번호를 붙여서 정리해서 쫓지요. 목록도 짝 있고요.

불국사 관련 자료는 5장 정도였는데 사진을 보니까 대웅전 뒤로 강당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강당이 있었다는 증거지요. 사진 속에 대웅전 뒤로 맞배집이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복원할 때 그걸 근거로 맞배로 했지요. 선생 댁에서 얻은 사진을 동경 시내에서 복사해서 가져왔죠. 그때가 딱 70세였고, 그분이 102세까지 사셨어

요. 고고학자 아리미즈⁷⁸⁾ 선생도 100세도 넘으셨어요.

근래 아리미즈 선생이 신문사하고 좌담을 한 기사를 보았는데, 해방 후 발굴한 호우총에 대해 말을 하셨더라고요. 호우총은 그분이 발굴한 것인데, 해방 직후 김재원 박사가 그때 인질처럼 붙잡어 호우총을 발굴했다고 해요. 호우라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함에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것이 있어 호우총이라 했대요. 추니치(中日) 신문에 나오기까지 했어요.

중앙대 임동권⁷⁹⁾ 교수님이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일본에서 나온 한국관련 기사들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그 분이 문화재보호재단 이사를 하실 때 나도 최연소 이사였는데, 가지고 계시던 자료를 나에게 주시면서 “자네가 필요한 자료일거야.” 하시면서 주셨어요. 그 자료를 나중에 조유전 씨가 알고 달라고 해서 다줬죠.

후지시마 선생은 불국사 복원한 후에도 오셔서, 자료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하니, “도움이 됐다고 하니 고맙다.” 하셨어요.

❁ 일위대가표

김동현 일위대가표는 불국사 때문에 됐어요. 내가 불국사를 복원할 때, 물론 행정하는 사람들, 문화재관리국 사람들은 현장서 계산해서 가져간 것을 믿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때 일위대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장경호 씨가 제안해서 첨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국사 공사할 때 그것을 적용해서 공사비를 산출했죠. 나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현장마다 성격과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일괄된 일위대가를 적용하는지 맞지를 앓는다고 했지요. 예산 배정하는 사람들은 일하기에 좋지만, 현장에서 책정된 공사비로 안

78) 有光教一, 1907-2011

79) 任東權, 1926-2012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결국 문화재에 손실이 간다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 만약 100을 써야할 것을 70만 쓰게 되고, 그러면 문화재만 손실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전에 말했듯이 임천 선생님처럼 항상 넉넉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익을 남기게 하면 더욱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인 만큼 국가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돈을 들여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어요. 요즘은 김홍식 교수가 그걸 용역을 받아서 만든다는데, 현장 가서 보고 책정한다고 한다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믿을 수 없지 않는가? 기준이 모호하죠. 그래도 지금 만드는 것은 해 볼 만은 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때는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 문제가 많았죠. 그래도 업자들은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현실에 안 맞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목공을 쓸 때 도급을 줄 때 100을 줘야하면 하청 시 60~70만 주게 되고, 그것에서 이익만큼 남기고 주게 되니 기능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죠. 애써서 일을 해도 득이 없대요.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면 결국은 전통이 끊기는 것이지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재 하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딱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어느 범위를 정해 놓고 거기서 자유롭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해요.

이경미 장경호 씨는 무슨 계기로 일위대가를 만들게 된 것인가요?

김동현 불국사의 경우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경우인데, 행정가들이 검토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죠. 설계서를 보고 관리국에서 검수를 해야 하는데 일일이 검수할 수 없으니 일정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면 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감사 받을 때도 좋고요. 자기들 편리를 위

해 일위대가를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좀 넉넉하게 하면 좋은데 너무 빠듯하게 한다는 것이죠.

1970-1971

일본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 연수

● 봉정사 극락전 해체를 위한 해외연수

김동현 법주사가 끝나기 전에 봉정사 극락전을 보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였어요. 그때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였어요. 그래서 1972년에 해체수리를 했지요.

그때가 허련⁸⁰⁾ 국장 때였어요. 당시 내무부의 엘리트를 국장으로 발령 냈어요. 문화재관리국이 복마전이라고 해서 그래서 국장을 내무부 사람으로 보낸 것이죠. 당시 문화재관리국이 하갑청⁸¹⁾ 씨 사건 때문에 먹칠이 된 때였어요. 그래서 내무부의 정통 관료 허련 씨가 국장으로 부임한 것이죠. 그런데 허련 국장이 봉정사 극락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던데 업자에게 그냥 맡겨서 되겠냐고 한 거죠. 그때 김정기 선생께서 국장에게 건의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업자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누군가 연수를 시켜서라도 좀 배워가지고 와서 하자고 했죠. 그러면서 나를 추천하신 거예요.

나를 일본에 보내서 연수를 시켜가지고 돌아온 후에 봉정사 극락전을 해체하기로 했죠. 그래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일본 학술진흥원을 통해 이토 노부오⁸²⁾ 실장에게 위탁을 해서 1년 동안 연수를 받는 것으로 행정적

80) 許練, 1924-

81) 河甲淸

82) 伊藤延男, 1924-2015 : 당시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실장, 후에 국립동경문화재연구소장 역임

뒷받침을 해주었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1970년 12월에 일본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이때가 법주사가 끝나고, 불국사는 발굴을 하면서 복원설계를 막 시작한 상태에서 복원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거기에 봉정사까지 겹쳐있던 상황이었어요. 법주사는 완전히 끝나서 불국사 발굴에 참여하였고, 봉정사에 내가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했던 상황이었지요. 그때는 내가 불국사에 있었어요. 불국사 발굴에 참여하고 발굴 끝나고 설계를 거의 마칠 때쯤이었어요.

❁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이토 노부오 선생

김동현 1970년 12월에 일본에 가게 되었지요.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에 갔어요. 그것이 지금 토다이지(東大寺) 앞의 기다란 근대건물⁸³⁾에 있을 때죠. 헤이조쿄(平城京)에 있기 전이지요. 12월달에 갔는데, 일본어는 말이 안 되고 글이나 좀 읽을 정도였어요. 가니까 12월 추울 때인데 숙직실 같은 곳에서 나를 자게 했어요. 집도 을씨년스럽고 귀신 나오게 생긴 곳이었지요.

다음날 이토 노부오 선생께서 부인을 시켜서 사이다이지(西大寺)⁸⁴⁾ 근처에 사람이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새집을 독채로 사용하게 해줬어요. 나는 보따리 하나인데 새집 하나를 내주었지요. 이토 노부오 선생 사모님께서 새 물건으로 이부자리, 그릇 등 집안 살림 모두를 준비해줬어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찾아뵙고 그랬어요. 내가 갈 때마다 두 분이 나와서 자식처럼 대해주셨지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네요.

83) 1902년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박사가 설계한 당시 나라현 물산진열소, 지금은 나라박물관 불교미술자료 연구센터로 사용 중

84) 나라공업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사찰

거기서 만 1년을 살았어요. 혼자 있다 보니 밤에 잠이 오질 않았어요. 새로 지은 집이라 소리도 나고, 알면서도 기분이 안 좋았지요. 뒤적뒤적 책보다가 새벽 2~3시에나 잠이 들고, 9시가 넘어야 잠을 깨니 출근하면 도시의 끝과 끝이라 맨날 10시 반쯤 도착하고 그랬어요. 외국인이라 봐주는 것 같았지만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녁 먹을 때마다 산토리 위스키를 맥주 컵에 따라서 먹기 시작했지요. 그러면 새벽에 깨어서 출근 준비가 되었어요. 술을 원래 안 먹었는데 이러면서 술을 먹기 시작했지요. 몇 달 동안 이렇게 했어요.

◎ 조명기 선생님과 김도경 교수

김동현 그렇게 잘 지냈어요. 중간에 하루는 조명기⁸⁵⁾ 선생님이 오사카에 오셔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말로 전화를 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만나 뵙게 되었는데, 같이 지냈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연구소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에 이토 노부오 선생께 얘기를 했더니, 와세다대 경제학 교환교수로 온 사람이 왜 나라에 오느냐며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나라에 문화재 복제로 유명한 회사가 있었는데 조명기 선생이 김도경⁸⁶⁾ 교수에게 기술을 배우라고 한 것이었어요. 이토 노부오 선생이 이름을 물어 보길래 이야기 했더니 의문을 가지더라고요. 이러한 이토 노부오 선생의 뜻을 전하니 조명기 선생은 “오사카 지역의 경제동향을...” 하면서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이토 노부오 선생께 조명기 선생은 동국대 총장까지 하신 분이래 내 입장이 곤란하다고

85) 趙明基 :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

86) 동덕여대 교수하다가 정년하신 분

하니 허락해 주셨어요. 3개월 같이 지냈어요. 중간에 집이 불 날 뻔한 큰 일도 겪고 난처했었어요. 김도경 씨를 옆에서 보니 와세다에서 연구비를 받으면서 모조품 만드는 것을 배웠는데, 일본사람들이 다 알았을 텐데 참으로 창피한 노릇이더라고요.

그래도 조명기 박사님이 부탁한 것을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그분이 오사카에 오래 계셨는데 불교 사전 만드는 것, 원광대와의 관계 등 도움 받은 것을 생각하고 견뎌요. 조명기 박사가 연결해서 오사카의 시텐노우지(四天王寺)에 우리나라 팔만대장경 목판 탁본 1벌이 가 있어요. 일본에서의 고초도 있었지만 김도경 교수와는 지금도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조명기 박사가 총장 할 때 비서였던 김도경 씨는 박사님 때문에 복제기술을 배웠지만 쓸모는 없었어요. 난 그때 만든 비너스상 하나를 받았어요.(웃음)

◎ 후쿠야마 토시오 선생께 사사

김동현 일본 연수 중간에 호류지(法隆寺)에 3개월 가 있었어요. 담장도 수리했고,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 수리할 때 가 있으라고 해서 경험을 했지요. 그리고 도다이지(東大寺)의 조그마한 건물이지만 거기서도 2개월 정도 경험을 했고요. 연수 1년 초반은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으로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만 나오시는 교토대학(京都大學)의 명예교수 후쿠야마 토시오⁸⁷⁾ 선생께서 개인교수식으로 나만을 위해서 3시간 동안 1:1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토 노부오선생도 나에게 강의를 했고 거기 소장도 고고학, 실측 등 나에게 강의를 했어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표를 짜서 6개월 정도 강의를 해주셨지요.

87) 福山敏男, 1905-1995 : 일본 건축사 문헌사 연구 원로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대접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지금도 놀랍지요. 이토 노부오 선생님의 배려가 아닌가 싶어요. 후쿠야마 교수는 문화재연구문헌 목록을 연대별로 정리해서 1:1 강의를 해주셨어요. 건축사문헌목록으로 건축사 강의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먼저 논문의 명칭만 가지고 논문의 주제와 관점을 설명하고 그 몇 년 후에 또 그와 관련된 논문을 누가 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식으로. 그분은 그 논문들을 다 읽으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구나 하고 감탄을 했지요. 나중에 내가 연대별로 건축사문헌목록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이때 강의의 영향이에요. 그 분은 1995년에 돌아가셨어요.

김동욱 예, 그렇습니다. 저작집이 나중에 7권인가 크게 나왔습니다.

김동현 그분의 논문을 보면 문헌을 보고 도면을 그리는 식으로 복원을 한 것이 많아요. 1년이지만 상당히 집중적으로 연수를 받았어요. 후반기에는 현장에 많이 가서 보게끔 했어요. 일본에 있을 때 허런 국장이 한 번 방문해서 오사카에서 만났어요. 그때 5만 엔을 주었는데 참 고마웠어요. 당시 한 달을 7만2천 엔⁸⁸⁾으로 살았으니까 큰 돈이었지요. 그렇게 마치고 71년 12월에 귀국하게 되었어요. 딱 1년 공부하였지요.

平城京 발굴현장 사진 슬라이드-5668



● 헤이조쿄 발굴현장 참여와 모형제작기술 습득

이왕기 나라에 계실 때 발굴 현장도 가보셨는지요?

김동현 헤이조쿄(平城京) 발굴에 참여 하였지요. 그곳에서 유명한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이토 노부오 씨, 사와무라 진⁸⁹⁾ 씨를 알게 되었지요. 대단히 깐깐하신 분이었어요. 예를 들어 뭔가 썰 때 스틸테이프로 5~6번씩 재서 평균치를 내서 적용하는 식이었으니까, 적당히가 전혀 허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죠. 지금 발굴하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다들 잘하고 있어요.

平城京 발굴현장 사진 슬라이드-5680



88) 약 200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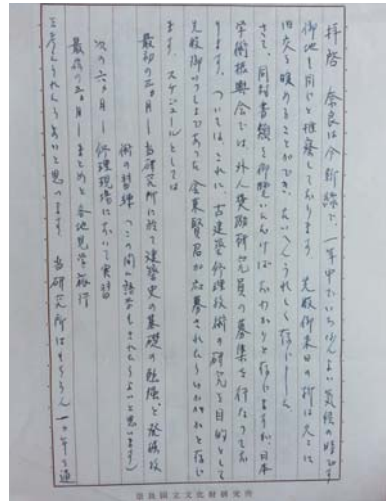
89) 澤村仁, 1931-, 동경대출신, 고대건축의 대가, 김정기 선생님과 이분한테 배움

그 당시는 건축문화재보수를 배우러 갔기에 보수 현장을 중심으로 일을 했지요. 봉정사 극락전 보수를 위한 연수여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 이토 노부오 선생이 1년 스케줄을 미리 짜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딱딱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골고루 교섭할 사람 있으면 다 연락해 가지고 스케줄대로 움직였어요. 심지어는 모형 만드는 것까지 배웠어요. 모형회사에서 2달 정도 있으면서 배웠지요. 그곳에서 우리나라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사당을 만들었는데 지금 나라문화재연구소에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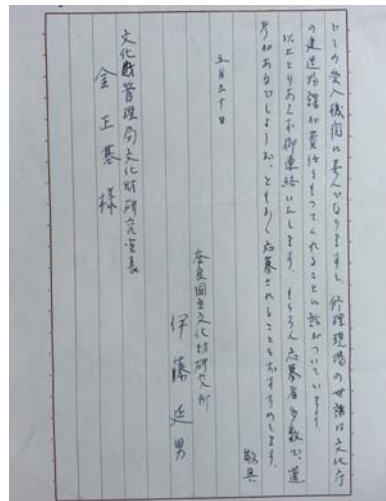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기흥성⁹⁰⁾ 씨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기흥성 씨가 처음 만든 것이 서울 남대문이었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문화와 사회를 접하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더욱 좋았죠. 공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니까. 공부는 배워서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라문화재연구소 갈 때 왕래했던 편지들이에요. 이것은 거기서 보내준 JAL 항공 비행기 표이고요. 일본말을 몰라서 김정기 선생이 대신 입국 사유서를 써주셨죠.

일본연수 시 주고 받은 편지 1 개인-5-110



일본연수 시 주고 받은 편지 2 개인-5-111



90) 奇興聲

1972

봉정사 극락전 해체수리

● 봉정사 극락전 복원설계

김동현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해인 1972년에 봉정사 극락전을 해체한 것이예요. 일본에서 배운 대로 현장서 본 대로 하였어요. 우리나라는 체제가 제대로 안되어서 많이 부족하였지만 내가 직접 부재실측도 그리고 잉킹도 하고 했어요. 보고서는 늦게 나왔지만 그 당시로는 파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한 것이 없었어요. 나는 봉정사를 해체까지만 하였어요. 다음에는 문화재관리국의 이호석⁹¹⁾ 씨가 감독을 했고, 김태조 씨가 문화재관리국 보수과 기사로 있으면서 보조로 복원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는 불국사 복원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마무리가 다 되니까 천마총 발굴이 시작된 것이예요.

김철민 봉정사 극락전은 설계부터 다 하신 것이지요?

김동현 나는 해체에서 부재실측까지만 하고 이호석 씨와 김태조 씨가 현장 감독을 했어요. 시공은 배영록⁹²⁾ 씨가 했죠.

김철민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보고서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김동현 설계는 별도로 안한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해체하면서 설계도를 만들었으니까. 해체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복원도면

91) 李浩錫

92) 裴永祿

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니까. 그래서 아마 직영으로 했을 거예요.
허련 국장이 이것을 인정해줘서 일본 갔다 와서 해체 후에 복원설계도를
그리라고 하었죠.

김철민 해체 도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김동현 그래요. 특별한 경우죠.

이왕기 옛날 사진을 보면 그 앞에 유리문도 있고 그랬는데요.

김동현 그리고 전부 분합문이었어요. 그걸 살창으로 하고, 판문으로 하고 그랬
죠. 왜냐하면 신방목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허련 국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자들이 하도 이야기가 많아서. 이 봉정사 극락전은
아무나 막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내가 일본에 가서 배워
서 하는 식으로 된 것이죠.

김철민 옛날 배치도 보면 앞에 진여문이 있는데 이미 공사할 때는 없어졌던 것인
가요?

김동현 그래요.

이왕기 그때 당시의 것을 보니까 전부 연필로 손으로 그려서 어딘가 날개로 끼워
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없어질 것 같아서 가져왔죠.

김동현 화엄강당은 판 데서 해체해서 옮긴 부재예요. 그 터를 보면 그 건물이 안
맞는 것을 알 수 있죠. 판 데서 해체해서 옮겨서 재조립한 것이라 봐요.

그리고 대웅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그 안에 고려시대 양식들이 있으니까 그 안의 부재들이 어디서 들어 온 건지, 자체의 것인지. 그것도 아직 불분명한 데가 있어요. 만약 대웅전이 고려 것으로 굳어진다면 대단한 것이죠. 해체조사하면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요.

● 봉정사 극락전 실측도면

김철민 그럼 이런 현황도들이 해체실측을 하고 나중에 그려진 것인가요?

김동현 그래요.

김철민 그런데 여기 보면 덧서까래가 그려져 있지 않은데, 사진에는 덧서까래가 있어요. 그런데 도면에는 없는 것이 이상해요.

이강근 수리 후 도면에는 덧서까래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수리 전 도면에는 덧서까래가 없어요. 이 도면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의문이죠.

김동현 나중에 보고서를 만들 때 그려진 것인지 모르겠네요.

김동욱 1974년에 정인국 선생님이 쓴 책은 문화재 위원하면서 하신 건데 홍대 학생들을 시켜서 잉킹해서 그렸던 것이라 저것도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확실치 않죠.

이강근 ‘문화재관리국 발표 해체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현 이 보고서는 나중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전에 맹인재 선생님이 용역을 받아서 실측을 했어요. 그때 도면이 아닌가 싶네요. 그때 국보 건물들을, 예를 들면 부석사, 봉정사 이런 것을 1차적으로 그렸어요.

이강근 여기는 문화재관리국 소장도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철민 김 선생님은 해체만 하고 손을 떼신 것이지요?

김동현 그래요. 불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 해체의 기법

김철민 귀숫음과 안솔림 체크방법은 어떤지요?

김동현 해체할 때는 기둥 위, 아래에서 평면실측을 해서 차이를 보고 판단해야 해요. 하방과 상방, 혹은 창방까지 실측해서 보면 알 수 있죠. 위가 좁으면 안솔림이구 이렇게 확인해야 하죠. 건물이 그냥 서있는 경우는 그냥 재서 알 수 있고, 창방에 상방이 끼던지, 창방이 끼던지, 물리난 건지, 그 대로 인지, 보면 알 수 있지요. 기둥 센터를 재서 차이를 봐서 오물어지면서 기울어진 건지.

제일 좋은 것은 상부의 수장의 센터를 재고 하방의 센터를 재고 하면 얼마나 쏠렸는지 알 수 있지요. 그것은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추를 내려서 첨자가 나온 센터를 잡아 추를 떨구어서 4군데를 전부 체크하고, 안의 평주도 재고, 같은 기둥끼리 재서 우주도 재고, 평주도 재면 그러면 대강 알 수 있어요.

애매한 경우는, 심하게 안솔림인 경우는, 포를 세울 때 포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세밀하게 조사한 경우는 없어요. 원래는 솔림을 할 때 기둥까지만 하고 포까지는 하지 않구요. 기둥까지만 안솔림이 되고 그 위는 수직으로 올리지 않았을까 해요.

김철민 단집은 해체하지 않았나요?

김동현 단집은 해체할 수 없어요. 이 건물이 원래 판고로 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록에 보면 대장전이라는 말이 있으니, 원래 판전이 나중에 극락전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김동욱 극락전 현판에는 청나라 말기의 연호가 나오지요.

김동현 연구를 좀 더 해야지만 원래는 판고나, 판전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 나오겠지요.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도 판고였다는 추정이 있어요. 또 판고인데 다른 곳에서 옮겨왔다는 설도 있고요.

김철민 여기 단집을 보면서 굉장히 고식이라서 오히려 건물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경미 축번호 붙일 때 가나다라 가나다랴... 이렇게 하신 것은 선생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김동현 내가 그냥 연구해서 남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정했어요. 원칙을 이렇게 정해야 일하는 사람들도 따라하기 때문이죠. 일본사람들이 그런 수법을 쓰는데 본 따서 한 거지요. 여기 사진은 전부 내가 직접 찍었어요.

❁ 재미있는 이야기

김동현 봉정사 극락전 수리하면서 겪은 재미있는 얘기는 의성서 백주에 강도를 만났던 것이죠. 안동서 대구로 오는 길에 이배영⁹³⁾ 씨, 전세민⁹⁴⁾ 씨와 함께 가방을 버스 위 짐 놓는 곳에 가방을 놓았는데 그 가방 속에는 카메라가 있었지요. 의성서 7~8명이 탔는데, 그 전에 버스 차장에게 가지고 있던 사탕을 한 움큼을 줬어요. 의성을 버스가 떠나자 차장이 쪽지를 줬어요. 쪽지를 보니 가방 조심하라고 쓰여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버스에서 자는데 이배영 씨도 잠들어 있었어요. 쪽지를 보고 이배영 씨를 깨우면서 조심하라고 알려줬죠. 버스가 달리는데 가방들이 하나씩 뒤로 가더라고요.

그때 이배영 씨가 전세민 씨에게 큰소리로 가방 조심하라고 소릴 질렀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었고 이배영 씨, 전세민 씨가 체격이 제법 컸기에 강도들도 그냥 중간에 버스를 황급히 내리는데 마지막 내리는 한 명만 잡았더니, 내린 강도들이 돌멩이를 들고 우리를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냥 놔주고 왔어요. 대구 터미널에 와서 경찰관에게 얘기했더니 잃어버린 것 없으면 된 것이 아니냐구, 경찰 양반이 런닝셔츠 차림에 모자만 쓰고 앉은 채로, 내가 기가 막혀 공무원증을 보이니까 그제서야 일어서더라고요. 조사 조치 하겠다고 하며, 차장이 경찰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구 했지만 다른 피해자를 위해 신고한 것이죠. 문화재 공사하면서 특히 중앙선 기차나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는 돈뿐만 아니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윤무병 선생, 김정기 선생과 부여 금강사지 발굴하고 오는데, 서대전역 전 파출소 앞에서 경찰이 런닝셔츠를 입은 채 앉아 있었어요. 나는 트란

93) 李培永

94) 全世民

싯트, 레벨을 짚어지고, 김정기 선생은 폴대를 메고 가는 중에 경찰이 불러 갔어요. 김정기 선생님이 “발굴하고 올라가는 길이에요.”하시며 신분증을 보이는데 사무관(파란색)과 주사(노란색)는 신분증 색깔이 달랐거든요. 이것을 몰랐던 경찰이 윤무병 선생님과 김 선생에게, 무슨 이런 공무원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파란색, 고급공무원증을 본적이 없었으니. 내가 왈 “당신의 경찰서장과 같은 거다.”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경찰이 옷도 제대로 입고 모자도 쓰고 인사를 제대로 하더라고요.

서울대 있을 당시, 최몽룡⁹⁵⁾ 교수와 완도를 갔는데, 그때는 12시까지 전기가 들어왔어요. 지표조사 때문에, 우리 차림새가 군화에 물통 차고 배낭 메고 저녁에 여관에서 밥 먹으면서 지도 펴놓고 얘기하고, 새벽 1시에 인검 나왔다고 깨우더라고요. 깨서보니 칼빈 총을 겨누고, “손들어.” 공문을 보이며 설명했지만 믿지 않더라고요. 가기 전에 미리 경찰서에 공문을 띄워 놓 상태였어요. 완도경찰서에서 확인한 후 차림새 때문에 오해했다고 사과를 받은 일도 있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섬갈 때마다, 검문소마다 다 체크당하고, 아무래도 차림새가 그러니.

1973

천마총 발굴

● 고분 발굴과 고고학 연구

김동현 김정기 선생이 가자고 해서 함께 갔어요. 그 당시 경주가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1973년에는 배수로가 노천으로 되어 악취도 심했어요. 경주

95) 崔夢龍

천마총천마도 벽화 바인더-536(1)-1



천마총 발굴현장 바인더-536(2)-13



천마총 발굴현장 바인더-536(2)-4



천마총 발굴현장 바인더-536(2)-3



에 오래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반발을 했지요. 같이 일은 했지만 상주는 내가 하고 김정기 박사는 연구실이 서울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요. 원래는 나보다는 고고학자들이 가야 할 자리인데, 김정기 선생의 부탁으로 갔어요. 고분도 구조체이고, 건조물인데 공부 겸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처음에는 달갑지도 않았고 김정기 선생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많은 좋은 경험을 했어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거기를

방문하니 많이 알게 될 수 있었죠. 고바야시 유키오⁹⁶⁾의 고고학사전을 그때 항상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해야 하니까 보도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고고학을 안했고, 고고학한 사람들은 다 어렸고, 더군다나 김정기 선생은 서울에 계시고 해서 내가 말하자면 부단장인 셈이라 내가 다 추려나가야 했어요. 유물이 발견될 때마다 밤중에 고바야시 사전을 보고 확인하고 했어요. 안압지에서 나온 가위도 처음엔 무언지도 모르고 있다가 사전에서 보고 가위인지 알았지요. 난 아직도 그 책을 참 대단한 책으로 보아요. 말 장식 같은 것도 그렇고 거기 도면하고 사진이 옆에 짝 있는데 책장을 넘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고학에 관심이 가게 되지요.

발굴, 전시 아이디어

김동현 지금도 경주박물관에 갈 때면 천마총 목걸이가 내가 옮긴 그대로 있는데 볼 때마다 내가 낸 아이디어에 뿌듯하지요. 예전에는 구슬이 무덤에서 나오면 그냥 수거하는 식이었으나 내가 의견을 내서 방안을 쳐서 발굴 때 모습 그대로 위치 그대로 하나하나 똑같이 옮겨 담았어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지요. 실측도구 등 다양한 의견을 냈어요. 이동식 방안 장치도 고안했고, 유적을 밟지 못하도록 독을 만드는 것, 그리고 거기서 수거된 흙을 하나도 안 버렸어요. 시신이 있던 주변에 흙을 나중에 석관을 만들어서 담았어요. 형체는 없지만 흙이 곧 시신이니깐요. 천마총 뒤에 그것을 안치했어요.

그분이 살아있으면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라고 직원들에게 주

96) 小林行雄

지시키며 주의시켰지요. 함부로 발로 밟고 다니면 안 된다고. 담배도 끊었어요. 경주 김 씨 왕릉이니까 조상을 대하듯 했어요. 내가 경주 김 씨니까. 고분 내부가 끈적끈적한 진창이었는데 시신이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냄새도 지독해서 마스크를 쓰고 발굴했어요. 경주 김 씨 문중에서 관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거둬서 제대로 다뤘지요.

● 공학자의 시각

김동욱 거기가 큰 말목으로 지지했던 구조지요? 그것도 공학자가 봐야만 알 수 있지요. 고고학자였으면 그냥 넘겼을 것이지요.

김동현 적석을 쌓을 때 그냥 쌓은 것이 아니고 비계를 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돌을 쌓아 올린 것이지요. 그 구멍을 찾은 것이지요. 웬만한 고고학자는 그냥 막 걷어 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상하게 구멍이 등간격으로 나오더라고요. 옆으로 가는 것이 또 나오고, 비계 짜듯이 전부 짜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쌓아서 그 높이로 올린 것이지요. 그냥은 도저히 올릴 수가 없지요.

다리 놓는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했더라고요. 월정교도 그렇게 했어요. 하상 구조도 우물정자 형태로 거기다 돌로 짠 것이에요. 그래서 보고서에 다 그리고 남들이 안한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 물량을 계산했어요. 흙의 양, 돌의 양, 지금 계산으로 몇 명의 연인원이 필요했을 것인지를 하는 것을 했지요. 과학적 방법으로 풀어보는 것, 공정, 목록도 복원하고 하는 공학적인 것을 했지요. 그전 고고학발굴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 대통령 방문

김동현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은 공식적으로, 또 한 번은 가족들과 비공식적으로 두 번 방문하셨습니다. 안압지 이야기가 또 나오겠지만 굉장히 관심을 보이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범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돈이 없어서 일본으로 못 가고, 못 간 학생들끼리 경주로 왔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여기에 나무가 있었고 저기는 초가집이 있었고 하는 이야기와 유적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창피하게 관리되어 있었다는 등 사적인 얘기도 해주셨죠. 발굴을 잘하고 잘 정비해서 찬란한 신라의 문화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금일봉 2백만 원도 받았지요. 1976년도이니 거의 집 한 채 값이었어요.

1974

황남대총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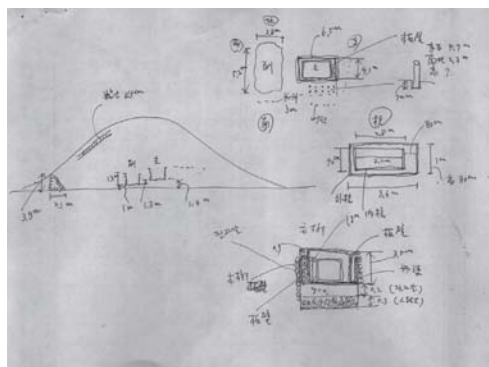
☼ 천마총과 황남대총의 관계

김동현 처음에 시험 삼아서 천마총을 해보겠다고 한 것인데, 금관, 천마도 등 생 각지도 못한 대단한 유물들이 나왔죠. 당시 98호분(황남대총)을 하지 않으려고 155호분(천마총)을 실습용으로 발굴한 것이었어요. 철기나 토기 정도가 발굴되면 천마총이 이러하니까 98호분도 별 대단한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발굴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상부(박 대통령)에 올리려는 생각으로 황남대총 대신에 천마총을 발굴한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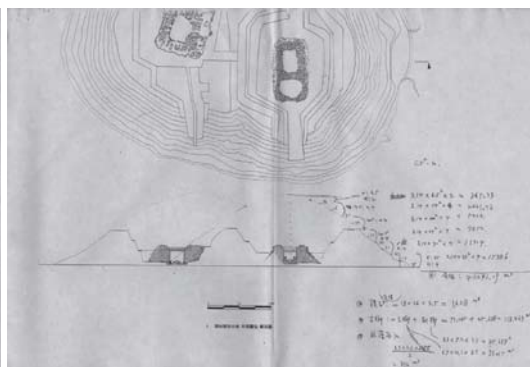
그런데 대단한 유물이 나오는 뜻밖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는 황남대총도 꼭 발굴해야 되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었지요. 박 대통령이 98호분을 보

면서 “저것은 더 대단하겠다.”고 해서 천마총이 끝날 즈음에 황남대총 쌍분 중 남분부터 시작하였어요. 이 작업이 1975년도까지 넘어가서 계속되었고, 그때, 1975년 6월에 문화재관리국 안의 연구실이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승격되었어요.

황남대총 단면 스케치 바인더-61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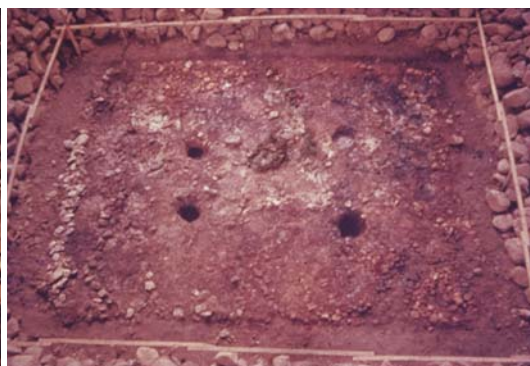
황남대총 바인더-613(3)-4



황남대총 발굴현장 슬라이드-4034



황남대총 발굴현장 슬라이드-4041



☼ 옥충 장식과 김유선 박사

김동현 보존과학 쪽으로 신경을 쓴 것이 비단벌레 날개 옥충장식의 전문, 즉 말 안장이죠. 말 안장에 장식이 있는데 옥충날개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보존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원자력연구소의 김유선⁹⁷⁾ 박사, 이태녕 교수보다 조금 후배인 분이예요. 이태녕 박사가 이론형이라고 한다면, 이 양반은 실무에 아주 능숙한, 소위 실무형 과학자예요. 그래서 물건이 나오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험을 하셨지요.

직접 자기가 하니까 나는 김유선 박사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옥충마구⁹⁸⁾가 나오자마자 이것은 본인도 처음 접하는 것이라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 손등 터지면 바르는 것, 그리셀린을 사오라고 하셨죠. 마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통을 만들어서 그리셀린을 채워 넣고 거기에 담그도록 했어요. 마구에 붙어있는 잡물들을 전부 제거하고 나온 즉시 담갔죠. 그랬더니 색깔이 안변했어요. 벌써 30년⁹⁹⁾이 지났는데 그대로예요. 옥충이 날개로 떨어진 것은 약품에 넣지 않았는데 한 5~6시간 후가 되니까 새카맣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김유선 박사의 공로가 보통 공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분이 아니었으면 새카맣게 변해서 그 빛을 못 보았을 것예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나는 그리셀린이 겨울에 손등 터진데 바르는 것으로만 알았지 그렇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지금도 그리셀린에 담겨있어요. 그 대신에 몇 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요. 6개월에 한 번씩 내가 갈아주었으니까.

97) 金裕善 : 서울대학교 화학과

98) 玉蟲馬具

99) 2007년 구술 당시

옥충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보았지요. 일본의 옥충주자¹⁰⁰⁾는 알고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백제계 사람이 거기서 했는지, 백제에서 했는지, 아니면 일본에 전수를 해주었던 것인지 애매한 상태이지요. 옥충주자가 7세기 것인데, 이것은 황남대총에서 나왔으니까 6세기 것이지요. 그런데 옥충 장식을 마구에만 한 것이 아니라 마구의 발걸이, 등자에도 해서 더욱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비단벌레 날개를 불상의 대단한 곳에 장식한 것이 아니라 밟고 다니는 신발이 닿는 곳에도 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자랑 한 번 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번에 경주박물관에서 그것의 모조품을 만들었어요. 최광웅¹⁰¹⁾ 씨라는 분이 비단벌레 날개로 마구를 그대로 장식해서 복원을 했어요.

● 공예가 최광웅씨의 복원

이강근 최광웅 씨가 금관도 많이 하셨지요.

김동현 그래요. 요즘도 연락하지요. 그 옥충마구는 포항 MBC가 비용을 지원해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프로그램에 사용을 하고, 그 후에는 경주박물관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만든 것이예요. 그때 최광웅 씨가 불러서 집에도 갔었죠. 가니까 비단벌레를 하나 주더라고요. 다 일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면서, 국내에서는 그렇게 수백 마리를 잡을 수가 없대요. 일본에는 그것을 재배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이경미 크기가 어느 정도 인가요?

100) 玉蟲廚子

101) 崔光雄

김동현 풍뎡이 정도로 보면 되요. 수백 마리를 가져왔는데 몇 개 가져가라고 해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보여 주려고 한 마리 가져왔어요.

이강근 최광웅 씨가 월산 스님 사리기도 하셨지요?

김동현 동국대 홍광표¹⁰²⁾ 교수가 설계를 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리기를 최광웅 씨가 했지요. 자문은 내가 했어요. 최광웅 씨가 법주사 때부터 일을 같이 많이 해서 내가 시켰지요.

☉ 비단벌레와 전복

김동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군가가 그 비단벌레의 성분을 분석을 했는데, 비아그라 성분이 나왔네요.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신라인들이 알았을 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 날개를 장식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구를 장식하는 데까지 쓰이지, 만약 귀중한 것이었으면 부처님 집 장식하는 데나 쓰이지 어떻게 말안장이나 발걸이 같은 곳에 썼겠어요. 그러니까 신라 때는 그것을 엄청나게 잡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덤을 다 발굴한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김동욱 그것이 실온에 노출되면 변색이 되지 않습니까?

김동현 그렇지 않아요. 땅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공기가 차단되었다가 노출이 되

102) 洪光杓

서 산화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것은 안 변해요. 땅속에 있다가 노출되니까 새카맣게 변하는 것이예요.

신라인들은 전복도 많이 먹었어요. 포석정의 포석이 전복돌이예요. 포석정이라는 것도 전복처럼 생긴 것이지요. 안압지 입수석도 그렇고, 섬도 전복처럼 생겼어요. 완도 지방에서는 통일신라 때 완도에서 나온 전복이 전부 경주로 갔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복을 많이 먹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포석정도 만들고 했던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비단벌레도 마찬가지로였을 것이예요.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지요.

제4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시절

1975 보존과학실장 발령

1975 안압지 발굴

1976-1980 황룡사 발굴

1979 덴마크 국립박물관 한국실 재설계

1980 법주사 청동대불 설계

1980-1981 동경대 유학

1982 제암리 발굴 외 기타 설계작업

1990 동화사 대불과 통일대전 설계

1996-1998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1975
1998

배가 6m가 넘는데 바닥에 뒤집혀져 있었어요. 완전히 부식이 된 상태로 형체만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형태는 완벽하게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끄집어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냈지요.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것을 뒤집을 수도 없고, 그냥 들어내자니 그냥 막 부서질 상황이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우선 땅을 팠었어요.

04 국립문화재연구소 시절

1975

보존과학실장

발령

❁ 서기관으로 승진

김동욱 보존과학실장하시면서 보존과학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현 그때는 초창기였으니까요. 이치순 국장이 발령을 낸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서기관이 되는구나 하고 고무됐었지요. 당시 나이가 서른 몇 살 때이니까. 집에서도 경사 났다고 했었지요. 그때는 마흔, 쉰 가까이 되어야 과장이 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이젠 다른 애한테 김성진 장관이 휴가 갈 때 늘 우리 형님과 같이 다닌 모양이에요. 둘이 친하게 지내곤 했나 봐요. 진작 알았더라면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기대고 했을텐데 아쉬워요.

이경미 형님께서 귀뜸을 안 해주시던가요?

김동현 이야기 해주지 않아 몰랐어요. 워낙 꼬장꼬장한 성격이라 남의 신세는 절대 안 지려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동경대 유학은 원래 1979년 11월에 가려 했는데 그 해 10.26사건이 터져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

에 공무원이 해외에 나갈 수가 없어 다음 해, 1980년 가게 되었지요. 그 때 김성진 장관도 그만두었지요.

김동욱 어떤 고고학 전공한 사람보다도 중요한 것들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황룡사, 안압지, 다 최고로 중요한 것을 하셨습니다.

김동현 충남대 박순발 교수도 황룡사 발굴할 때 아마 실습생으로 왔었던 것 같아요.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직제

김동현 미술공예연구실, 예능민속연구실, 보존과학연구실 이렇게 세 개의 연구실이 설립되었지요. 연구실 시절의 계장급들이 실장으로 진급이 되었어요. 처음에 미술공예연구실의 실장으로 장경호¹⁰³⁾ 씨, 예능민속연구실 실장으로 이호관¹⁰⁴⁾ 씨가 결정이 되었는데 보존과학연구실은 실장은 공석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나는 당시 98호분, 천마총, 이런 것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력서 등의 서류를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가 이치순¹⁰⁵⁾ 문화재관리국장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그러니까 문화재연구소가 생기기 전에 이치순 국장이 일본을 갈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 동행하자는 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동경, 나라, 경도 등을 함께 다닌 일이 있었죠. 당시 전문위원 신분이었던 나를 연구소로 발령을 내서 보존과학연구실장으로 일하게 하도록 한 게 그때의 인연 때

103) 張慶浩, 1963-

104) 李浩官, 1934-

105) 李致淳 : 5.16때 중령이었으며, 문화공보부의 국장이었다가 문화재관리국장으로 부임

문인 것 같아요. 김정기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당시 문화재연구소장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셨죠. 그때 약간 기분이 나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서류를 내보라고 권장하셨죠. 그래서 별정직 특채로 공무원이 됐어요. 당시 ‘3급 올’인 서기관부터 공무원을 시작하게 됐죠.

김동욱 그렇다면 연구소가 생기자마자 고위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시게 된 셈이네요.

김동현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고 대단한 특채였어요. 1975년 7월에 실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그래서 경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이경미 가족이 모두 다 함께 내려가 계셨던 것이지요?

김동현 그렇죠. 1973년부터 1975년까지 가족이 모두 경주에 있었어요. 성건동에 살았어요. 그때는 거기가 시외 쪽과 비슷했어요. 2층 터미널 있던 그쯤이었어요.

김동욱 그때는 일운¹⁰⁶⁾이가 몇 학년 때 었는지요?

김동현 그때가 1973년이니 4살 때였고, 그 밑으로 지윤¹⁰⁷⁾이라는 딸아이가 돌 지나기 전에 내려갔어요. 경주에서 돌잔치를 했죠. 그래서 식구들 모두 서울 답십리로 이사를 하고 나는 경주에 상주를 하는 것으로 했죠.

106) 金一潤, 1970- : 장남

107) 金智潤, 1972- : 장녀

❁ 22년 간 같은 직책

김동현 그때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내가 1975년부터 1996년 까지 있었으니까 햇수로 22년 있었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웃음) 내가 며칠 전에 총무원장 했던 서의현¹⁰⁸⁾ 스님을 만났는데 그 양반은 지금도 나보고 실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그 실장은 내가 아주 옛날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직함이고 이제는 진급도 하고 했는데 왜 맨날 실장이라고 부르냐고 했죠. 그랬더니 실장이 더 높은 것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청와대의 비서실장 정도 되면 실장이 높지만 여기서는 소장이 더 높은 거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실장으로 20년 넘게 있던 사례는 내가 처음일 거예요. 별정직은 진급을 못해요. 진급을 하려면 일단 사표를 내야해요. 그래서 내가 소장될 때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소장이 되는 거죠.

실장으로 22년을 있으면서 일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법주사 청동대불 설계도 내가 했고, 동화사 통일대석불, 통일대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때 했지요. 대표적인 작품이 그거였죠. 그리고 도리사에서 사리가 나왔을 때 사리탑과 배전 설계도 했어요.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씨의 고향이 거기예요. 그리고 정보부장 했던 이후락 씨, 그 사람들 그때 도리사 사리가 나왔을 때 대단했어요. 박 대통령 고향이 거기니까. 그래서 도리사 정화사업을 크게 했지요. 사리탑 앞에 있는 배전을 수덕사 대웅전 스타일로 설계를 했지요. 실장을 22년 했으니까 긴 세월이지요. 그때 그런 일들을 다 했어요.

108) 徐義玄

이경미 호봉은 계속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실 때는 몇 호봉으로 끝나셨는지요?

김동현 제일 많은 것이 30호봉이에요. 그 이상으로는 올라가질 않지요. 나는 실장 24호봉, 거기에 전문위원 기간을 합쳐 30호봉이 넘었어요.

● 인재 육성

김동욱 보존과학실장으로 계실 때 미륵사 동탑 복원이 있었고, 그 외에 큰 것들이 몇 건 더 있었죠?

김동현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법주사 대불상 설계 등이 있는데 그건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당시에 보존과학연구실은 초창기라 기계도 없고 전공자도 없었어요. 다 비전공자들인데 전공이 화학과다, 물리학과다 해서 그 방에 온 것이죠. 두 사람 정도가 그랬고 나머지는 다 인문계 행정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최광남 씨, 강대일 씨, 이오희 씨, 김용한 씨, 김병호 씨, 안희균 씨 등등을 유학도 보내고, 연수도 보내고 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죠. 무조건 우리 직원으로 들어오면 대학원에 가라고 했어요. 근무 안하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수가 됐어요. 원래 공무원 규칙으로는 안 되지만 강의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지금 보면 결실을 거뒀다고 할 수 있죠. 7~8명 정도가 교수로 가 있어요.

● 유운소 국장의 지원

김동현 그리고 기자재는 유운소¹⁰⁹⁾ 국장 때 지원을 많이 받았죠. 내가 동경대학에 있을 때 이분이 일본에 왔는데, 그때 우리 연구소와 관련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가셨죠. 동경대학에서 돌아오니 그분이 우리 연구실을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사람의 인연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사람한테도 정성을 다 해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그분이 문화재관리국장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었죠.

문화재관리국장으로 오기 전에는 국립박물관 사무국장을 했었는데 그때가 광주박물관을 한국 전통식으로 세울 때 었어요. 성격이 고지식하고 바른말을 잘해서인지, 장관한테 잘못 보였는지 본부에서 승승장구할 사람인데 박물관 사무국장으로 좌천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물관을 더 잘 지으려고 했죠. 그때 광주박물관 현장 감독이었으니까.

광주박물관 현관에 엔타시스 기둥이랑 한식 추녀를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되는데 업자가 한옥에 대해 전혀 모르는 곳이라 시공이 어려운 거예요. 유운소 국장이 나한테 자문을 구해왔죠. 그래서 내가 신응수 씨를 데리고 가서 곡 잡는 것부터, 엔타시스 잡는 것, 형틀 만드는 것까지 전부 봐줬죠. 유 국장이 나한테 정말 고마워했어요.

박물관이 준공되니까 그 공로로 장관이 문화재관리국장으로 승진시킨 거예요. 발령 전에 미리 알고 유 국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며칠 후 관리국으로 간다고. 깜짝 놀랐죠. 그 인연으로 국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어요. 예산도 많이 줬고요. 그래서 그때 관련 기계들을 많이 구입했죠. 주변에서는 그걸 질투해서 우리

109) 柳運素 : 성균관대 사학과. 아주 어렵게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무슨 화학연구소에 들어가서 분석하는 일을 하다가 문화재관리국장까지 지냄

실에 비리가 있다고 이것저것 소문을 내고 그랬죠. 기계를 사면서 누가 얼마를 먹었는지 하는 소리가 들려서 국장이 날 불려서 소문을 확인해보라고 할 정도였어요. 다 거짓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더욱 깨끗하게 했어요. 업자와 차도 한 잔 안 할 정도로, 수억 원어치를 사도 아무런 말썽도 없었어요.

유운소 국장이 더욱 믿어줬죠. 그리고 일제시대에 많은 희생자가 나온 제암리 유적에도 내가 가게 됐죠. 발굴 담당이 미술공예연구실 유적조사팀인데도 유운소 국장이 나한테 책임지고 발굴해 달라고 했어요. 담당실에는 미안한 일이었죠.

● 실장 시절의 회고

김동현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졸업하고 인생을 살면서 실무경력(현장 경험)을 1/3,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남기는 것) 1/3, 나머지 1/3은 사회에 환원(후배 양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배우고 자기 생각으로 굳히고 만들고 사회에 환원해야죠. 인생의 계획이 중요하죠. 안되더라도 계획은 세워 놓는 것이 좋아요.

이왕기 선생님께서는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이루셨다고 생각하세요?

김동현 내 맘대로는 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하게는 해왔어요. 젊었을 때 현장을 15년 정도 뛰었고, 그 다음에 공부도 10년 정도했고, 잡문이지만 보존과 학연구실장 때 글도 많이 썼죠. 나로서는 그때가 황금시대였어요. 실장 때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때가 가장 좋았죠. 소장은 안 그래요. 그래서 소장은 1년 반만에 그만뒀죠. 이런저런 일로 전공과 상관없는 일에 불

러 다니고 너무 바빠서 그만뒀어요. 공무원 체질이 아닌가봐요. 1998년에 여성 장관인 신락균¹¹⁰⁾ 씨가 왔어요. 그 장관 오자마자 내가 그만둔 거죠. 보존과학연구실장 때가 제일 좋고 편했어요.

1975

안압지 발굴

❁ 이종철 씨와 지건길 씨

김기주 안압지 발굴 당시 연구실 인원은 몇 명 정도였나요?

김동현 그때 지건길¹¹¹⁾ 씨가 차석으로 있었고, 이창근¹¹²⁾ 씨, 김병호¹¹³⁾ 씨, 안희균¹¹⁴⁾ 씨 그리고 나까지 다섯 명 정도 있었어요. 연구실 시절에도 보존과학팀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창근 씨, 김병호 씨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죠. 이창근 씨는 중앙대 물리학과 출신이고, 김병호 씨는 성균관대 화학과 출신이었어요. 말하자면 물리학과 화학직을 뽑은 거죠. 그런데 연구소가 되면서 거기에 보강이 된 것이 안희균 씨, 중앙대학교 생물학과 출신이었죠. 그리고 지건길 씨는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종철 씨하고 바뀐 것은 왜 그랬냐 하면, 학예관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지건길 씨, 이종철 씨, 조유전¹¹⁵⁾ 씨, 고대 사학과 출신 이주영¹¹⁶⁾

110) 申樂均

111) 후일 국립박물관장 역임

112) 李承根

113) 金炳虎

114) 安喜均

115) 趙由典

116) 연구소 자료실에 있던 분으로 선생님 하다가 온 분, 얼마 전까지 경주문화재 연구소장 역임

씨 이렇게 4명이 시험을 보았는데, 지건길 씨가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방이랑 미술공예, 예능민속 방에 티오가 각각 하나씩 있었는데, 사무관이 진급해서 서기관이 되면서 실장을 달게 되니까 그 자리가 하나씩 비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건길 씨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종철 씨가 우리 방으로 발령을 받고 지건길 씨는 박물관으로 옮겼어요. 미술공예는 조유전 씨, 예능민속은 이주영 씨가 가고요.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새옹지마. 결국 지건길 씨가 나중에 더 잘 됐으니까.

그렇게 우리실이 안정이 되면서 내가 실장으로 있었고, 이종철 씨가 계장으로 있었어요. 지금 전통문화대학교 총장하고 있는 그 분이지요. 이종철 씨는 내가 서울대학교 박물관 있을 때부터 형님, 형님 부르며 따르곤 했었어요. 내가 경주에 있는 동안은 보존과학실 살림을 모두 도맡아서 했지요. 나는 아주 안심을 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니까. 내가 시킨 것 외에도 다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랬죠.

김동욱 이종철 씨도 꽤 오래 계셨죠? 제가 1982년도에 선생님 연구실에 들렀을 때도 이종철 씨가 같은 방 앞 책상에 있었죠.

사적관리사무소 고경희 씨

김동현 1975년 황남대총이 끝날 쯤에 경주시에서 안압지 준설공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발굴이 아니고 공사여서 불도저가 안압지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했어요.

김동욱 당시는 안압지가 작았을 때가 아닌가요?

김동현 맞아요. 조그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 사적관리사무소가 생겼어요. 정재훈 씨가 초대 소장이 됐지요. 그리고 직원 중에 고경희¹¹⁷⁾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경미 이대 사학과 출신의 사람이 맞습니까?

김동현 그래요. 사적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학예사인가 하는 직책으로 있었어요. 안압지를 준설할 때 사적관리사무소가 상당히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게 고경희 씨로 하여금 불도저가 작업할 때 혹시 뭔가 나오는 게 없나 지켜 보도록 한 일이었어요. 그때 정재훈 씨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고경희 씨가 혈레벌떡 우리 현장 사무실로 뛰어오는 거예요. 와서 말하기를 거기서 와당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불도저가 바닥을 미는데 흙에 묻힌 채로 와당들이 마구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에 연락을 취했지요. 관리국 지시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결과적으로 고경희 씨의 공로가 컸지요.

이강근 지킴이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하셨네요.

김동현 그래요.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 했죠. 그게 문화재위원회에 회부되어 보고가 되고, 정식 발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경주고적발굴조사단¹¹⁸⁾이 안압지를 발굴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윤근일¹¹⁹⁾ 씨를 현장 책임자로 보냈죠. 벤치마크를 박고 발굴 조사 준비를 해서 시작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지만 보고서에 나오

117) 高敬姬

118) 천마총 황남대총 등등의 발굴을 수행하고 있었던 당시 조사단의 정식명칭

119) 尹根一

니 참고해요. 결과적으로 겹치기 발굴이 계속되었어요. 안압지는 전부 인력으로 파냈지요. 호안석 있는 변두리부터 파내었어요.

김동욱 매몰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김동현 1m 20~30cm 정도 엄청나게 묻혀 있었지요. 호안부터 파면서 깊이를 보고 바닥을 찾아가면서 전부 인력으로 발굴했어요. 그때 컨베어 벨트도 사용하였어요. 흙의 양이 많으니까 컨베어 벨트를 여러 개 연결하여서 밑에서부터 파낸 것을 모아가지고 버리고 하는 식으로 발굴을 하었죠. 참으로 엄청난 유물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안압지 발굴 도중에 김정기 선생이 단장을 나한테 물려주었죠. 그리고 당신은 충지회의 역할을 하면서 때때로 내려오시고, 나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일을 하었죠. 서울에도 연구실이 있으니까 가끔 올라가서 결재할 것을 처리하고 했죠.

❁ 오븐 건조 중 유물 소실 사고

김동현 1979년, 내가 유럽출장으로 없는 동안에 이종철 씨는 덴마크에 있었고, 보존과학연구실에서 사고가 났어요. 대단해서 신문에도 크게 나고 했어요. 안압지에서 발굴한 주사위와 남근을 보존처리한다고 새로 설계해 만든 오븐에 넣었다가 다 태워먹은 것이지요. 목재니까 약품 경화제를 침투시켜서 서서히 건조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빨리 효과를 보려고 오븐에 다 넣은 거예요. 지금은 오븐이 잘 나오지만 당시는 성균관대 출신의 김병호 씨가 설계를 해서 오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불량품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24시간 정도 아주 약한 온도로 해서 건조를 시키는데 밤에 과열이 되어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싹 타버리고 만

것이에요.

16면체로 된 주사위로 글씨도 또릿또릿하게 새겨져 있고 국보 중에 국보 인데,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남근은 남자의 그것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흑도 3개나 만들어 붙여 놓았었어요. 그것도 경화시키려고 같이 넣은 건데 함께 타버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얹힌 데 덮친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늦게 귀국한 사람 방에서 사고까지 났으니, 종로경찰서에 책임자로 끌려 다니면서 어디가 있었는지, 왜 책임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것인지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와 김병호 씨, 그리고 직원 한 명이 3개월 감봉 정도의 징계를 받았지요. 원래는 잘려야 하는 큰 일이었어요. 이것도 장관이 봐줘서 그 정도였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장관이 우리 사촌 형¹²⁰⁾의 1년인가 2년 서울고등학교 선배였어요. 형님하고 아주 절친했어요. 김성진 장관은 동생이 김동현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은 나한테 어디 국장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서류를 내라고 한 일도 있었는데 내가 사양을 했어요. 하여간 유물 소실된 일과 출장 때 문제 생긴 것도 다 김성진 장관 덕분에 잘 넘어간 거예요. 그것이 잘 넘어가서 동경유학도 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 주사위와 남근

이경미 주사위 이야기는 얼마 전에 신형준¹²¹⁾ 기자가 기사를 쓴 일이 있었습니다.

김동현 신형준 기자는 조선일보 문화부의 대단한 기자였죠. 나하고는 가깝게 지

120) 金東益, 1933- : 노태우 정권 때 무임소 장관을 했고, 중앙일보에서 정치부 기자에서 편집국장, 사장까지 지냄

121) 愼亨洙

안압지 주사위 슬라이드-687



안압지 남근 슬라이드-6122



냈어요. 그런데도 기사를 썼죠. 이미 그 당시에 신문에 다 기사가 나고, 징계 받은 일도 다 신문에 났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죠.

김동욱 그것은 다행이 다 실측해 놓아서 복원할 수 있었죠.

김동현 당시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불나기 전에 내가 모조품을 만들어놨어요.

이경미 그럼 그 모조품들은 불나기 전에 만든 것인가요?

김동현 그래요. 남근은 만들지 않았고, 주사위만 똑같은 박달나무로 해서 모조품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지금 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내가 발굴조사단장을 할 때 잘 만드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똑같이 제작하였어요. 그때 2개를 만들었는데, 집에 하나, 그리고 제일 잘된 것을 경주박물관에 주었지요. 며칠 전에도 박물관 가 보니까 그것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집에 있던 것은 근래 경주박물관 이

영훈¹²²⁾ 관장에게 주었어요. 또 그 남근은 한두 개가 나온 것이 아니고 많이 나왔어요.

김동욱 연못에서 왜 그런 게 많이 나왔을까요?

김동현 글썄요. 아마 귀족들이 모였을 때, 그걸 가지고 궁녀들 데리고 희롱하며 장난치던 것 아닐까 해요.

❁ 안압지 복원설계

이강근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안압지에 복원되어 있는 건물에는 관여를 안 하셨는지요?

김동현 기본설계를 내가 했고 아마 삼성건축사사무소에서 본설계를 했죠. 기본설계는 내가 다 그려줬어요. 왜냐하면 출토된 부재를 바탕으로 응용을 해야 하니까. 장기인 선생 회갑논총인가에 내가 그것을 소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회갑논총에는 목부재만 소개했어요. 그때는 장기인 선생이 웬만한 것은 다했으니까. 그것은 「문화재」지에도 도면을 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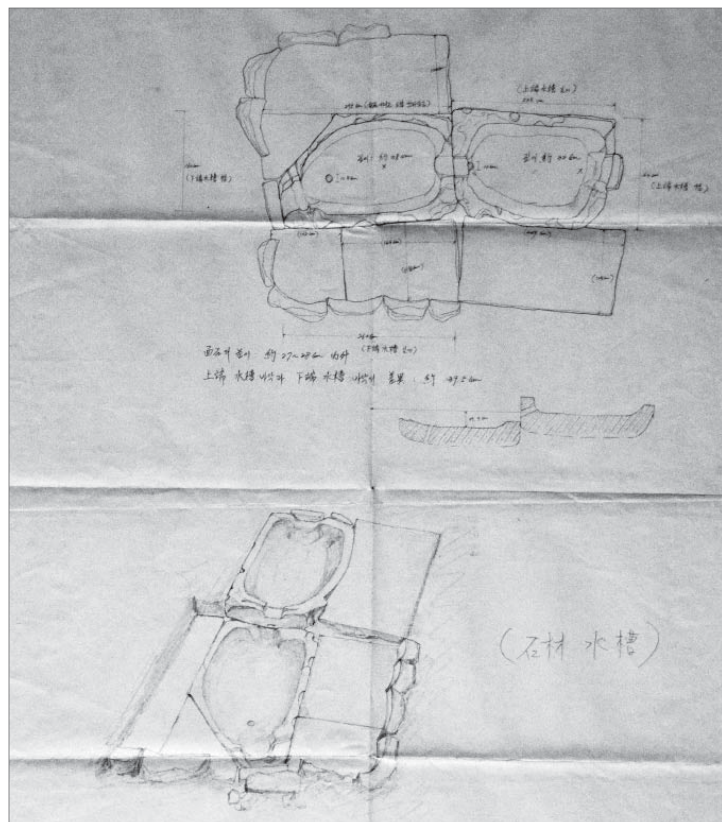
이강근 장경호 선생님이 쓰신 것인가요?

김동현 장경호 씨가 아니라 전유태¹²³⁾ 씨에게 쓰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당시에 보수과장인가 그랬어요.

122) 李榮勳

123) 田有泰, 1938-

안압지 석재수조 스케치 바인더-383(19)-1



김동욱 보수계장이었을 겁니다. 과장으로 진급한 것은 나중 일이고요.

김동현 김동욱 교수 선배인가 그렇죠? 그 친구가 글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당신 이름으로 글을 하나 쓰라고 했지요. 그래서 「문화재」지에 글을 실었어요.

❁ 목선 절단 사고

김동현 그리고 안압지에서 중요한 유물이 또 하나가 목선
이예요. 목선도 큰 사고를 내가 냈었어요. 목선을
걷어들어 올리면서 사고를 냈죠. 목선이 바닥에 있
었는데, 통나무 세 개를 연결해 가지고 만든 목선
이었고 길이는 6m 정도 됐어요. 세 쪽으로 결합을
시켜서 배를 만든 것이예요. 밑판과 옆판으로 되어
있는데, 통나무를 파내어서 곡선으로 만들었어요.
세 개의 나무를 빗장처럼 해서 끼웠어요. 여기에다
돌기를 만들고 구멍을 뚫어서 빗장 찌르듯이 넣어
가지고 만든 것이예요. 도면에 다 나와 있어요. 이
게 세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있었어요. 배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이런 것을 통나무선이라고 한
대요. 배가 6m가 넘는데 바닥에 뒤집혀져 있었어
요. 완전히 부식이 된 상태로 형체만 남아 있었지
요. 그러나 형태는 완벽하게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끄집어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
디어를 냈지요.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것을 뒤집을 수도 없
고, 그냥 들어내자니 그냥 막 부서질 상황이고. 그
래서 생각해낸 것이, 우선 땅을 팠었어요. 세 군데
인가를 팠죠. 중간을 파냈어요. 그러면 파지 않은
곳은 걸려 있고, 판 곳은 밑이 풀리겠죠. 흙을 야금
야금 파내었어요. 그리고 빈 공간에다가 데크를 만
들어서 지지시키고 나머지 흙을 다 걷어내니까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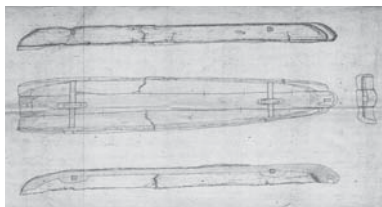
안압지 목선 슬라이드-660



안압지 철채 슬라이드-666



안압지 목선 스케치 바인더-383(3)-1



선은 공중에 뜬 꼴이 되었지요. 그 다음 거기다가 무너지지 않게 나무로 판재를 대 가지고 나무 위에 걸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목선이 6m가 넘으니까 소위 드잡이를 해서 목도를 해 연못 바닥에서 호안 위로 올려내야 하는 문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경사로를 만들어서 목도를 하는데, 밑에 사람들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똑 같이 힘을 주어서 올라와야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거우니까 힘을 안 쓴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받침대 자체가 휘어져서 목선이 똑 부러져 버렸어요. 받침이 휘니까 목선이 부러지게 된 것이지요.

이걸 올리는 날 경주 기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걸 보고 사진 찍고 그렸어요. 사무실로 뛰어 들어가서 본사로 전화를 해 대는데 제목을 ‘목선을 부러뜨렸다’로 했어요. 서로 먼저 하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야단들이었죠. 멀쩡했던 것이 가운데에서 똑 부러졌으니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기자들은 송고를 하러 다들 가고, 나는 문화재관리국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했지요.

“배를 올리다가 부러뜨려 먹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올라가서 보고하겠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사표를 작성했어요. “발굴 중에 귀중한 목선을 파괴시켜서 책임을 지고 본직을 사직함”이라 써서 우편물로 직원을 시켜서 부쳤어요. 그런데 국장한테서 전화가 와서 목선 부러졌다고 네가 그만둘 것까지 있겠느냐고 해서 다시 사직서를 반려 받았어요.

❁ P.E.G. 경화 처리방법

이경미 목선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김동현 나중에 접착을 했어요. 그때는 보존처리를 우리가 직접 했지요. 황룡사

갔을 때에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P.E.G.라는 경화제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처리했어요. 아주 비싸고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이었어요. 그 약품을 물에 희석을 해서 처음에는 비율을 물 100에 경화제 2정도, 1~2%로 약하게 해서 거기다가 담구지요. 그럼 이제 물과 약품이 함께 침투하는 것이지요. 열흘 정도 담가 두었다가 다시 이번에는 4~5% 정도로 농도를 올려서 다시 하죠. 한꺼번에 하면 침투가 되질 않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60~70%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서서히 건조를 시키죠. 앞에서 주사위와 남근 오븐 건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건조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진공 감압기에다 넣고 진공상태에서 또 침투를 시키죠. 완전히 진공상태에서 P.E.G.를 90~100% 까지 침투시키면 그 자체가 완전히 P.E.G.가 되죠. 세포 안까지 침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꺼내서 완전히 건조를 시키면 그게 돌덩어리처럼 되요. 생목처럼. 전단력에는 약하지만 단단해지니까 보존하기에는 제일 좋은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로 경주국립박물관에 목선을 인계했어요. 거기 전시되어 있을 거예요. 완전히 다 될 때 까지 6년에서 7년 걸렸어요.

안압지 목선 보존처리 과정(1984) 바인더-383(1)-6



안압지 목선 처리후(1978) 개인-6-174



1976-1980

황룡사 발굴

● 황룡사 발굴의 인물들

김동욱 보존과학 실장 하실 때 1976년, 1977년에 박대통령 살아계실 때 좀 더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현 그 다음은 황룡사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보존과학실장이 되고 나서의 일이에요. 안압지를 끝내고서 황룡사지 발굴을 본격적으로 했어요. 1976년부터 1980년까지 한 5년 내가 거기 있었지요. 황룡사 중심곽만 내가 끝을 냈어요. 회랑 바깥은 조유전 씨가 했고, 나는 발령을 받고도 발굴 일로 경주 현장에만 있었어요. 이종철 씨가 실장대행을 했어요. 그리고 안압지 발굴할 때 건국대학의 최무장 씨가 부단장으로 있었지요. 최무장 씨는 보존과학실의 전문위원으로 있었어요.

연구실 때 최무장 씨, 불란서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왔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 양반이 청와대에 탄원서처럼 해서 청와대에 제출했어요. 불란서에서 고고학을 공부해서 귀국했는데 자리가 없다고 했지요. 그러니 청와대에서 그것을 문화공보부에 보냈더니 문화공보부에서 연구실에 자리를 하나 내도록 한 것이 전문위원 자리예요.

이경미 그럼 전문위원 제도는 처음부터 있었던 건가요?

김동현 그래요. 문화재 위원회가 생길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채용도 쉽고 짜르기도 쉽고 한 자리예요.

이강근 계약직이라고 보는 것인지요?

김동현 그래요. 일종의 계약직이죠. 그래서 연구실에 보냈는데 미술공예팀으로 보냈어요. 그 때 이호관 씨가 거기 팀장이었으니까 당해낼 수가 없었나 봐요. 연구소가 생기면 이 사람이 틀림없이 미술공예 연구실장이 되겠다 싶어서 자기는 보존과학으로 가겠다고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해서 내가 발령받기도 전에 거기로 갔어요. 그 사람은 보존과학하고는 학문적으로 관계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거기 와 있었어요. 안압지를 발굴 하는데, 부단장이 있어야 해서 그리로 왔죠.

최무장 씨가 부단장으로 왔는데 그런데 행정적인 일에 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자꾸 유물이 없어졌어요. 관리자에게 물어보면 최무장 씨가 가져갔다고 해서 알고 보니 보존처리가 급한 것은 자기가 그냥 들고 서울로 올라가 버리는 식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유물이 몇 점 보존처리가 시급하니까 가져간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이 사람은 발굴현장에서는 부적격한 것으로 건의를 해서 조유전 씨로 부단장을 교체하였지요. 밑의 부하직원들에게도 나쁜 사례로 남아서 결국 통제가 안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으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질차가 있는 것인데 개인이 국가의 유물을 가방에 담아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조유전 씨가 발굴단에 최초로 가담을 하게 된 것이에요. 어디서 보면 조유전 씨가 천마총에서부터 한 것처럼 되어있는데 아니에요.

이강근 「발굴이야기」란 책에서 보았어요.

김동현 그래요. 「발굴이야기」란 책에서도 경주 발굴 다 한 것처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1980년도가 되어서 내가 일본 유학을 가게 되면서 조유전 씨가

발굴 단장이 되었어요.

● 황룡사지 두 번의 조사

김동현 황룡사지는 최초로 지표조사를 한 것이 1930년대에 후지시마 가이지로 박사가 한 것이지요. 발굴은 아니고 지표조사 식으로 하고 가람배치를 그린 것인데 우리는 그대로 믿었지요. 삼금당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중문-탑-금당-강당, 그것을 둘러싼 회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방형으로 배치도를 그렸고, 그때 동문, 서문도 그렸지요. 발굴 착수할 때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조사는 이화여대에서 했는데 진홍섭 선생님이 학생들과 강당지의 일부를 했어요. 그때도 규모는 생각도 안 하고 독립강당만 발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 것이 1976년 이죠.

이왕기 이화여대에서 발굴할 때 팀장님은 누구였나요?

김동현 그때는 주로 이대 박물관과 사학과 학생들이 주로 했으니까 주관은 진홍섭 선생님이 하셨어요. 요즘처럼 팀장 제도도 없고, 진 선생님이 그전에 경주박물관장도 하셨고 해서 황룡사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탐지, 중문지 쪽에 집들이 꼭 차 있어서 진 선생님이 발굴할 때도 집들은 해체 안 한 상태에서 강당지를 발굴하셨어요. 우리가 할 때는 국가에서 땅을 매입해서 집 주인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철거 후에 학술발굴을 본격적으로 했지요.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1976년에 시작해서 나는 1980년까지 있었어요.

❁ 중심각 발굴 후 일본 유학

김동현 그리고 1980년에 동경대학으로 갔지요. 황룡사 발굴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회랑 안의 중심각만 단장을 하면서 발굴을 하고 동경대학으로 갔어요. 그 외곽 중문 바깥쪽, 강당 뒤쪽, 동서회랑의 좌우측 등은 하지 않고 회랑 안쪽만 마쳤을 때이지요. 내 후임으로 안압지 발굴 때 부단장이던 조유전 씨가 단장직을 맡았고, 나는 완전히 손을 뗐지요.

지금 발굴보고서는 내가 발굴했던 내용만 나와 있어요. 조유전 씨가 발굴했던 외곽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보고서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심만 알고 그 외곽은 전혀 모르지요. 외곽에서도 유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잘못하면 앞으로 안 나오게 생겼어요. 벌써 28년이나 지난 일인데, 당시 단장이었던 조유전 씨의 책임도 있어요. 거기까지 다 나와야만 황룡사의 제대로 된 보고서라고 생각해요.

내가 거기에 1980년까지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사후 경주를 정비하고 개발하고 발굴했던 자료들을 모아서 정기영 씨가 관여해서 책을 냈어요.

황룡사지 발굴 전 고사 슬라이드-504



황룡사 발굴현장 슬라이드-514



제목이 「그래도 우리는 신명바쳐 일했다」. 그 책을 보면 경주개발내용이 다 나오지요. 나도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별로 원고를 썼지요. 나도 글을 썼어요. 거기 보면 당시의 경주개발에 관한 재미있는 내용들이 다 실려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시절 경주개발사업소 소장¹²⁴⁾ 지시에 의해 경주의 개발, 부분적 발굴 및 정비가 되었어요. 시장도 그 사람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어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점은 약간 잘못된 점이 없지 않지요.

❁ 후지시마 박사의 오류

김동현 후지시마 박사의 복원도가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지요. 그때는 동금당, 서금당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동금당, 서금당 사이에서 회랑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회랑자리가 본격적인 황룡사가 되기 이전의 건물터였다고 보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사찰이나, 아니면 문헌에 나오는 궁터냐 아직도 확인이 안 된 상태죠. 익랑 자리가 나왔고, 여기에 서금당지, 동금당지가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죠.

익랑은 익랑인데, 황룡사를 지으면서 이 익랑과 관련된 건물지들이 다 파괴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판축한 깊이가 거의 3m 가까이 되니까, 옛 건물터가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단부까지 통째로 들어낸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이 속을 판축한 것이죠.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여러 켜로 다져서 판축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원래 있던 건물터가 금당을 지으면서 다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지요.

124) 김학소 소장

황룡사는 탑 완공을 기준으로 553년부터 645년까지 92년이 걸렸는데 그 사이 문헌을 보면 ‘장우 완성’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된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장우가 뭔지 몰라요. 담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회랑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이것이 안으로 가는 회랑인지 밖으로 가는 담장인지 집 ‘우(宇)’자라는 것 때문에 해석이 애매하죠.

❁ 황룡사 연구의 과제

김동현 건물들이 계속 지어지고 마지막에 645년에 탑이 완성이 된 건지, 중간에 일정기간 끊겼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통해서 해석을 해봐야 되죠. 왜 92년간 공사를 했는지, 왜 중간에 확장을 했는지, 사회적으로 신라의 이러한 여건이 무엇 때문인지. 내가 쓴 보고서나 책에서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분석해서 연대순으로 썼는데 아직도 문제를 못 풀어서 깨름직한 것이 많아요. 나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에요. 앞으로 연구의 대상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써야 해요.

그리고 서금당, 동금당에 뭘 안치했는지도 잘 몰라요. 좌대가 없으니까 대강 짐작도 할 수 없지요. 여기에는 그림을 붙였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회랑이 가다가 뚝 끊겼는데 이유는 뭔지. 건물들이 있어서 본격적인 발굴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또 하나 황룡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거기가 구황동인데, 한 설에 의하면 ‘황’자 들어가는 절이 9개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황룡사를 중심으로 분황사, 황복사, 그리고 옆에도 그렇고 앞에도 탑의 흔적이 있는데 이것의 성격이 그것일 수도 있지요. 9개의 절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튼 중심곽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후지시마 박사의 설이 무너진 거지

요. 후에 만났을 때 후지시마 박사에게 논문의 수치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조교들이 해서 잘 모른다면서 둘러대었어요. 황룡사 발굴조사는 일본에 안 갔으면 끝까지 다 했을 거예요. 갔다 와서도 거기에는 관여 안 하고 보존과학실 임무에만 충실했어요.

● 진단구와 귀걸이

김동현 당시 발굴한 것 중 큰 것은 불국사, 천마총, 황남대총, 안압지, 황룡사지 이렇게 5군데가 있고 총 12년 걸렸어요. 황룡사지 탑의 심초석을 들어낼 때, 안전하게 들어 올리려고 포항제철로부터 100톤짜리 크레인을 빌리기도 했죠. 들어내니까 유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진단구¹²⁵⁾가 나오고 당나라의 백자 항아리도 나왔어요. 특히 귀걸이가 많이 나왔어요. 귀걸이는

125) 鎮壇具

기자회견에서 황룡사 치미 설명(1983) 개인-7-53 황룡사 치미 슬라이드-3805



무덤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용으로도 많이 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요. 아마 진단의식을 할 때 그 당시 참석했던 귀족이나 왕족이 귀에서 빼서 넣은 것 같아요. 요즘도 바로 끼고 있던 반지를 넣고 하죠. 귀걸이가 장례용이 아니라 실용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진단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서금당, 동금당에서도 진단구가 나왔어요. 진단이라는 것은 단을 진정, 안정시킨다는 의식을 하는 것이며 신도들이 의식할 때 걸쳤던 것을 거기다 넣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당나라와 고구려의 관계도 알 수도 있게 되었죠. 심초조사를 마쳤는데 그 밑으로 진단구 외에는 나온 것은 없었어요.

❁ 황룡사 등 복원사업에 관해

이왕기 문화재청이랑 경주시가 황룡사를 복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동현 황룡사는 복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학설이 분분하기 때문에 복원이 말이 복원이지 쉽지 않을 거예요. 쌍봉사 대웅전이 그랬지요. 옛날 유적을 중창이나 복원을 안했다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중요한 사찰들은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다 세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중창도 하고 복원도 해야 사람들이 연구하게 되고, 훗날 국보가 될 수도 있죠.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유동성 있는 생각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삼국에서 제일로 꼽을 수 있는 고구려 정릉사, 신라 황룡사, 백제 미륵사, 이렇게 3곳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왕기 부여의 정림사를 두고 그런 말이 있어요.

김동현 부여의 정림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는 불교가 국교이던 시절이니 일본의 코쿠분지(國分寺)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지시를 내리면 전국 사찰에 하달되는 지금의 조계종 같은. 그런 절은 왕궁 앞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륵사나 제석사를 그렇게 보기도 하지요. 똑같이는 못할 테니까 복원이라기보다는 중창에 가깝겠죠. 황룡사도 지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복원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도면도 없는 상태니까. 도면이 있는 쌍봉사 대웅전도 불타서 복원했는데 똑같지 않다고 하거든요. 황룡사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할 이야기 거리가 많아요.

❁ 황룡사 발굴의 의미

김동현 황룡사 발굴이 의미가 있는 것은 과거의 설을 없애고 새로운 설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소위 신라시대에 삼금당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그래서 분황사도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분황사도 삼금당인데 배치 약간 달라서 이것은 이렇게 마주보면서 사각형으로 배치되어있고 탑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모양으로 품자형의 삼금당이죠.

이왕기 미륵사의 사찰도 품자형이라는 말은 어떤가요?

김동현 분황사는 본금당과 좌우금당이 품자라는 것이고, 미륵사는 전체배치가 품자라는 것이지요. 미륵사는 동원, 서원이 나뉘져 있고 뒤에 강당이 공동구역으로 있어 품자 모양이에요. 분황사는 삼금당이 품자형이고요.

1979

덴마크 국립박물관 한국실 재설계

● 덴마크 국립박물관 설계 변경

김동현 일본으로 유학가기 전에 1979년에 구라파를 다녀왔어요. 이태리에서 이크롬(ICCROM) 회의가 있었는데 이태녕¹²⁶⁾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갔어요.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이태녕 교수님은 회의가 끝나고 귀국을 하시고 나는 덴마크로 갔어요. 간 김에 이종철 씨를 만나러 갔지요. 덴마크 유학 중이었어요. 그래서 덴마크로 갔는데 거기 마침 장경호 씨도 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파견된 공보관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코펜하겐에 있는 덴마크 국립박물관 한국실에 사랑방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보러 온 한국 사람들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하니 한 번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집은 우리나라 전통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장치라든지 문살이라든지 내용물들이 일본적인 것이 많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온 김에 그것을 고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열흘 동안 출장을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자기가 대사관을 통해서 외무부를 거쳐 문화재관리국에 연락을 해놓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어요.

김동욱 그 공보관이 말인가요?

김동현 그래요.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나요. 그러니까 걱정을 말고 해달라고 해서 박물관에 가서 실측을 하고 이종철 씨 방에서 같이 지내면서 제도판

126) 李泰寧, 1924- :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

을 하나 마련해서 재설계를 했어요. 현장실측을 해서 다시 설계하는데 약 20일이 걸렸어요. 공보관이 한 달을 연장해 놓았으니 나머지 기간은 좀 쉬었다 가라고 해서 스웨덴도 가고 네덜란드도 가고 몇 군데 다녔지요. 장경호 씨도 마침 6개월인가 파견 근무를 마칠 때여서 같이 귀국하기로 하고 파리, 그리스, 터키 여기저기 돌아다녔지요.

● 출장 중 행방불명 헤프닝

김동현 마지막에 대만에서 귀국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비행기가 또 고장이 나서 공보관이 연기한 날보다 하루 늦게 들어오게 됐어요.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고 김포로 들어왔는데 직원이 한 명 나와 있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해서 들어보니 그 대사관에서 제대로 연락을 취하지 않아서 행방불명으로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노르웨이에서 교사 한 명이 북한으로 넘어간 직후여서 특히 더 그랬지요. 중앙정보부에서 사방으로 나를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으니 틀림없이 월북한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도착한 것이 일요일이어서 소장 댁으로 직접 갔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열흘 출장을 간 사람이 한 달을 늦게 왔으니 난리가 난 셈이지요. 다음날 문화재관리국에 나갔더니 당장 장관실로 가라고 했어요. 그때 김성진¹²⁷⁾ 장관이었어요. 도착해서 장관을 만났더니 나간 김에 배짱 좋게 잘 보고 왔으며 언제 공무원이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고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장관이 아주 통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 장관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놀다 온 것이 아니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장

127) 金聖鎭, 1931-2009 : 서울고등학교, 고려대 졸업, 워싱턴에서 특파원 지냄

관이 잘했다고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했지요.

이경미 그럼 전후사정을 듣기도 전에 그렇게 말한 것인가요?

김동현 그래요. 보자마자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들었지요. 그렇게 장관을 만나고 돌아왔으니 다른 직원들이 저 사람 이제 사표 쓰게 생겼다고 생각했을 텐데 기가 막히는 거죠. 장관이 그렇게 말했고, 그때 문공부 총무과장도 그 소식을 당연히 알고 하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는 할 말이 없지요. 잘렸으면 했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희희낙락하고 오니까 기분들 나빴을 거예요. 혼나고 와야 하는데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무마가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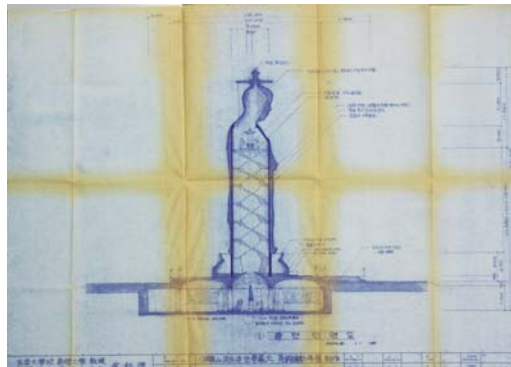
1980

법주사 청동대불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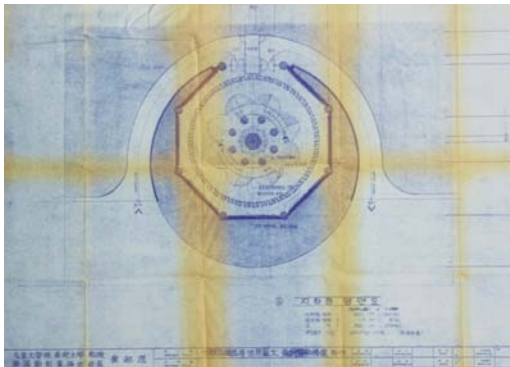
김동현 축석루, 남산 팔각정, 경천사 복원도 다음에 큰 것을 한 것이 법주사 청동대불이에요. 전체 기본계획을 최기원¹²⁸⁾ 교수가 맡았는데, 조각하시는 분이니까 설계가 제대로 안되었던 모양이에요. 월탄 스님이 나에게 그것을 봐 달라고 하셨죠. 도면을 보니까 램프처럼 해서 자동차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식으로 지하층 법당을 설계해놔서 고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어요. 외관도 안 좋아서 내가 거의 다시 설계하다시피 했어요. 법당을 지하에 넣고 싶다고 그래서 설계는 내가 다시 하고, 허가는 그분이 내고 그랬어요. 본격적인 설계를 한 것이지요.

128) 홍익대 교수, 조각가, 모자상 많이 하신 분

법주사 청동미륵불상 중단면도 바인더-256(51)-3



법주사 청동미륵불상 지하층 평면도 바인더-256(51)-3



김동욱 상하층으로 되어있으니까 면적은 꽤 되겠는데요?

김동현 기단 밑으로 지하층하고 법당, 이렇게 2층이죠. 부처님 위에 돔이 있는데 거기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쓰자고 주장했어요. 천주교에서나 쓰는 것 아니냐며 스님들이 많이 반대했지만 설득해서 김철중¹²⁹⁾ 씨에게 시공을 맡겼지요. 최초로 불전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썼을 거예요. 비천 조각 부분을 스테인드글라스로 했어요. 스님들이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잘 되었다고 칭찬을 받았지요. 처음에는 월탄 스님도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고 나쁘면 뜯겠다고 설득을 했지요.

입구에서 들어가는 계단이 있고, 위층에서 법당을 보면 막혀있는데, 유리를 통해 내부가 보여요. 유리에 에칭으로 부처님을 새겨 넣고 밑이 들여다보이게 했죠. 밑으로 내려가면 전시관이랑 법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부처님 앞쪽을 넓히기 위해 중심을 가운데에 안 두고 뒤로 물려서

129) 金哲中 : 건국대학교 졸업, 서교동 혹은 동교동에서 선대부터 스테인드글라스 회사 운영, 지금은 보수설계도 함



두었지요. 팔각 평면으로 되어있어요. 기둥은 석굴암을 모방을 해서 둘러고 그 안에 반가사유상을 넣었는데, 그 반가사유상은 돌아가신 한병삼 씨의 의견이었어요.

금동 다루는 조각은 신광호¹³⁰⁾ 씨가 했어요. 그 아버지가 원래 콘크리트 불상을 보수하신 신상균 선생이고, 경천사 탑 깨진 것도 경복궁에 세울 때 이분이 콘크리트로 조각한 분이에요. 돌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지축에서 석조각 공장을 하는 김경식¹³¹⁾ 씨가 했어요. 창 같은 것은 하이캐스트하는 윤의중¹³²⁾ 씨가 했어요. 석조라서 창문틀이라든지 장식 같은 것을 하이캐스트로 했지요. 그 사람들이랑은 끝나고 난 뒤에도 한 15~20년을 1년에 3~4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랬어요.

전기시설도 많이 들어갔는데 전기 시공한 그 친구가 한양대 전기과 출

130) 신상균 선생님 아들

131) 金炅植

132) 尹義中

신이라며, 정영훈이란 사람. 그 친구가 “선배님, 노후를 생각해서 상가를 하나 분양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3백만 원을 달라고 해서 줬지요. 교대 옆에 학원 빌딩 위에 매점을 자기가 할 것인데 나한테 분양해 주겠다고 했어요. 세가 꽤 될 거라면서. 그래서 믿고 있었지요. 공사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소식이 없었어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한 층 더 증축하려고 준 공계를 안냈다고 하는데, 이상해서 집사람과 직접 현장을 가보니 건물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자꾸만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알아보니 이것이 사기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빌딩의 전기공사를 했는데 그런 것을 미끼로 사기 친 것이예요. 그래서 내가 급하다고 하면서 우선 백만 원씩 세 번에 걸쳐 빌려달라고 했더니 꺾 주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사이에 다 받아냈어요. 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청동불상에 같이 공사 참여했던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친 것이예요.

이경미 그때가 언제 때였나요?

김동현 1980년대 초반일 거예요.

청동대불 머리 슬라이드-13359



법주사 청동대불 손 슬라이드-12903



1980-1981

동경대 유학

● 동경대 건축학과의 학풍

김동현 일본에서도 이야기 거리가 많이 있지요. 황룡사 자료도 가져가서 일본사람들에게 소개도 하고 일본에는 연구회가 굉장히 많은데 자유롭게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전문적 장소도 있고, 그런 교수회관 같은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서 좀 더 교수의 연구 및 세미나 참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일본에 있을 때는 동경대학의 이나가키 에이조¹³³⁾ 교수님 밑에 있었는데, 학문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곳은 과도서실이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정년 퇴임 교수들이 대부분의 책들을 학교에 기증하고 나가요. 그것을 모아서 도서관을 운영해요. 또 한 가지는 동경대 교수들이 학술용역을 많이 받는데, 대학원생 중에서 팀장을 정하고 그 사람에게 과제를 주는 거예요. 받은 예산은 사무조교가 알아서 하고 교수는 일체 관여하지 않아요. 교수마다 사무조교와 연구조교가 있어요. 강의 들어갈 때는 연구조교가 알아서 자료준비를 다 해줘요.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요. 팀장이 책, 문구 같은 필요한 것들을 살 때 사무조교가 알아서 경비지출을 하죠. 이때 산 책 들은 나중에 도서관에 남게 되고, 교수가 깔끔하게 연구만을 할 수 있는 체제라고 느꼈어요.

내가 갔을 때, 오타 히로타로¹³⁴⁾ 교수가 정년을 했는데 그분 연구실에는 명패가 그대로 붙어있었어요. 그 방이 원래는 후지시마 선생님 방인데 그분 명패도 그대로 있고요. 명패가 양면 인데, 앞에 흰 글씨는 방에 있

133) 稻垣榮三, 1926-2001

134) 太田博太郎, 1912-2007

다는 뜻이고 뒤쪽은 빨간 글씨로 없다는 뜻이었어요. 빨간색으로 명패가 돌려져 있었지요.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오타 선생님 옷장, 책장 등이 그대로 있었어요.

스즈키 히로유키¹³⁵⁾라는 사람이 오타 선생님 후임인데, 조교수가 됐는데도 선생님 자리는 안 쓰고 조교 자리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오타 선생님 계실 때 김정기 선생 논문 심부름으로 자주 다녀와서 알지요. 퇴직하셨는데도 가끔 찾아와서 예전처럼 본인 자리에 앉아서 책도 보시고 글도 쓰시고 해요. 그러면 스즈키 선생은 조교수일지라도 그때 조교처럼 선생님의 심부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했어요.

김동욱 전반적인 일본 분위기가 그렇죠.

김동현 전제국가 같았어요. 특히 학교나 공무원이 아직도 그렇죠. 그만큼 교수가 권위가 있기도 하고, 학교뿐 아니라 인생살이에서도 선생과 제자로서의 관계가 유지되기도 해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분위기지요. 그래서 더 기강이 잘 잡혀있는 것 같았어요. 스즈키 선생 방에 있던 사람 하나는 결국 그만 두었지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안했다가 열외가 된 것 같아요. 또 놀란 것이 일본에 있을 때 사찰을 많이 다녔는데, 내가 짠 스케줄을 이나가키 선생께 보여드리면 자기 명함에 잘 부탁한다고 적어서 주셨어요. 절에 가서 그 명함을 내밀면 일반인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곳까지 다 보여줬어요. 동경대학의 교수라고 하면 믿어주는 것 아닐까, 사회의 질서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하는 것을 유학 중에 많이 느꼈어요.

135) 鈴木博之, 1945-2012

❁ 학과도서관실 운영

김동현 내가 연세대 김성우¹³⁶⁾ 교수한테도 건축과자료실을 만들라고 했지요. 그 래서 책들도 줬는데 관리 때문인지 그 도서를 중앙도서관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중요도서는 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 학생들이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강근 오사카대(大阪大) 미술사학과를 갔는데, 거기는 일본미술사학과, 동양미술 사학과, 서양미술사학과 3개 과가 있는데 과도서관이 각각 3개가 있었습 니다. 메이지유신 때부터 최근의 신간까지 전공서적만 정리돼 있었어요.

김동현 세키노¹³⁷⁾ 박사 책까지 있으니까, 그 분의 개인물건도 있고, 야장까지, 세 키노 씨가 야장에 걸러링한 그림도 전시돼 있어서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했어요.

동양문고에 황수영 선생님 심부름으로 여러 번 갔었는데, 규모는 작지 만 동양관계의 자료들이 아주 많았죠. 문고라고 해서 책방인 줄 알았는데 도서관이더라고요. 한국과 북한자료까지 다 있었는데 해방이후 한국 자료가 북한자료보다 적더라고요. 북한 민속자료 등이 대부분 거기 있고 만약 없는 것이 있으면 어느 곳에서 지금 보관 중인지까지 표시해 놨더라고요.

내가 건국대에서 강의할 때, 보니까 매년 똑같은 자료를 카피하더라고요. 그래 카피한 책을 학교에 두라고 했더니 학교에 보관할 곳이 없대요. 일본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 갔을 때는 왜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오는 사람마다 복사를 하느냐는 말도 들었어요.

136) 金聖雨

137) 關野貞, 1868-1935

❁ 이나가키 에이조 교수

김동현 이나가키 교수는 신사건축이 전공이기 때문에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전공자를 소개시켜 주곤 했어요.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오세탁¹³⁸⁾ 교수가 동경대에 같이 있었는데,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이나가키 교수님께 여쭙보러 갔더니 그 분야 전문가라면서 아사히(朝日) 신문 기사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찾아가보니 기사실이 아니고 거의 교수연구실과 비슷했어요. 나중에는 츠크바 대학 교수로 갔지요. 기자인데 박스 기사를 한 달에 한 번만 쓰면 된다고 들었어요. 1년에 12개만 쓰면 된다고. 기사가 거의 논문 수준이었죠.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왕기 일본에 계실 때 발굴 현장에도 계셨는지요?

김동현 1970년에 나라 있을 때는 발굴현장도 갔지만 동경대에서는 시간도 없었고 이나가키 교수가 발굴도 하지 않으셨고요.

❁ 홍익대 대학원 진학

김동현 이종철 씨가 갑자기 내일 홍익대학교에 가서 시험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다 접수해 놓았으니 가서 시험을 보래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온 좋게 홍익대 대학원(1977~1979)에 가게 됐어요. 이종철 씨가 김홍식¹³⁹⁾ 교수에게 부탁해서 나도 모르게 서류를 다 작성해서 접수해 놓았어요. 얼떨결에 시험을 봐서 엉망으로 봤을 거예요. 당시 건축학과

138) 충북대 법학과 교수

139) 金鴻植

학과장이 윤도근¹⁴⁰⁾ 교수님 때였어요. 박언곤¹⁴¹⁾ 교수도 있을 때인데 제발 강의에 나오지 말라고 해서 몇 번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때 이종철 씨가 그렇게 해줘서 망정이지 그 다음에는 더 바빠져서 아예 생각도 못할 뻔 했어요.

1982

제암리 발굴 외 기타 설계작업

❁ 제암리 발굴

김동현 뼈 조각들을 찾아 모아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화성에 있는 것인데 지금은 유적지예요. 거기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강 목사라는 분의 교회만 있었죠. 그리고 당시의 생존자 한 분이 살아 계셨어요. 그 분이 전순례 할머니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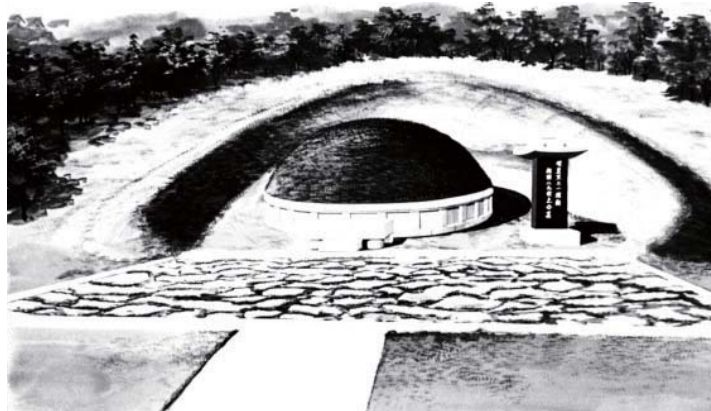
국장이 본인 차까지 내주면서 서울서 현장까지 출퇴근하게 해줬어요. 연구소 사람들 불만이 있었지만, 국장은 김동현이를 믿는다며 내가 가서 해야 제대로 될 거라고 했죠. 장관보고서 쓸 때, 국회답변자료를 쓸 때도 항상 나를 데리고 하셨어요. 난 붙잡혀서 매일 늦게까지 일했죠.

제암리 발굴에도 일화가 많아요. 허허벌판 같은 곳을 전순례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기억나는 곳을 물어보고 200m 되는 트렌치를 짝 설치했어요.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유골을 찾아냈지요. 10여구 정도. 그리고 기린표 맥주병, 도장 같은 게 발굴되고, 성과가 있으니까 국장이 더욱 격려해 주셨어요. 현장에서 퇴근하면 유 국장이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다렸다가 양주도 사주고, 자기 차를 내주며 타라하고.

140) 尹道根

141) 朴彦坤

제암리 계획안 바인더-497(1)-1



제암리 유골발견지 약도 바인더-497(18)-3



장헌덕 교수와 비밀 작업

김동현 그때 장헌덕¹⁴²⁾ 씨가 조수로 나를 따라 다녔지요. 그 사람 굉장히 부지런하고 지금도 나한테 잘하지요. 장헌덕 씨가 전통문화대학교 간다고 할 때 내가 심사위원이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가 틀림없이 잘할 수 있다고 적극 추천을 해서인지 교수가 되었어요.

이왕기 그때 일본에서 교과서 왜곡이 있는 후라 그것을 더욱 부각시키려고 청와대에서 제암리 발굴에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믿을 수 있는 분한테 시킨 것 같습니다.

김동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허허벌판에서 유적 찾는 것도 아니고 유골 찾는 것이라. 트렌치 200m 짜리를 10개소에 설치했어요. 요즘 가서 보니 교회가 완전 성역이 되었더라고요. 그 밖에 비공식적인 발굴도 많이 했

142) 張憲德

어요.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로 비밀리에 해야 하는 발굴 작업들도 많
이 했지요. 대통령 지시로 창덕궁에서 아무도 모르게 발굴도 했어요. 고
종이 창덕궁에서 덕수궁으로 이어하면서 묻고 간 보물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지관들을 데리고 보물을 찾기도 했지요.

민비시해 벽화 보존각 설계 등

김동욱 명성황후 관련한 것이 처음 설계하신 것 아닌가요?

김동현 처음에 한 것은 아니고 일본 갔다 와서 유운소 국장 있을 때, 청동대불하
기 전이죠. 유운소 국장이 민비시해 현장인 경복궁 안의 건청궁에 가자
고 해서 갔어요. 민비시해 벽화를 보존하는데 그 보존각을 지어야 한다
고 그것을 설계를 하라고 했어요. 설계사무소도 많은데 왜 나한테 하라
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 국장이 특별히 부탁하는 일이라 했죠. 3칸 건물
로 퇴칸을 두고 난간을 돌리고 해서 했지요.

이런 것은 여러 개 했어요. 경주 무열왕릉 앞에 김양묘비가 있는데 그 비
각도 내가 신라시대 건물로 설계했죠.

그리고 종로의 보신각도 내가 기본설계를 했어요. 새한건축의 이응묵¹⁴³⁾
씨가 맡았는데 기본설계는 내가 하고 거기서는 도면만 그려줬죠. 그걸 왜
내가 했냐하면, 내가 종각 유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종각 유적이 지금 종
각 지하철역 내려가는 곳에 있었어요. 지금 지표레벨에서 3.5m 정도 내
려가는데, 지금 영풍문고 입구로 내려가는 길 오른쪽에 있었어요. 아주 제
대로 다 있었어요. 그때 맹인재 선생하고 나하고 둘이서 유적조사에 관여

143) 李應默

를 했는데, 지하철 본부에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처음에 자경당 옆에 옮겼다가 민속박물관 옆으로 가져갔어요. 실측은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서울시에서 종각 짓는 것을 부탁해서 현재 보신각을 그렸어요. 포와 난간을 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보신각이죠.

김기주 보신각은 예전의 주칸이 남아 있는 것인가요?

김동현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이죠.

김기주 그럼 굉장히 큰 건물이네요?

김동현 초석이 2m 이상으로 굉장히 컸어요.

김동현 그리고 삼각산 도선사 청담 스님 부도를 돌아가시자마자 설계했어요. 거기 가보면 부도가 있어요. 그 다음은 선산 도리사 사리탑과 배전, 이렇게 두 개를 설계했지요. 법등 스님¹⁴⁴⁾이 계실 때 했어요. 원래 삼성건축의 장기인 선생이 설계를 했는데 콘크리트로 속을 채우고 돌을 붙여서 했더니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모양이 안 좋아졌죠. 법등 스님이 주지로 계실 때 의뢰를 하셔서 통돌로 다시 설계해드리고, 배전은 수덕사 대웅전을 약간 모방을 해서 통일대전, 적멸보궁처럼 통유리로 했지요.

이경미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 것인가요?

144) 法燈 : 총무원의회 의장

김동현 글썄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현장에 가서 무슨 스타일로 할지 스케치를 해서 스님에게 보여드리고 맘에 들면 그렇게 하고 하는 식이지요. 도리사는 내가 직접 했어요.

이경미 스케치하신 것은 가지고 계신지요?

김동현 어디 있긴 있을 텐데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잘 모아둘 걸 그랬어요. 지금 자료가 전부 연세대학에 가 있어요. 거기 파일이 있는데 그런데 어디 끼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준 도서가 중앙도서관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파일은 역사이론연구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종 파일은 유기원 씨가 연구실 쪽으로 옮겼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여러 조각조각의 자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김기주 과에서 슬라이드랑 파일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동현 그 다음에, 홍지문의 기본설계를 내가 했어요. 세검정의 정자도 내가 했지요. 원래 장기인 선생님이 그것을 맡으셨는데 기본설계를 나한테 의뢰해서 옛날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어서 그걸 참조해서 내가 했죠. 그 때 설계비도 안 받고 장 선생님에게 또 다른 덕택을 내가 보기도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한 것이지요.

❶ 코토 고려사

김동현 그리고 일본 코토(京都)에 고려사라는 절이 있어요. 보현사는 오사카(大阪)에 있는데, 원래는 보현사 주지스님이 내가 일본 나라(奈良)에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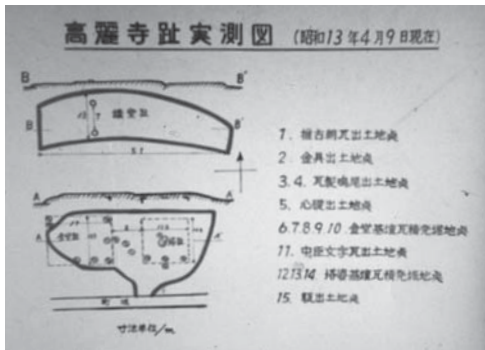
당시 그곳이 한국 절이니까 1주일에 한 번씩 그 근처의 츠루하시¹⁴⁵⁾에 반찬 사러 가면서 자주 들르곤 했어요. 그 때 홍윤식 선생이 거기 있었어요. 그 때 교토불교대학에서 강의를 받을 때죠. 그곳에서 그 양반이 아르바이트식으로 보현사 사무장을 했죠. 거기 한국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사람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여기서 사먹고 그런 데죠. 거기서 홍 선생하고 족발이 제일 싸니까 사 먹고 그랬지요.

그 때 태연¹⁴⁶⁾ 스님이 나와 동갑인데 아주 우리를 좋아해 줬어요. 가기만 하면 구경도 시켜주고 그랬죠. 보살님들이 또 츠루하시 근처에 많이 있으니까 보살님들과도 친하게 돼서 이집 저집에서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태연 스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태연 스님이 교토에 고려사라는 사지가 평지에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땅을 사서 고려사를 복원한다는 의미로 나에게 설계를 맡겼어요. 사지는 밑에 있고 그 근접한 산지에다 땅을 한 2만 평 정도를 샀어요.

145) 鶴橋

146) 泰然

고려사지 실측도 슬라이드-1258



고려사 주지스님과 함께 슬라이드-1246



그 때 나는 이미 한국에 와 있는데 제대로 된 한국적인 사찰 설계를 부탁 하셨죠.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강릉에서 설계사무소하고 있는 이배영 씨가 그때 설계사무소(니마건축)할 때인데, 내가 여기에 기본 설계를 주고 설계를 했어요. 돈 많이 들었어요. 불국사 같은 정도 규모의 설계였으니까. 200장 정도 전지에 제대로 도면을 그린 것이지요. 태연 스님이 큰 절을 하려다 보니까 큰스님이 필요해서 능가 스님, 지금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분을 초빙해서 거기 관장, 주지를 시켰어요. 자기는 그 밑에서 실무를 보고, 능가 스님이 보현사에 가서 관장으로서 일을 추진 하기 위해서 모금도 해야 하고, 선전도 해야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능가 스님이 있을 때 이것을 했죠.

그런데 이게 시주도 잘 안되고, 모금이 잘 안돼서 못했어요. 그래서 설계비를 한 푼도 못 받았죠. 그러니 이배영 씨가 피해를 입었죠. 그렇게 일이 흐지부지 돼서 능가 스님이 신도들한테 불신을 얻게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몇 년 후에 처음에 설계된 것은 다 무시되고 거기다가 극락전인지 조사당인지 조그마한 불전을 만들었는데 다시 설계를 부탁 받아서 해드렸어요. 설계비도 없이 다시 또 해드렸지요.

건물은 일본 목수가 하고, 그래서 일본 냄새가 난다고 해요. 단청은 한국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해서 여기서 갔죠. 이름은 그대로 고려사로 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사찰 안에 납골당을 만들어서 그것을 분양을 하는데 교통은 좀 불편하지만 교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많은 압력도 받았지만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김동욱 제대로 했던 고려사는 무엇을 모델로 하셨는지요?

김동현 불국사를 모델로 해달라고 해서 회랑이 갖추어지고 탑이 있고 금당이 있고, 몇 달을 일했죠. 이배영 씨가 고생을 했지요. 태연 스님과는 아직도

인연을 갖고 있어요. 가끔 한국에 오시면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래요.

◎ 그밖의 설계작품

이왕기 부여의 것도 선생님께서...

김동현 그것은 설계만 했지 직접 관여는 안했어요. 백제 재현단지를
하는데 나보고 공궐을 맡으라고, 장경호 선생은 사찰을 맡았
지요. 용역을 받아서 나는 부분적으로 논문을 쓰고 도면을 그
려주고 했죠. 그게 책으로도 나왔죠.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쓰고 도면은 가상도면이지만 공궐의 배치, 건물의
기본적인 것을 그렸죠. 그때는 될 것으로 생각도 안하고 공무
원하면서 기본안만 한 것이죠.

이왕기 그 도면을 이용묵¹⁴⁷⁾ 소장이 받아서 계속 진행한 걸로 알고 있
는데요

김동현 그래요.

이왕기 정림사지 강당은 선생님께서 관여하신 것 아니지요?

김동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회의 때 자문의원으로 참여한 일이 있

147) 李應默

지요. 자문한 것은 그것 말고도 많이 했지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송광사 대웅전을 내가 설계는 안 했지만 그때 기억나는 것이 기둥을 낮게 했는데 벌써 치목이 되어 있더라구요.

김동욱 새 대웅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동현 그래요. 아자형¹⁴⁸⁾ 대웅전을 말하는 것이예요. 그때 신영훈 씨와 내가 관여를 했어요. 그때 현호¹⁴⁹⁾ 스님이 주지고 구산 스님이 그 위 조실 스님이었어요. 난 구산 스님한테 여러 가지 글도 많이 받았지요. 나는 중간에 그만두고, 신영훈 씨가 나머지는 다 했지만 설계하는 초창기에는 내가 관여를 했어요. 기둥이 짧게 돼서 이 기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기에 내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중초석을 한 것이지요.

거기 가보면 연꽃초석이 있고 그 다음으로 또 몰딩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그만큼 높인 것이죠. 초석에 연꽃을 위에 올리면 높이차를 커버할 수 있었어요. 나는 지금도 거기 가면 초석만 봐요. 오히려 이제는 의도적인 디자인처럼 됐지요.

김기주 그것은 육송으로 했는지요?

김동현 그것은 제대로 했어요. 나무를 가마솥에 찌서 사용했지요. 말하자면 훈증을 한 것이지요. 그때 현고 스님, 주지는 현호 스님이고 그 동생 격이 현고 스님이죠. 지금도 낙산사에 현고 스님이 관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148) 亞字形

149) 玄虎

1990

동화사 대불과 통일대전 설계

◎ 현장답사와 기본구상

김동현 청동대불이 끝나고 1년 정도 지나서 월탄 스님이 서의현 총무원장 스님을 소개했어요. 그게 노태우¹⁵⁰⁾ 대통령 때예요. 최광남¹⁵¹⁾ 씨가 세상을 떠난 해여서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1990년 7월 17에 대구 동화사에 갔어요. 통일 대불, 대전을 짓는다고 해서 서의현 스님과 비행기를 타고 함께 현장답사를 했어요. 현재 대불과 대전이 있는 곳이 당시에는 논밭 황무지였어요. 어디다 지을 것인지 위치를 정하고, 스케치를 하고, 사진을 찍고,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브리핑용으로 노 대통령에게 보여 줄 것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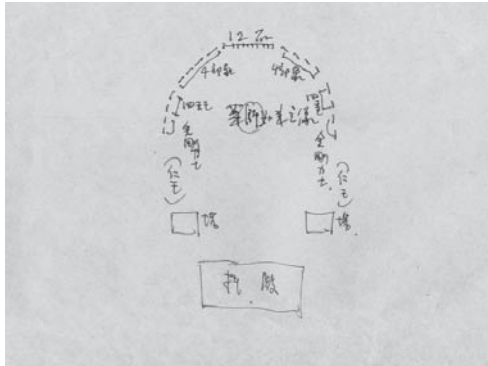
그때, 8월 초에 최광남 씨가 죽었어요. 목포처리장이 보존과학연구실 산 하였기에 문상을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최광남 씨는 나하고 친했던 사이라 꼭 가야만 했지요. 그래서 상가에 가서 문상을 하고 밤중에 병원 근처 여관에서 밤새워 계획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차트도 직접 만들고, 현장사진 붙이고 했어요. 그 차트가 노대통령에게 보고됐지요.

김동욱 그 뒤에 조각들이 이렇게 짝 있는?

김동현 그것은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대불과 통일대전만 있었어요. 그것도 지형을 안 버리려고 낙차를 이용해서 지었지요. 한쪽에서 5층으로 보이고 반대편에서는 단층으로 보이지요. 말하자면 배전이지요. 불상을 전 안에

150) 盧泰愚, 1932-

151) 崔光男 : 목포해양신안해저유물전시관 관장, 동경에대 석사



안 넣고, 통유리를 통해 대불이 보이도록 설계를 했지요. 겨울에도 거기서 예불을 올릴 수 있어요. 대전에 통유리를 사용한 것도 내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5칸 전부를 전부 통유리로 했어요. 들어가면 아늑하고 유리를 통해서 부처님이 보이게 했죠. 통유리 테두리에 에칭으로 보살화문을 조각해서 끼웠죠. 설계를 내가 직접 했어요.

김동욱 나중에 김태조 씨도 관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김동현 그건 나중 이야기죠. 내가 먼허증이 없으니까. 허가를 받으려니까 제일 편한 사람이 김태조 씨여서 부탁을 했어요.

 기본설계와 이남행 씨

김동욱 그때는 김태조 씨가 경주에서 우리건축 했을 때인가요?

김동현 그래요. 1990년도에 설계사무소 했을 때죠. 이남행 씨라고 있었는데 아주 재주꾼이었어요. 금성건축에 있었던 사람이죠. 내가 그 사람을 빼내서 도면 그리는 것을 시켰어요. 조계사 앞에 서의현 스님이 사무실을 하나 빌려줘서 그곳에서 일을 했죠. 그리고 범주사에서 같이 일한 박래일¹⁵²⁾ 씨도 같이 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남행 씨가 도면을 아주 잘 그렸어요. 속도도 빠르고 했죠. 금성건축에 양해를 구하고 이남행 씨를 빌려서 일을 했어요. 제가 설계비를 받을 수가 없어서 실비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죠.

그런데 서의현 스님이 돈을 배낭에 담아서 연구소사무실로 가져 오시곤 했죠. 그래서 내 입장이 난처했어요. 실장실은 2층 코너에 방이 따로 있었는데 스님이 사무실에 오셔서 여러 돈 봉투를 열어 정리하시는 바람에 가깝씩 결재 받으러 온 직원들이 깜작 놀라기도 했지요. 총무원장스님이 그런 일을 하니 이상하게 생각들 했죠.

돈을 그렇게 주시면 받자마자 이남행 씨를 불러서 주곤 했어요. 그때 쓴 돈이 9천8백만 원 정도 되요. 대불 설계했던 친구들이 동화사 출장도 자주가고 하니까 꽤 비용이 들었어요. 내가 거기서 쓴 것은 백만 원 정도 밖에 안 됐어요. 동화사 출장 갈 때 비용이 백만 원 정도였죠.

김동욱 기본설계를 선생님이 하신 것이니까 좀 챙기셔도 되는데 너무 안 챙기셨네요.

김동현 설계 기간이 6개월 정도였죠. 보통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줬으면 아마 3억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서류를 다 만들어서 제출했더니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라 그런지 허가도 금방 나왔죠. 문제는 김태조 씨한테 인정과

152) 朴來一

세로 세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김태조 씨는 한 폰도 안 받고 도장만 찍어
줬을 뿐인데 세금이 몇 천만 원이 나왔어요.

공무원 신분이라 내가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지금도 김태조 씨한테 미안
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교시설로 해서 대폭 세금을 감면받고, 그 세금
은 결국 의현 스님이 납부했죠. 통일대전 마당의 지하 세면실과 화장실
이 꽤 큰데, 김태조 씨한테 미안하니까 그 설계는 거기 줘야 한다고 해서
줬어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 불상 제작

이경미 불상은 무엇을 참고하셔서 디자인 하셨는지요?

김동현 불상 크기와 높이는 대전에서 볼 때의 시각을 생각해서 스케치를 하고,
그 그림을 가지고 진접에서 조각공으로 일하던 해성미술원의 김용섭¹⁵³⁾
씨라는 분한테 1/20 모형을 부탁했어요. 그 사람이 불상 조각하는 사람
인데 석가여래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나는 크기만 정해줬죠.
그걸 가지고 서의현 스님이 주도가 돼서 스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위쪽 비중을 크게 했어요. 도면으로 보면 가분수이
지만 길이가 기니까, 석굴암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했
지요. 몇 번의 수정 끝에 승인이 났어요. 박찬봉¹⁵⁴⁾ 씨가 모형을 보고 실
제 익산 쪽으로 돌을 구하러 다니고, 스님과 내가 함께 돌을 일일이 보고
선정했는데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153) 金龍變

154) 석공



돌이 부처님이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죠. 그렇게 많은 돌중에서 부처님이 되고 그 중에서 상호가 되는 것은 정말 하늘이 내린 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돌은 바닥에 깔고 어떤 돌은 부처님 상호가 되고, 석조각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돌 하나가 7~8m가 되는데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듬어서 세 토막을 맞추는 것도 그렇고 모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공이 끝날 때까지 관여를 했어요.

그때는 새벽 3시에도 불려 나갔어요. 서의현 스님한테 불려 나가고 그랬죠. 역촌동 살 때죠. 차가 핑크가 나서 택시 운전수를 불려 타이어를 갈아 끼고 갈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나도 열심히 했지만 서의현 스님도 대단하셨어요. 목에 혹이 이렇게 크게 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자마자 붓대를 한 채로 나오신 적도 있었죠. 의사가 일주일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현장을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서의현 스님이 유명하신 성철 큰스님의 행자였대요. 이 이야기를 해인사 스님한테 들었는데 성철스님이 의현이와는 싸울 생각 말라고 필

패한다고 하셨다고 해요. 성철 스님이 아프실 때, 약물을 약수로 끓여야 된다고 하시면서 해인사에서 10리쯤 가면 가야산에서 좋은 약수가 나오는데 새벽마다 그것을 구하러 가셨다고 해요. 천등번개가 치고 큰 비가 와도 구해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김철민 큰 3개의 조각은 어떻게 맞추는 것입니까?

김동현 그냥 맞추면 절대 안 맞아요. 맞추는 때 아래 위 부분의 속을 조금 약간 파서 건들거리지 않게 하고 맞추지요. 맞추면서 다듬고, 맞추면서 다듬고, 안 맞는 부분만 다듬으면 되죠. 그냥하면 어디가 어떻게 맞지 않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김철민 문양도 다 맞추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김동현 그것은 밑에서 다 재가지고 탁본을 떠서 맞춰 보고 하는 것이지요.

김동욱 그 주위의 병풍석 같은 것은 나중에 한 것이지요?

김동현 그것은 2차로 나중에 한 거예요. 별도로 발주해서 다른 조각가가 했어요.

❁ 서의현 스님

김동욱 서의현 스님이 통일 대불에 아주 매진을 하셨네요.

김동현 주변에서는 말이 많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정이

있다고 승적을 빼앗겼던 일이 있었지만요.

이경미 총무원장 하면서 임기를 채운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스님은 8년이나 하셨습니다.

김동현 그 일로 인해서 문경의 토굴로 들어가셨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사신다는 얘기를 듣고 3백만 원을 보낸 일이 있어요. 서의현 스님이 그만둔 후에도 여러 부속시설들을 마무리했는데, 다음에 오신 동화사 주지스님이 수고비로 주신 3백만 원을 그대로 의현 스님께 보낸 것이죠. 몇 년 후에 성불사로 가셨는데,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주하고 보은 사이 경계인 속리산의 상주 쪽에 새로 지은 절인데 거기에 가 계신다고 들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 곳에 계실 거예요.

1996-1998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김동현 1996년에 내가 소장이 됐지요. 장경호 소장이 그만둔 뒤 후임으로 몇 사람이 후보에 올랐어요. 그때 장관이 민주당의 여성장관 신낙균¹⁵⁵⁾ 씨가 오기 전의 일인데요. 소장이 된 다음 한 해가 지나니까 여성 장관이 오더라고요. 연구소에서 실장으로 지낼 때는 22년 동안 아주 편했어요. 책도 볼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소장이 되니까 도저히 내 공부는 할 수 없더라고요. 무슨 신문에 문화재 기사만, 텔레비에 문화재 뉴스만 나오면 불렀어요. 그렇게 겨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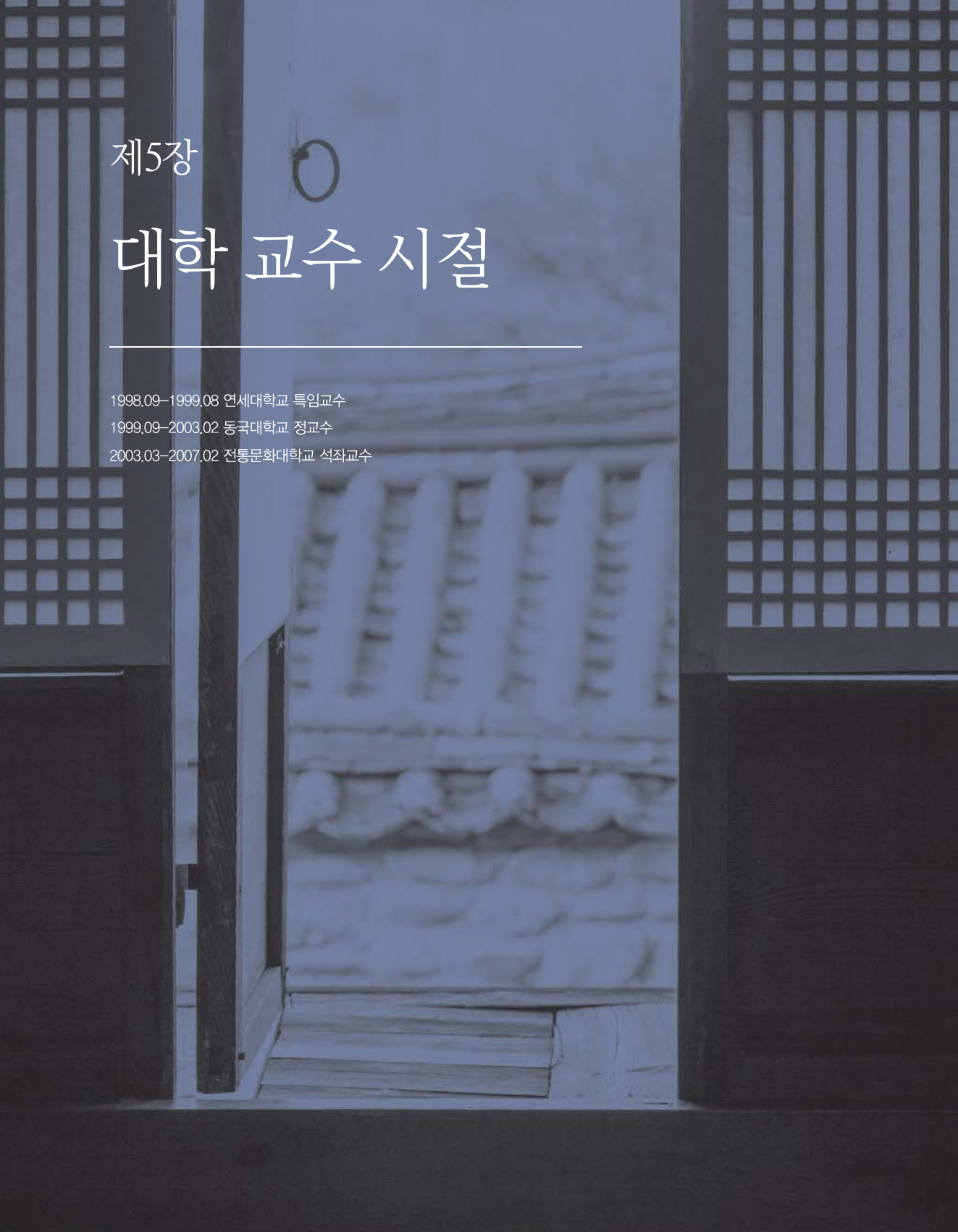
155) 申樂均

년을 넘겼어요. 여장관이 온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부르는데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지요. 소장 자리가 나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2년을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1년 7개월 정도 했을 거예요. 1998년 4월에 사표를 냈지요.

그래서 소장 때는 특별히 한 일은 없어요. 나는 원래 공무원 체질이 아니라 내 자신의 질서가 좀 문란했던 것 같아요. 소장이 되면 연구소를 장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도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만둔 다음에는 기분도 좋고 너무 후련했어요.

문화재연구소 퇴임(1998) 개인-7-45





제5장

대학 교수 시절

1998.09-1999.08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1999.09-2003.02 동국대학교 정교수

2003.03-2007.02 전통문화대학교 석좌교수

1998.09
2007.02

3년 반 있었는데 미술사학과에서 건축사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그 이후에는 건축 전공하는 학생들이 또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미술사학과에 건축사 전공하는 교수가 꼭 있어야 하는데 아쉽더라고요. 분야가 워낙 넓으니까 건축사는 별개라고 하는데 당연히 미술사학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기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 건축을 번갈아가면서 가르쳤어요.

05 대학 교수 시절

1998.09-1999.08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 연세대학교와 김성우 교수

김동현 아무 계획도 없이 그만뒀는데 연대 김성우 교수가 만나자고 해서 가보니 2학기부터 강의를 부탁하더군요. 계획 없이 그만둔 것인데 고마웠어요. 그래서 연세대학에 가게 되었지요.

이강근 그게 몇 년 때 일인지요?

김동현 1998년 4월에 그만두고 2학기 때부터 연세대학에 나갔으니까. 그래서 4월에 그만두고 8월까지 약 5개월을 자유롭게 놀면서 지냈지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가게 됐는데 정식교수는 아니고 특임교수로 갔어요. 연세대 건축공학과가 외부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나를 채용한 것 같아요. 큰 방을 요구했더니 4층에 연구실을 하나 마련해줬어요. 책장도 김성우 교수가 다 준비를 해주었지요. 가지고 있던 책들을 모두 옮겼어요. 책을 옮기면서 연세대에 기증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김성우 교수한테

도 미리 얘기했지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갔는데, 동국대 홍윤식¹⁵⁶⁾ 교수가 송석구 총장이 만나자한다고 연락을 했어요. 9월에 연세대 강의 시작하면서 만났는데, 송석구 총장이 동국대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찰이나 불교건축을 하시는 분이 연세대에 갈 수 있냐며 정교수로 채용할 테니 오라고 했어요. 이미 약속을 하고 발령이 나서 갈 수 없다고 했더니 그럼 1년만 있다가 오라고 했어요. 이것도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홍윤식 교수가 직접 김성우 교수한테 물어보라고 했지요. 김성우 교수도 동국대 대우가 더 좋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연세대에 1년만 있었어요.

그때 기억나는 것으로는, 연세대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과의 인연이라 생각해요. 그때 유기원 군, 정인중 군, 박선주 군이 있었죠. 졸업 후 민속박물관 이종철 관장한테 부탁해서 박선주 군을 취직 시키고, 금성에도 한 명 보내고, 그때 몇 명을 내가 취직 시켰어요. 김기주 교수는 우리 아들 선배라 친했어요. 아들이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나왔으니까. 책을 연세대에 기증하려 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지요. 동국대에 갈 줄 알았으면 동국대에 기증했을지도 모르죠.

고유섭의 건축미술사초고 출판

김동현 그때 고유섭¹⁵⁷⁾ 선생님 책을 낸 것이 기억이 나요. 「건축미술사초고」. 예전부터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옛날에는 프린트 물로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자도 많고 틀린 것도 많고 도면상태도 안 좋았어요. 황수영 선생님이 나중에 한 번 정리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동안은 바빴지

156) 洪潤植

157) 高裕燮, 1905-1944

만 학교로 가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황 선생님께 학교에 있는 동안 정리를 해 보겠다고 하니 좋아하셔요.

대원사와 얘기가 되서, 그때 아마 조은정¹⁵⁸⁾ 씨가 대원사의 편집장으로 있었을 때가 아닌가 해요. 원고가 되는대로 출판을 하기로 했지요. 원고를 정리를 하는데 원문이 많아서 내가 일일이 다 대조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문 대조는 이강근 교수한테 부탁해서 정리를 했지요. 글은 내가 수정하고, 고유섭 선생님이 쓰실 때 전부 일본용어로 쓰셨기 때문에 말이 이상한 것은 내가 우리말로 수정을 하고 그랬어요.

1999년이 건축문화의 해였는데, 그때 맞춰서 책을 내게 되었어요. 서문에도 썼죠. 1930년대에 쓰여져 이미 60년이 지난 원고지만, 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해서 한국 학자가 쓴 최초의 건축 관련 기록이기에 의의가 있다고 썼지요. 이강근 교수가 그때 수고를 많이 했어요. 원문 대조가 힘든 일이죠. 왕조실록, 고려사 등 대조해서 틀린 글자 다 고치고 했어요.

1999.09-2003.02

동국대학교 정교수

● 정교수 면접

김동현 그 다음 해에 동국대에 가게 됐는데, 총장이 오라고는 했지만 정식절차를 밟아야 해서 접수하고 서류심사 받고 면접도 보았어요. 면접이 또 혼자 보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충북대 김경표¹⁵⁹⁾ 교수가 들러리처럼 왔죠. 김경표 교수랑은 그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예요. 내막을 모르고 온 것이

158) 이강근 교수 부인

159) 金慶彪

있어요. 총장과 인사위원들이 면접을 보는데 한 교수가 대학졸업장에는 두 살 적은 것으로 되어있고 이력서에는 두 살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 이 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하기를 6.25 때 호적이 없어져서 가호적을 냈는데 전쟁통이다 보니 두 살을 줄여서 한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나중에 종로구청서 예전 호적을 찾아내서 내가 다시 원래의 호적으로 고치다 보니 나이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고 했지요. 법원 판결문까지 첨부해서 서류를 냈어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한 것이었죠. 보통 나이가 적은 채로 둘 텐데 원래 대로 두 살을 늘려서 이상하다고 생각들 하더라고요. 그 외는 묻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응모교수 중 최고령으로 발령을 받았지요.

❶ 최초의 건축사 강좌 개설

김동현 정교수로 발령을 받아서 미술사학과로 갔는데 그전에는 미술사학과에서 건축사가 개설된 적이 없었대요. 가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는 했지만

동국대 연구실에서(2001) 개인-7-148



동국대 정년퇴임 환송식(2003) 개인-8-6



전임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미술사학과에 건축사를 전공한 교수가 처음인 거죠. 사람들은 착각하고 내가 건축공학과로 간 줄 알았어요. 그 예가 김버들 군이었어요. 한양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건축공학과로 왔는데 내가 없어서 난감했대요. 그래도 나한테 줄곧 강의를 들었지요. 지도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학점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미술사학과에서 나한테 수업을 들었죠.

3년 반 있었는데 미술사학과에서 건축사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그 이후에는 건축 전공하는 학생들이 또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미술사학과에 건축사 전공하는 교수가 꼭 있어야 하는데 아쉽더라고요. 분야가 워낙 넓으니까 건축사는 별개라고 하는데 당연히 미술사학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기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 건축을 번갈아가면서 가르쳤어요. 강의교안이 이미 학교 가기 전에 만들어져 있어서 좀 편했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안 만드는데 3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1시간 강의를 준비하려면 6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연구소에 있을 때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해서, 중국, 일본, 한국건축사 강의 자료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지요. 그래서 상당히 편했어요.

강의노트

김동욱 대한건축학회에서 동양건축사도집도 만드신 일이 있으셨고, 도면자료도 이미 다 정리하신 게 있었겠습니다.

김동현 그렇죠. 그걸 정리를 해서 한국건축사를 강의했죠. 일본건축사는 이토 노

부오¹⁶⁰⁾ 씨 것 하고, 콘도 유타카¹⁶¹⁾ 씨 것을 정리하고, 중국건축사는 번역
 했던 것 들을 추려서 사용했죠. 강의 자료는 5년 정도 편하게 사용했어
 요. 강의 자료 만드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인가 봐요. 문영빈¹⁶²⁾ 씨가 명지
 대에서 한 학기 강의를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통문화
 대학교도 대신 나가라고 했더니 못하겠다고 하고, 1년 정도 준비해서 이
 번부터 나가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 같은 자료 준비하는 것이 시간이 많
 이 걸린다고 해요. 나는 내 손으로 직접 강의 자료들을 썼어요. 많은 시
 간을 들여서.

학교에서는 그것 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공무원 생활을 20여 년 해
 보고 교수생활을 하니까 교수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어려운 것
 같지만, 마지막 2002년도에 교학처에서 논문점수를 내는데 연구 실적
 이 부족하다고 각서를 쓰라고 했어요. 책 한 권을 더 내야하는데 그 당시
 「서울궁궐건축」 원고를 정리하던 때라 그것을 보여주며 넘어가 달라고
 했죠. 송석구 총장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2003년 초에 「서울궁궐건
 축」을 냈어요. 예전에 서울시청에 썼던 원고를 다시 정리해서 낸 거죠.

김동욱 대학원생이 10명이 넘었지요?

김동현 건축사가 재미있기도 했고 이걸 잘하면 보수면허도 딸 수 있을 거라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이경미 동국대학교에 계시다가 전통학교로 옮기신 것이?

160) 伊藤延男

161) 近藤豊

162) 文永彬

김동현 그렇죠. 동국대에서 2003년 2월에 정년을 하고 옮겼어요.

김동욱 홍윤식 선생님은 선생님보다 조금 더 위신가요?

김동현 그 분은 1934년생이니깐 3년 정도 위지요.

김동욱 그러면 홍윤식 선생님과는 같이 계셨어요?

김동현 같이 근무하다 나보다 3년 전에 그만두고 내가 2년 반 더 했지요.

2003.03-2007.02

전통문화대학교 석좌교수

● 전통문화대학교의 교육 목표

김동현 2003년 2월에 정년이 되어 그만둘 때가 되니까 김병모¹⁶³⁾ 총장하고 장현덕 교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학교로 오라고 해서 가게 됐지요. 그때 이미 정기영¹⁶⁴⁾ 씨, 정재훈 씨가 거기 가 있었어요. 당시 외부에서는 전통문화대학교가 문화재관리국 출신 양로원이나 라는 소리를 했었죠. 근데 김병모 교수가 전통문화대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르다며 문화재 원로가 필요하다고 늘 말을 해 와서 딱 70세까지만 한다고 했죠. 그래서 2006년까지 하고 딱 70세에 그만 두었어요.

근데 전통문화대학교도 일반대학과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연수

163) 金秉模

164) 鄭基永

원이 생겼고 한옥학교가 생긴다고도 하고, 학생이 아닌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이 된다고도 하고. 전문 기능자를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문화재뿐만 아니라 미술품, 공예품, 조각품도 수리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돼요. 교토박물관에는 문화재보존수리소가 부설로 있는데, 거기에는 전부 기능자들이 와서 해요. 전통문화대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조수로 가서 일도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일반대학과 정처럼 되어있으니까 학생들이 목수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기능자보다는 교수나 공무원을 꿈꾸게 되죠. 문화재를 잘 모르는 교수들이 오기도 하고, 학문적인 사람들이 오기보다는 문화재 전문가, 인간문화재들을 교수로 모시고 실습 위주로 가르쳐야 되는데 정규대학처럼 출발한 것이 잘못이죠. 목수라는 것이 20~30년은 해야 되는데 말이죠. 차라리 신용수 씨나 최기영¹⁶⁵⁾ 씨 밑에서 배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도 나오고, 그 밑에서 실습한 것을 학점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말도 있고.

졸업 후 제대로 대우받게 해줘야 한다고도 해요. 문기현¹⁶⁶⁾ 씨는 월급도 엄청 받는다고 해요. 도면도 잘 그리고 원칙도를 그려서 치목도 직접하고, 사실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하죠. 이종철 총장이 이제야 그걸 깨닫고 방향을 바꾸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연수원을 만들게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학교에서는 공무원이나 학자를 만들고 연수원에서는 직업학교처럼 기능자를 양성하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둘을 양립해서 대학원 코스도 만들고 국립대학이니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줘야하지 않을까요.

165) 崔基永

166) 신용수 씨 밑에 있는 부대목

☼ 동양건축사 강의

김동욱 과목은 무엇을 맡으셨는지요?

김동현 동양건축사를 맡았어요. 한국, 일본, 중국, 다 따로 개설했었어요. 내가 따로 하라고 그랬죠. 동국대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일본건축사 교안을 만드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콘도 씨 것이고, 부재별로 잘 설명된 것은 이토 씨 것이었죠. 오타 선생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일본문화를 모르면 알기가 너무 어렵죠. 그게 대학 졸업하기 전에 쓰신 것이라니 놀랍죠.

김동욱 고등학교 때 아다치¹⁶⁷⁾ 선생 댁에서 선배들과 건축사를 배웠다고 해요. 이미 고등학교 때 건축사를 하고 동경대에 간 거죠.

☼ 윤무병 선생님의 추억

이경미 주심포 다포라는 용어는 어느 분께서 처음 칭하신 것이지요?

김동현 주심포, 다포라고 붙인 것이 임천 선생님이나 윤무병 선생님 두 분 중에 한 분이래 봅니다. 딴 사람은 아니지요. 한국건축을 처음 강의한 분이 윤무병 선생님이죠. 홍익대학에서. 처음에 임천 선생께 부탁했는데 고사하셔서 윤무병 선생님이 하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느냐 하면, 스기야마¹⁶⁸⁾ 씨의 「여말선초목조건축의 연구」를 교재로 썼다고 해요.

167) 足立康

168) 杉山信三

이강근 그때가 신영훈 선생이 번역하고 나신 후인가요?

김동현 번역 훨씬 전이죠. 원문 가지고 강의를 했다고 하셨어요.

이경미 번역을 한 것은 1963년이죠.

김동욱 윤 선생님이 강의를 하신 때가 1950년대 말쯤 될 것이에요.

김동현 건축과에서 건축사 강의를 했는데, 윤무병 선생님이 처음에 관여를 하신 것이 무위사 극락전 수리공사죠. 그때 거기 내려가셔서 했고, 그전에 건축을 공부하신 것은 박물관이 부산 피난시절에 조그만 집 얻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을 때 용어집 만들자고 해서 『고고미술용어집(건축편)』, 이 원고를 썼죠. 이 때 윤무병 선생님이 관여를 했다고 해요. 그때, 1952년에 원고를 쓰시고 임천 선생님이 도면 그리시고, 서울 수복 후 서울신문사에 맡겨 1955년에 책이 최초로 나왔죠. 원본이 거의 없는데 나는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건축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이왕기 윤무병 선생님이 원래는 법학과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김동현 원래는 만주 중앙대 법학과 출신이신데 해방 후 서울문리대 사학과에 응시를 하고 시험을 보셨는데 낙방하셨다 해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만주 있을 때 고구려유적을 답사하면서 생기셨대요.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문리대 사학과를 2~3번 시험을 봤지만 낙방하셨다고 해요. 하루는 이병도¹⁶⁹⁾ 박사가 박물관장하실 때 찾아가 시험을 쳤지만 떨어졌는데 역

169) 李丙燕, 1896-1989

사를 공부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특히 문화유적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리니 이병도 박사가 박물관 촉탁(임시직)으로 쓰셨다고 해요. 그때 이병도 박사가 문교부에서 지리부도 교과서 용역을 맡으셨는데 이것을 윤무병 선생님께 시키셨다고 해요. 이병도 박사 이름으로 나왔지만 윤무병 선생님께서 만드신 것이라 생각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 역사 지리에 정말 해박하셨죠. 그 일이 끝나고 이병도 박사의 추천으로 김재원 박사에게 소개되어 박물관에 취직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이경미 어떤 기준과 근거로 주심포 다포를 풀어내셨는지 궁금해요.

김동현 어떻게 그렇게 용어를 딱 짚어서 사용하셨는지 나도 궁금해요. 지금 86세인데 일체 사회활동 안하시고. 해방 후 우리말과 글이 원활치 않으셨다고 해요. 내가 1958년 처음 박물관에 갔을 때도 우리말 사전을 보시며 공부를 하셨어요.

김동욱 만주에서는 꽤 유복하게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김동현 그분 아버님이 일본 육군 대좌였고, 제대 후 만주 제2인자였다고 해요. 조정하시는 고려대 윤국병 선생님의 동생이시였어요. 대단한 집안이었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윤 선생님이 쓰시는 말이 일본 귀족들이 쓰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경미 건강하실 때 꼭 찾아뵙고 그 부분을 꼭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현 나도 궁금해요. 같이 찾아뵙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죠. 처음 시작은 확실

치 않아요. 하여간 해방 전에는 안 쓰던 용어이고, 1955년 용어집에는 그
게 돼있는 것으로 봐서 그때 만든 것 아닌가 생각돼요.¹⁷⁰⁾

이경미 윤장섭 선생님이 「한국의 건축」 쓰신 것은 1960년대 이신가요?

김동현 「한국의 건축사」가 최초이고 친구백구십몇 년인가 「한국의 건축」으로 바뀌
서 쓰시고 요번에 최신증보판으로 또 나왔죠. 최근자료들 모아서 왕흥사
지 것도 추가 자료로 해서 쓰셨더라고.

이왕기 윤무병 선생님이 백제역사재현단지 처음 할 때 관여하셨는데...

김동현 초기에는 건축에 관여를 하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니 고고학으로
돌아가시고 건축분야는 일체 관여 안하시고, 충남대 가서서 발굴에는 참
여 좀 하시고 했죠.

❁ 청노회

김동욱 초기에는 맹인재 선생님도 건축에 많이 관여를 하셨지요?

김동현 그래요. 처음 전문위원하시면서 현장 보수감독도 하고 그랬어요. 건축
사 논문은 아마 거의 없죠. 건축사가 전공이 아니신 것도 있고 비교적 글

170) 그 후 2008년 9월, 김동현 선생을 모시고 김동욱 이경미가 일산 풍동의 윤무병 선생택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궁금했던 초기의 문화재수리 과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윤선생님께서 기억 나시는대로 대답해 주셨는데, 정작 질문의 핵심이었던 주심포 다포 용어가 어떤 경위로 제정되었는지는 선생님은 명확한 답은 주지 못하셨다. 다만 선생님께서 용어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을 안 쓰셨어요. 인사 중에 인사시죠.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청노회¹⁷¹⁾라고 있는데, 푸르게 늙자라는 뜻이에요. 매달 첫째 토요일에 모임이 있어요. 다 해서 11명이죠. 회장이 정영호 선생이고, 맹인재 선생, 김정기 선생, 전성우 선생¹⁷²⁾, 홍윤식 선생, 이구열 선생(미술평론가), 이호관 선생, 나, 정명호 선생, 남석환 선생(재일동포), 이흥우 선생(조선일보 논설위원, 시인, 지금은 타계), 이렇게 11명 중 10명이죠. 거기다가 ‘송원’이라는 일식집 주인이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식사를 내지요.

김동욱 그럼 정영호 선생님이 가장 나이가 위신가요?

김동현 그제 애매모호해요. 정영호 선생(79세)이 나보다 7년 위시고. 호적은 75~6세. 호적상 가장 위는 김정기 선생(1930년생), 맹인재 선생(1930년생)이죠. 거기는 70세 이상만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김동욱 그때만 해도 미술사, 불교미술, 건축사하는 분들이 다 같이 활동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김동현 그때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되지요. 고고미술동인회가 1960년에 생겼는데, 회원이 15~6명 정도였어요. 매달 잡지를 내는데 프린트, 등사를 가리방으로 굵어서 원고 쓰고, 사진은 DP점에 맡겨서 200장씩 가져와서 모두 짝 줄을 지어 얹아서 페이지별로 붙이고 했어요. 매달 장소를 황수영 선생님택에 한 달, 진홍섭 선생님 다음 달, 최순우 선생님택 등 한 달씩 돌아가면서 선생님택에 모여서 했어요. 그럼 사모님들이 한 상 딱 차려오시면 잔치분위기도 나고 그랬어요.

171) 靑老會

172) 金鏗弼, 1906-1962 : 선생 아들, 간송박물관 전영우 관장이 동생, 보성학교 이사장

돌아가면서 책을 만드셨죠. 나는 1960년부터 참가했어요. 청노회는 원래 그 모임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다른 사람은 끼워주지 않았죠.

김동욱 초장기 건축에 관련하신 분들이 임천 선생, 윤무병 선생, 맹인재 선생, 김주태 선생, 김정기 선생, 이 정도였나요?

김동현 맹 선생님 하는 분야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실측작업도 용역을 받아서 사람 불러서 했고요.

김동욱 건축역사학회 회원들 중 반은 건축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설계사무소 이름만 걸어 놓 사람도 있고요.

김동현 그런 것이 전공별로 명단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일이 생길 때 담당분야에 연락하기 쉽게. 학회라는 것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헌목록’도 학회에서 증보판을 만들어 후배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논문이 너무 많이 나와 정리하기 어렵기는 하겠죠. 보고서들도 쏟아져 나오는데 학생들한테 읽으라고 주어요. 발굴 보고서는 중요한 것이죠. 보고서를 총괄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게. 누군가가 해야 하는데. 문화재청, 연구소, 안되면 학회에 용역을 줘서라도 정리해야만 해요.

김동욱 강의는 금년부터 완전히 접으신 거지요?

김동현 2006년 작년까지 하고 그만 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종강할 때 같은 과 교수들한테 내가 금년까지만 한다고 했지요. 내년부터는 안할 테니까 강사를 알아봐 달라고 하고 그만 두었어요.

❁ 설계작업에 대하여

김동현 설계는 내가 직접설계, 기본설계, 설계참여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어요. 그래서 직접설계는 내가 직접 거의 다 그린 것이고, 기본설계는 내가 기본안을 내고 설계사무소에서 한 것이고, 설계참여는 설계할 때 자문을 해서 나의 아이디어를 거기다 반영한 것이지요.

그래서 ‘직접설계’는 도선사 청담 스님 부도, 도리사 사리탑, 금오 스님 부도, 부산에 있는 천태종 삼광사 팔각보탑, 구인사 대웅전이라고 천태종이고 위에 대웅전은 한옥으로 지었고 밑에는 현대식으로 한 것, 운보 김기창 선생 별장, 호암 이병철 회장 용인 별장, 이것은 요즘 별장으로 안 쓰고 있고, 신영훈 씨와 같이 했는데 도면은 내가 다 그렸지요. 그다음은 경복궁의 윤비시해 벽화전시관, 이것은 지금 없어졌어요. 그다음은 일본 경도의 고려사 조사당, 이것은 지금도 있어요. 송광사 구산 스님 부도 앞의 석등, 내원정사라고 부산에 있는데, 법당 안에 사리탑이 있는데, 법주사 팔상전을 목조로 본떠서 여기에 사리를 모셨고 내가 직접 했어요. ‘복원설계’로는 경천사 10층 석탑이 있고, 미륵사지 동탑이 있어요. 미륵사지 동탑 복원설계는 나하고 장헌덕 교수하고 같이 했고 당시 도면은 장헌덕 씨가 주로 많이 했어요. ‘기본설계’를 한 것은 법주사 법당의 청동대불이 있지요. 이것은 홍대의 최기원 교수가, 조각하는 양반이 있는데 이분이 낸 안을 내가 다 목살하고 다시 아이디어를 내서 그 양반이 다시 그렸죠. 아주 기분이 되게 나뻐을 것이예요.(웃음) 그리고 경주 김양 묘비각으로 신라식으로 작게 한 것, 동화사 석조대불하고 통일대전 이것을 했어요. 이때 서의현 스님하고 참 가까웠죠. 이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아요. ‘설계 참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죠. 무슨 해외여행 자료까지 있네요. 32번 나갔다 왔네요. 별게 다 있는군요, 다 개인자료이고 별 건 아니예요. 와이셔츠 목사이즈까지 있고,

● 애호가와 사학자

김동현 하여간 나름대로 난 꼼꼼했던 것 같군요. “무엇을 하더라도 꼼꼼해야 된 다.” 하면서 후배들한테도 ‘꼼꼼’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글도 쓰고 했죠. 그 다음에 ‘꼼꼼’ 플러스 ‘대담’까지 하면 이것은 아주 제대로 된 것이죠. 꼼꼼성과 대담성 이 두 개를, 즉 양면성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작품을 예로 든다면 너무 꼼꼼만하면 작품이 조잔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다가 대담성이 가미된다면 걸작품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꼼꼼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담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고분 발굴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천마총 유적을 발굴하면서...

유적을 우리가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정신을 뽑아 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 유적이나 유물을 볼 때 거기 에서 그 유물 가지고 보면 소위 ‘골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담겨진 정신, 내포된 내용을 파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전에 김원룡 선생 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유물을 감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누굴 빗대어 말씀하신 건데, 지금 누구라고 말하기는 적절치 않고, 같은 기관에 근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빗대 골동품 애호가이지 미술사학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 유물을 글로 쓰는데 형용사를 잔뜩 쓰면서 아름답다, 멋있다 등등으로 미화만 늘어놓고 왜 그런지를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연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즉, 만들어진 배경을 밝히고 왜 이 물건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고 그 시대 배경을 추정해야 한다는 것이예요. 우리는 골동품 애호가가 될 것인지, 진정한 미술사 학자가 될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할 것이예요.

광복 이후 우리나라 건축 문화재 보존과 와본 김동현

김동욱(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이 글은 앞에 수록한 김동현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참고로 덧붙인 것이다. 1945년 광복 이후 우리 손으로 문화재를 보존, 수리해 온 과정과 그 성과 그리고 각각의 수리나 복원이 이루어지게 된 시대적 배경 설명을 가급적 시대 순으로 곁들였다. 다만, 내용 중에는 자료 수집의 한계와 글 쓴 이의 이해부족으로 잘못 기술된 부분이 없을 수 없다. 또한 신문 기사 등에만 의존하여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활자화되지 않은 귀중한 내용이 다수 누락되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점 읽는 이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

1. 초기의 건물수리

광복 직후의 상황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새로운 희망을 안았다. 건축 문화재의 보존과 수리에서도 상황은 같았다. 일제강점기 때 건물 수리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가 만주 등지로 떠났던 기술자들이 새로운 일거리에 대한 기대를 안고 국내에 돌아왔으며 목수나 석공일을 하던 사람들도 새로운 일터에서 기량을 발휘할 꿈에 부풀었다고 짐작된다. 동시에 혼란도 있었다. 일본인들이 독점해 온 문화재수리 업무를 적절히 이어갈 전문인력이 그다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때 문화재수리 업무는 거의 일본인 손에 맡겨져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모든 결정권과 예산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독부 시절에 국내 문화재수리 업무의 실질적인 담당자는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1888~1950)였다. 그 뒤를 스기야마 신조(杉山信三, 1906~1995)가 이었다.

오가와 게이키치가 1915년 한국에 건너왔다. 당시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1868~1935)가 담당하던 낙랑고분 발굴조사에 보조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이후로 오가와는 조선총독부

기수로 있으면서 국내 주요한 건물 수리를 전담하다시피 하였다. 1940년에는 철도국으로 옮겨 경주역사를 한식으로 지을 때 설계를 맡기도 하다가 1944년 정년을 맞아 일본에 돌아갔다. 뒤를 이은 스기야마는 교토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하고 법률사 수리에 참여하다가 한국건축을 공부하려는 뜻을 두고 자원하여 1935년 조선총독부 기수로 와서 이후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건물 수리를 맡았다.

스기야마는 1936년 청평사 회전문과 극락전 수리를 맡고 이어서 개풍군 관음사 대웅전 수리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그때 현장에서 이한철(李漢喆)을 만났다.¹⁾ 이한철은 경성고등공업학교(현재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를 졸업하고 경기도 축탁 신분으로 공사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스기야마는 공사 지도를 했다. 스기야마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이한철은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으며 결혼을 하여 현장에서 신흥생활을 보냈다고 한다. 그 후에 이한철은 간도로 가서 건축업무를 하다가 광복이 되면서 국내에 돌아왔다고 한다.

이한철은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건물을 조사하고 도면을 작성하였으며 당시로는 건물수리에 종사한 거의 유일한 한국인으로 손꼽혔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한 기록이 많지 않아서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다. 이한철 외에 스기야마가 기억하는 또 한 사람은 양(楊)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으로 화엄사 각황전 수리현장에 있었고 스기야마가 경성고공에서 건축사 강의를 할 때 졸업생 중 하나였는데, 뒤에 고향인 평안남도로 돌아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스기야마가 언급한 또 한 사람으로 임천(林泉)이 있다. 스기야마는 1936년 성불사 응진전 수리공사를 맡고 있었으며 단청공사를 할 단계가 되었는데 단청을 승려들에게 맡기면 전부 새로 칠을 해버려 기존 문양이나 색조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일종의 고색칠을 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 일에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물색하던 중 이한철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 임천이었다. 당시 임천은 관음사 주지의 딸과 결혼하여 절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며 응진전의 단청을 스기야마가 의도한대로 훌륭하게 마무리하였다고 한다.

『고고미술』지에 실린 임천 선생 약력에 의하면 임천은 1927년에서 1929년 사이 일본 도쿄 미술학교 동양화과를 다닌 적이 있으며 1933년에 관음사 대웅전 보수 시 채색화공으로 일을 시작했고 1935년에는 화엄사 각황전의 벽화모사와 단청조사를 담당하고 이어서 평양 대동문 단청조사, 무위사 극락전 벽화모사 및 채색조사, 청평사 극락전 벽화 및 채색조사, 성전 동명관 향선루 벽화 및 단청조사, 회양 장안사 사성전 벽화 및 단청조사를 한 경력자였다.

1) 이하 스기야마의 기술은 杉山信三(1984), 『韓國の中世建築』 후기 부분을 참고함

임천은 단순히 단청 채색의 기능적 일만 한 것이 아니고 벽화나 단청을 조사하여 벽화나 단청의 문양이나 채색을 설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광복의 기쁨과 희망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이념의 갈등으로 혼란을 겪다가 급기야 6.25 전쟁이 터지고 말았으며 소중한 많은 건물들이 전화 속에 사라지고 말았다. 이 와중에 서울에 머물러 있던 이한철은 유탄을 맞아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한다. 일본인들이 물러나고 이제 바야흐로 그간의 경험을 살려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손에 의해 건물의 수리와 보존에 진력하려는 즈음에 그만 세상을 뜨고만 것이다. 이것은 이한철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에도 큰 손실이었다.

50년대 중반이 되어 전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전쟁 중에 파괴된 많은 건물들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일이 눈앞에 닥쳤다. 이때 제일선에서 건물 수리를 책임진 사람은 임천이었으며 광복 후 새로 발족한 국립박물관이 그 사업을 주관하였다.

국립박물관의 역할

국립박물관이 개관한 것은 광복 4개월 후인 1945년 12월 3일이었다. 관장은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온 김재원이 맡았다. 경복궁 건춘문 안쪽에 석조로 지은 아담한 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에 자리 잡았다. 여기는 본래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있었는데 총독부 박물관을 접수하여 우리 박물관으로 삼은 것이다.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박물관은 의욕적으로 발굴사업도 착수하고 유적의 조사계획도 세웠다. 첫 번째 발굴은 경주 호우총 조사였다. 당시는 미군정 치하였는데 미군정청의 협조를 얻고 총독부 시절 박물관에 있다가 미처 귀국을 못하고 있던 일본인 아리미즈 교이치(有光教一, 1907~2011)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첫 발굴에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죽은 지 3년 후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항아리가 출토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후에도 박물관은 개성 법당방 고려벽화고분, 경주 황오리 폐고분 등을 발굴하여 학술기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6.25 사변으로 모처럼의 사업은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1950년 6.25사변이 터지자 박물관은 유물을 싸들고 부산으로 피난하였다. 휴전이 되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전에 사용하던 건물은 구 황실재산사무총국이 들어가게 되어 남산에 있던 구 조선총독 관저를 사무실로 쓰다가 1955년에 가서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덕수궁에서 다시 박물관을 열 수 있었다.

국립박물관은 처음 총무과, 학예과, 진열과로 출범했다가 덕수궁에 와서는 체제를 고쳐 진열과, 연구과, 고고과, 미술과로 확대하여 유적의 조사와 연구의 여지를 넓혔다. 당시 미술과의 과장은 진흥섭이 맡았으며 임천은 보학예관으로 있었다. 임천은 이미 1945년 10월에 박물관에 보미술도안사 직책으로 미군정청의 발령을 받았다. 이때부터 1962년 학예관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려 18년 동안 박물관에 몸담았다. 그 사이에 박물관이 주관한 건물 수리를 도맡았다.

당시 박물관에는 또 한 사람이 임천과 함께 건물조사 등에 참여하였는데 만주 신경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귀국하여 문화유적 관련한 일에 종사하고 있던 윤무병(尹武炳, 1924~2010)이었다. 윤무병은 서울에서 출생하여 지내다가 부친이 만주국의 고위관료로 전근가면서 따라갔다. 만주에서도 역사적인 유적에 관심을 가져 여러 곳을 답사하였다고 한다. 광복 후 귀국하여 한동안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근무하다가 국립박물관에 몸담은 것은 1954년이었다. 학예관으로 시작한 박물관 근무는 고고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1973년 충남대학교 교수가 될 때까지 이어졌다. 특히 건축전문가가 절대 부족하던 초기에 건물조사에 기여하여 무위사 극락전 수리 등에 종사하였다. 1957년 홍익대학교에 건축미술과가 신설되자 한국건축사 강의를 여러 해 맡았다.²⁾

건축용어집 간행

초기 국립박물관에서 이룬 여러 업적 가운데 건축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일을 든다면 「미술고고학용어집, 건축편」을 발간한 일일 것이다. 이 책자는 1955년 국립박물관총서로 을유문화사에서 간행한 것인데, 우리나라 건축용어를 처음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이후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전문용어의 기틀을 다지고 건축역사학의 기본적인 용어 개념을 설정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 책자는 저자를 김재원으로 적고 있지만 이는 단지 박물관장이라는 직책을 반영한 것이며 실제 저자는 밝혀놓지 않았다. 추정하기로는 박물관 부산 피난시절 할 일이 많지 않았던 시기를 이용하여 임천이 그 초고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책자는 환도 후 1955년에 간행되었다. 건축재료, 건기공 및 공구, 건축구조 및 부분명칭, 건축물 기타, 건축의장 및 장식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모두 1,257개 용어를 정리하고 150개 이상의

2) 2008년 9월 일산 풍동 자택에서 가진 면담 시의 회고

삽도를 넣은 것이었다. 용어는 한글과 한자어를 병행하여 표기하고 괄호 안에는 간혹 일본의 용어를 수록하여 당시 일본 용어에 익숙한 사람들의 편의도 도모하였다.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목수나 석공들이 사용하는 것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옛 문헌을 참조한 흔적도 보인다. 특히 단청 관련해서는 150개 이상의 용어를 상세히 나누어 자세한 설명을 하고 많은 삽도를 넣었는데 본래 단청일로 출발한 임천의 이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책자는 이제 막 우리 손으로 건물 수리나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용어집을 만들어 조사자나 실무자들이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는 책이었다.

한 가지 특기할 것으로는 이 용어집에 처음으로 주심포, 다포라는 용어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주심포와 다포는 우리나라 목조건물의 구조형식을 나누는 두 가지 큰 틀이다. 주심포는 기둥 위에 작은 재목을 층층이 쌓아서 처마를 받치도록 한 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여지는 것이고 다포는 공포가 기둥 위는 물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짜여지는 것이다. 주심포가 고려 중기 이전부터 쓰여서 조선 중기까지 주로 나타나는데 비해 다포는 고려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조선시대 말기까지 이어지며 주심포가 비교적 간결한데 비해 다포는 화려한 장식이 돋보인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주심포 대신에 익공식이라는 더 간결한 형식이 일반화된다.

그런데 주심포나 다포라는 용어는 옛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 조선 후기 문헌에는 포와 익공이라는 두 가지가 나타날 뿐이다. 이것은 이미 조선 후기에는 두 가지 형식만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고려시대나 조선 중기 이전의 형식에 대해서는 마땅한 명칭을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은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것을 소조(疎組) 즉 포가 성글게 짜여진 것으로 부르고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짜여진 것을 포가 촘촘하다는 의미로 힐조(詰組)라고 칭했다. 그러던 것을 소조, 힐조 대신에 새로 우리에게 알맞은 용어를 창안한 것이 주심포, 다포였다. 이 용어를 과연 누가 고안해 냈는지는 지금으로써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당시의 정황으로 보거나 미술고고학용어집에 이 용어가 수록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용어의 창안자는 임천일 가능성이 많다. 주심포, 다포는 비록 용어집에 수록은 되었지만 현장의 목수들에게는 전파되지 못하였다. 현장에서는 꽃집과 익공집이 통용되었다고 짐작된다. 그러다가 스기야마가 쓴 「고려말이조초 목조건축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우리말로 번역해 내면서 이 용어를 채택한 결과 학계에서부터 주심포, 다포가 쓰여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널리 통용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윤무병이 초창기 홍익대에서 한국건축사를 강의할 때 교재도 이 책이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미술고고학용어집」은 건축 현장에서보다는 학계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손으로 한 건물수리

광복이 되고 박물관도 갖추어져 유적 발굴도 우리 손으로 해내면서 건물 수리에 대해서도 조금씩 일이 시작되었다. 아마도 사찰 같은 곳에서는 시급히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 그때 목수를 시켜서 소규모 보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확인은 안 된다. 기록이 남아있는 것에 한정해 보면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에 대한 소규모 수리는 광복 직후부터 조금씩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임천의 약력에 의하면, 1947년에 불국사 대웅전 보수공사의 감독관을 맡았다고 한다. 감독관을 맡았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국립박물관이 일을 주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1948년에는 경복궁 보수공사의 설계를 맡았다. 또 1949년에는 수원 팔달문 보수공사 감독관을 맡았다. 6.25가 나던 1950년에는 진주 축석루 복원공사 감독관을 맡았다. 전쟁이 나기 전이었다고 짐작된다.

6.25 전란으로 한 동안 혼란을 겪으면서 수리업무는 소강상태를 맞았지만 1953년 보신각 단청이나 1955년 남한산성 단청 일을 임천이 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서 소규모 수리와 단청일이 유지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상태를 극복하고 다시금 본격적인 건물 수리에 착수한 것은 1956년이었다. 이해에 국립박물관은 강진 무위사 극락전 중수와 제주 관덕정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무위사 극락전은 건물 축부까지를 완전 해체하여 다시 조립하는 전면적인 공사였다.

무위사 극락전은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주심포식 건물이며 내부에 벽화가 있어 이름난 건물이다. 벽화는 중앙후불벽에 아미타삼존과 좌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그려져 있고 창방 위 벽면에 삼존불화를 비롯한 여러 보살, 여래, 비천, 연화 등이 남아있으며 후불벽에는 1476년(성종7)년 명문까지 남아있는 귀중한 것이었다. 건물은 1940년대에 와서 크게 훼손되어 있었으나 일제 말기여서 손을 대지 못하다가 이때 와서 문교부가 나서서 일을 추진하였다. 광복 후 우리 손으로 하는 거의 첫 번째 국보급 건물 수리였으므로 여러모로 신중한 자세로 공사에 임했다. 공사의 감독관으로는 김재원 국립박물관장이 임명되고 감독보좌관으로 임천 학예관이 감독하여 해체와 공사를 진행하고 윤무병이 일을 도왔다. 일은 동양건축사를 운영하던 조원재(趙元載)가 맡았다. 조원재는 당시 목수 경력을 지닌 국내 일급의 기술자로 손꼽혔다. 공사는 1956년 6월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에 완성을 보았다. 해체공사 과정에서 벽화 보존을 위해서는 벽면 안팎 양쪽에 판자를 대고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 후

완전히 포장하여 해체하였다. 또 해체 전 바닥은 마루가 깔려 있었으나 해체에서 귀를 흔적이 없고 바닥에서 전돌 파편을 여러 점 수습하였으므로 바닥은 전면 전돌로 교체하였다.

무위사 극락전은 수리가 끝난 후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이것은 광복 이후 우리가 낸 첫 번째 건물해체수리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 간행은 1959년이었으니 공사가 끝나고 3년이 경과해서이다. 보고서에는 공사 경위와 수리 전 건물 상황, 해체과정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결정사항 및 시방서와 공사비, 공사관계자 명단이 수록되어 손색없는 보고서의 체제를 갖추었다. 특히 많은 공사 관련 사진을 수록하고 마지막에는 수리 전과 수리 후의 도면을 삽입하고 단청문양도까지 삽입하여 단청에 밝았던 임천의 솜씨를 남겼다. 앞의 김동현 선생 좌담에서도 이 건물 도면의 잉킹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비록 수리보고서까지 간행하는 업적을 이루기는 했지만 1950년대의 건물 수리는 아직 여러 면에서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여건을 극복하고 수리의 제반 체제가 갖추어진 것은 6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2. 본격적인 건물수리와 체제정비

서울 남대문 해체수리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은 6.25 전란 중에 여러 군데 포탄 피해를 입고 목재 부식이 심한데다 축대 돌 일부가 튀어나오는 등 대대적인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문교부는 1961년에 그 보수를 결정하고 이해 7월 20일에 공사에 착수하였다. 당초에 공사는 서울시가 주관하기로 하여 중수사무소를 두고 이를 서울시교육위원회 직속 기관으로 삼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듬해 1962년 3월에 기구를 개편하여 업무 진행을 사무부와 기술부로 나누어 사무부는 서울시장 직속하에 두어 서무, 예산 등을 담당하고 기술부는 문교부장관 직속으로 감독관을 임명하여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감독관으로는 진홍섭이 감독관 주석을 맡고 공사전반은 김정기, 기술담당은 임천, 옥개담당은 신영훈이 맡았다. 공사는 주요공정을 직영으로 진행하였으며 목공사에서는 도편수로 조원재, 부편수로 이광규가 맡고 석공사 도석수에 김천석이 담당하였다.

남대문은 도성 한양을 상징하는 건물이고 조선 초기 다포식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큰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조선시대에도 몇 차례 수리를 거치면서 변형이 이루어진

부분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그 때문에 수리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 과정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한차례 조직이 개편되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새로 기술부가 조직되어 전문가들이 공사현장에 참여하였을 때는 이미 건물이 모두 해체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체 이전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복원안을 검토할 기회를 놓쳤다. 그 때문에 해체부재만을 두고 원형을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다행스러운 것은 공사가 끝난 후에 「서울 남대문 수리보고서」라는 책자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간행된 점이다. 이것은 1958년 「무위사 극락전 수리보고서」 이래 두 번째로 나온 본격적인 수리보고서였다. 보고서는 A4크기의 판형을 취하여 도면을 크게 삽입하였으며 사진도 풍부하게 실어서 공사과정의 세부적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쉬운 것은 정작 공사의 내용에 가서는 해체된 부재의 상태만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고쳐지고 그 근거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수리공사의 내용을 판별할 수 없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수리 전 평면도에는 문루 하층의 어칸 마루가 장마루 널판으로 되어 있는데 수리 후 도면에서는 이 부분이 우물마루로 바뀌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왜 장마루를 우물마루로 바꾸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비슷한 예가 기둥과 보, 장여의 접합부 등에서 보이는데 이런 점들이 누락된 점은 보고서의 흠으로 남았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정도의 보고서가 간행된 점은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다. 특히 창건 시 및 세종연간과 성종연간 수리 시에 작성된 많은 묵서명을 수습한 점은 남대문 자체의 공사과정은 물론 조선 전기 건축공사의 기술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학술정보를 남겼다.

남대문 수리공사는 60년대에 들어와 처음 손대는 대규모 공사인데다 대상이 조선 초기에 지어진 다포식 건물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문화재수리의 큰 획을 긋는 일이었다. 여기에는 당대 제1급의 전문가들이 집결하여 기량을 발휘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해체 전에 건물 현황을 실측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도하에 각 공과대학에서 추천하는 대학졸업자를 실측요원으로 하고 또 재학생을 보조자로 참여하도록 한 점이다. 모처럼의 의미 있는 수리공사이므로 젊은 학도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이 분야 전문가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의도였다고 짐작된다. 이때 제도사로 참여한 사람 중에는 김형만, 이신환, 박면수 등 후에 건축계에서 큰 활약을 한 사람들이 포함되었으며 보조자 중에도 후에 문화재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석굴암 보수

석굴암은 1950년대에 들어와 굴 외부의 콘크리트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누수가 생겨 불상 표면이 훼손되는 상태에 빠졌다. 석굴암은 1915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기술자들이 수리를 하면서 원형을 크게 손상시켰다. 당시 콘크리트에 대한 맹신으로 석굴을 이루는 석재 뒷면에 콘크리트를 부었는데 이것은 콘크리트와 석재를 접착시켜 더 이상의 수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또 입구부분을 터널식으로 만들어 석굴의 미관을 해쳤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1920년에 한차례 방수공사를 하고 부분적인 보수를 하였지만 근본적인 누수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광복을 맞았다.

광복 후에도 석굴암 수리는 큰 과제로 남았다. 몇 차례 부분적인 손질을 거쳤지만 누수처리와 굴 내부 습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태가 악화되면서 문교부는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하여 1958년부터 1961년까지 5차례 걸친 현장 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의기구가 없이 시일만 허비하였고 4.19와 5.16같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겹쳐서 일은 좀처럼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결국 61년 7월에 와서 공사 착수가 이루어졌다.

공사는 1961년 9월부터 63년 6월까지 조사와 예비공사를 하고 1963년 7월부터 본 공사에 착수하여 만 1년 후인 1964년 6월에 마쳤다. 이때의 수리는 기본적으로 석굴의 외곽에 석굴 본체와 간격을 두어 콘크리트 돔을 신설하여 구조적 안정을 기하고 누수와 굴 내 습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아졌다. 아울러 전실 앞에 목조건물을 설치하여 전실 지붕부를 이루고 전면에 개구부를 두어 실내를 보호하기로 하였다.

석굴암은 통일신라시대 석조예술의 최고봉을 이룬 유적으로 평가된 만큼 그 수리는 사계의 관심이 집중된 일이었다. 더욱이 일제시대 수리가 빚어낸 많은 숙제들을 떠안은 어려운 공사였다. 검토에 검토를 거쳐 석굴 외부에 콘크리트의 이중 돔을 설치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콘크리트 돔을 석굴 외곽에 설치하고 정상부에는 환기공을 두고 돔 표면에 방수층을 두는 공사가 이루어졌다. 논란은 전실부의 평면에서 있었다. 수리하기 전에 전실부에는 팔부신장을 양각한 석판 좌우 각 4매가 있었는데 그 중 제일 바깥 쪽 석판은 직각으로 꺾여있는 상태였다. 수리를 하면서는 이 부분을 전면으로 펴서 전실이 넓어지도록 바꾸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설계 방침을 심의한 문화재위원들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일부 위원은 원형이 확인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일제 때 상태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일제 때 변형시킨 흔적이 있고 마지막 석판도 직선으로 펴는 것이 전실의

기능에 맞다는 이유로 일직선 상태로 펼쳐 공사를 하였다. 또 전실 앞의 목조건물도 원형을 알 수 없는 것이었지만 현존 가장 오래된 건물이 있는 고려시대 후기의 양식에 맞추어 짓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석굴암은 수리공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과제들이 제기되었다. 이미 일제시대에 원형이 크게 훼손되어 원형 고증이 어려운데다 누수나 습윤과 같은 기술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앞에 둔 상태였기 때문이다. 수리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하겠다. 그 논의의 전과정을 「석굴암 수리공사보고서」에 수록하여 후일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60년대에 들어와 보여준 문화재 보존에 대한 성숙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때의 수리 역시 기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이중 돔을 지나치게 신뢰한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누수나 습기발생 문제가 나타났다. 뒤에 기계실을 두어 기계적으로 공기조절을 하였지만 기계에서 생기는 진동 문제가 따랐다. 또 전면의 목조건물이 굴 내부의 채광을 가리는 등의 문제도 따랐다. 관람객이 늘어나면서 굴 내부를 유리문으로 차단하여 관람의 불편도 초래되었다. 아직도 석굴암 수리는 가야할 길이 멀고 유적의 수리와 정비가 단시일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문화재위원회와 고고미술동인회의 활동

남대문의 수리나 석굴암 수리 과정에서 수리의 원칙이나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위원회에 속한 위원은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최종적인 기술 자문에 응하면서 최선의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문화재위원회는 자칫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는 원형 고증의 문제나 학술적 판단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문화재위원회는 1961년 남대문 수리가 결정 나던 해에 결성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문화재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직이 정부 안에 있었다. 그 시초는 1955년 문교부 안에 설치된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회였다. 여기서 수리공사의 결정이나 국보지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있어서 1960년 경복궁을 고적 제163호로 지정한 일들이 있었다. 그 후 1961년 1월 26일 국무원령으로 문교부 소속 ‘문화재보존위원회’가 발족하였다. 당시 전체 위원장은 화가인 고희동(高義東)이 맡았고 부위원장에 김상기, 김재원이 맡고 건물과 관련된 제1분과 위원장은 신석호였다. 여기에 위원으로 김원룡, 김중업, 이흥직, 황수영 등이 있었다.

문화재보존위원회는 그해 5월에 서울 남대문과 석굴암 수리를 승인하고 그동안 방치되어 퇴락을 면치 못하고 있던 많은 건물의 수리를 결정하였다. 그 중에는 관룡사 약사전, 창덕궁 돈화문, 선운사 대웅전, 금산사 미륵전, 쌍봉사 대웅전 등이 있었다. 다만 그 공사 범위는 예산 부족으로 긴급히 손을 대야만 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도로개설 때문에 사직단 정문을 뒤로 물리는 결정도 하였다. 또 문화재로 지정하는 작업도 했는데 창덕궁 돈화문, 창경궁 홍화문, 명정전, 명정문, 옥천교 등을 지정하였다.

한편 1961년 10월에는 문교부 외국으로 문화재관리국이 신설되었다. 새로 설치된 문화재관리국에는 기존에 이왕직에서 구 황실사무청으로 있다가 구 황실재산총국으로 개편된 기관을 흡수하여 하나로 묶었다. 이듬해 1962년 1월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서 기존 문화재보존위원회를 없애고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새로 조직된 위원회의 전체 위원장은 김상기, 부위원장은 김재원과 이민재였고 건물을 다루는 1분과 위원장은 이흥직이 맡았다. 위원은 대부분 종전의 보존위원회 때와 같았다.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되고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후의 건물 수리는 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게 되었다. 남대문 수리와 석굴암 수리는 문화재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고 그 첫해의 큰 사업이었던 셈이다.

한편 1960년 8월에는 문화재와 관련한 인사들의 모임인 고고미술동인회가 결성되었다. 아직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상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국내 유적이나 유물의 보존과 학술연구에 남다른 애정을 지닌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성체였다. 창립회원은 김원룡, 전형필, 진흥섭, 최순우, 황수영이었다. 동인회는 기관지 「고고미술」을 발행하고 현지조사를 함께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중심인사들이 대개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동향과 궤를 같이하면서 연구와 조사의 수준을 이끌고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그런 점에서 60년대 고고미술동인회의 활동은 우리나라 문화재보존에서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뒤에 이 단체는 한국미술사학회로 이름을 바꾸어 미술사 연구를 주축으로 하는 순수한 학술기관의 성격으로 바뀌었지만 초기에는 미술, 조각, 건축, 공예 등 유적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정보를 나누고 학술토론을 하였다. 무엇보다 현지조사를 중요시하여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소중한 유적을 알리고 이를 학술자료로 공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고고미술」 기관지의 초기 100호는 특히 처음 소개되는 학술자료가 풍부하고 서울 남대문 수리나 석굴암 수리과정 및 새로 발견된 건물 상량문을 수록하여 건축사 연구나 건물수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법주사 팔상전과 봉정사 극락전의 해체수리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되고 나서는 매년 일정한 예산 범위 안에서 수리를 요하는 건물을 체계적으로 손대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많은 건물들이 해마다 수리되었다. 다만, 예산은 늘 부족하고 수리해야할 건물은 많았기 때문에 수리의 범위는 지붕기와 교체나 부식된 부재 교체 정도에 머무르곤 하였다. 그러던 중에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본격적인 해체수리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법주사 팔상전이었다. 몇 년 후에는 봉정사 극락전도 해체수리를 하였다.

법주사 팔상전은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5층 목조탑 형식의 건물이었고 지어진 시기도 17세기를 내려가지 않는 것이었다. 1966년 충청남도 교육위원회는 문화재관리국에 팔상전의 보수 요청을 냈다. 건물 노후가 심하고 상륜부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현장 조사를 거쳐 이듬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보건설단(대표 강봉진)이 설계를 맡았고 해체 현장감독은 김동현, 김주태 두 전문위원이었다. 시공은 칠성건설주식회사(대표 임덕창)가 맡았다.

상륜부를 들어내고 사천주를 제거하자 귀틀 상부 내목도리 바닥에서 천계6년 즉 1626년(인조4) 기명의 목서 상량이 발견되었다. 심주초석에서는 사리장엄구도 나왔다. 차근차근 부재를 해체하여 부식 자재를 교체하여 재조립하는 작업이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이듬해 1969년에는 정월달 혹은으로 공사를 쉬다가 3월에는 5층의 포조립이 재개되고 6월에는 목부 조립이 끝났다. 준공은 그해 12월 30일에 이루어졌다. 이 공사는 광복 후 최초의 목탑 해체라는 의미도 있거니와 사전에 현황을 실측조사하여 보수의 범위를 정하고 해체에서도 일정한 원칙을 정하고 조립은 석공사, 목공사조립, 전돌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단청공사를 각 단계별로 명확한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는 선례를 남겼다. 당초에는 방형의 3칸 건물이었던 것을 인조대 5칸으로 중건된 점도 확인되었다. 심주초석에서 나온 사리함 내외면에 음각명문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목서명파와 달리 1605년(선조33) 대고주를 세웠다는 기록이 나와서 탑의 정확한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았다.

봉정사 극락전은 현재 국내에 남은 목조건물 중에는 건립연대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알려진 건물이다. 늦어도 13세기 이전의 양식 특징을 보이는 것이며 논자에 따라서는 고려초기까지도 시기를 올려보는 중요한 건물이다. 1968년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는 누수로 인한 건물

도괴위험을 이유로 문화재관리국에 수리를 요청했고 아울러 화엄강당과 고금당도 기둥이 기울어 함께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맹인재 전문위원이 현지조사를 하고 시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선 복원설계를 하기로 하여 국보건설단(강봉진)이 일을 맡았고 이듬해 1969년 5월 설계승인이 났다. 이 건물은 가장 오랜 건물의 해체수리라는 점에서 서둘러 해체하지 않고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거치도록 하였다. 7월에 전문위원 김정기, 김동현이 현지조사를 하고 김동현은 상주하기로 하였다. 8월부터 가설뒹집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12월에 공사를 중지시켰다. 후문에 의하면 아직 건물해체수리의 경험이 부족하여 전문가를 일본에 보내 기술연마를 한 후에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잠정 중지하였다고 한다.(본문 제3장 참조)

이윽고 1971년 김동현이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고, 10월에 다시 가설공사가 시작되고 1972년 2월 현황실측조사와 단청 문양모사가 이루어졌다. 해체공사는 7월에 착수하였다. 8월에 종도리 동측 하부에서 1625년(인조3) 중수시의 상량문이 발견되었다. 복원공사는 다시 한 해를 지나 1973년 6월에 시작해서 1974년 1월에 준공을 보았다. 공사의 감독은 단청문양모사를 맹인재가, 건물해체와 실측조사를 김동현이, 그리고 건물복원과 단청은 전문위원 김주태와 관리국 건축기사 이호석이 맡았다. 공사과정에서 재사용 가능한 부재는 최대한 다시 사용하였으며 보머리가 깨진 것은 철피로 보강하여 쓰고 대량이나 화반은 축으로 연결하였다. 최대한 구부재를 살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까래나 세장한 부재들의 교체는 불가피하였다.

이 공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몇 군데 현상변경이 이루어진 점이다. 수리 전의 극락전 바닥은 마루가 깔려 있었는데 후면 협간은 굽이 높은 초석 때문에 바닥이 한 단 높은 상태였다. 해체 시 바닥에서 전돌이 수 점 수습되었고 마루 깔린 상태로 부자연스러운 것이어서 바닥은 전면 전돌로 바꾸었다. 마루가 제거되면서 여기에 맞추어 세웠던 정면 어칸 문선도 높이가 안 맞게 되고 외관도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수리 전 전면은 3칸이 모두 궁창판 달린 사분합 띠살문이었다. 해체 시 어칸 신방석, 신방목의 노출 상태 등으로 미루어 어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판명되어 판문으로 복원하고 양 협간은 하방과 창방의 홑자국을 근거로 살창으로 복원하였다. 후면은 홀처마였는데 해체 시 연목에 부연 못자국이 정연하게 있어 앞과 같이 겹처마로 바꾸었다. 기둥이 짧았던 후면 기둥도 전면과 같은 높이로 고쳤다.

두 건물의 수리는 60년대 말에서 7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시행된 본격적인 목조건물 해체수리인데다 그 대상이 국내 유일한 목탑과 국내 가장 오랜 건물이라는 점에서 해체수리의

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치고 작업에 들어간 점에서는 서울 남대문 수리공사보다 진일보한 것이었다. 또한 각 공정별 시방을 명확히 해서 체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점도 이후의 수리공사의 모범이 되었다고 평할 수 있다.

준공 후에도 십수 년이 지나도록 수리공사보고서가 간행되지 못했던 것은 큰 아쉬움이었는데 다행히 봉정사 극락전이 1992년, 법주사 팔상전이 1998년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되어 뒤늦었지만 마무리를 질 수 있었다.

원형보존의 원칙

서울 남대문은 물론 법주사 팔상전, 봉정사 극락전 해체수리에서 지켜진 하나의 원칙은 원형복원이라는 것이었다. 목조건물은 세월이 지나면서 생활의 필요에 따라 또는 구조적인 보강을 위해서 당초의 모습이 바뀌고 보강재가 첨부되기 마련이다. 후대에 건물을 수리할 때 과연 이 바뀌어진 부분이나 후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는 판단이 어려운 과제로 대두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로 석조건물을 지어 온 유럽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아래와 같은 원칙을 세웠다.

-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없는 부분을 추정해서 복원하지 말 것.
- 기념적 건축물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시대의 요소들은 존중되어야 하며 양식을 통일하는 것은 수리의 본래 목적이 아님.
- 없어진 부분을 보수할 때에는 그것이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본래의 부분과는 구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밖에도 세부적인 많은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쳐 1964년에는 베니스에서 이러한 원칙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베니스현장이라고 부르는 이 원칙은 현실적으로는 각 나라의 문화특성 또는 당해 문화재가 처한 여건에 따라 융통성을 갖고 적용되지만 적어도 유럽에서 문화재보수의 하나의 원칙으로 널리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동양의 목조건축에서는 이런 원칙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렵다. 원래 모습을 알 수 없을 때 추정 복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러 시대의 요소들을 존중해야하고 양식의 통일을 목표로 삼지 않아야한다는 것도 목조건축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주문이다. 물론

억지로 잘 알 수 없는 양식통일은 하기도 어렵지만 어느 정도 원형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후대에 변형된 부분을 그래도 남기고 수리하는 것은 건물 전체의 부조화를 초래하고 구조적인 취약점을 만들기 십상이다. 결락된 부분을 보수할 때 새로 끼워넣은 부분을 본래 것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석조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지만 목조에서 굳이 이를 실현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우려가 있다.

이 문제는 아직도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일이지만 적어도 목조건축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에서 석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보존원칙은 그대로 수용하기에 무리가 많다. 그런 점에서 60년대에 수립된 원형보존의 원칙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효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무리하게 원형보존 원칙에만 얽매어서 뛰어난 기술적 특징을 간직한 후보물을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건물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확실히 고증이 안 되는 원형을 선불리 시도하는 것 보다는 당분간은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류를 덜 범하는 것이라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문제를 두고 1999년 1월 29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의 일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 제2조 2항에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정하였다.

3. 유적의 정비

박정희 대통령과 유적정비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쥔 박정희는 1963년 12월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임기 4년 동안 경제개발을 슬로건으로 삼아 민생을 안정시키고 다시 1967년 제6대 대통령 재선 뒤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정신적인 각성과 민족문화를 높이 내세우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일본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만이 아니고 정신면에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한다는 말을 자주 강조하였다.

1968년에는 정부부처 내에 문화공보부를 신설하고 문교부에 속해 있던 문화재관리국을 문화공보부 외국으로 두어 체계적으로 문화재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전에 총리실 직속으로 있던 공보부에 박물관, 국립극장을 흡수하여 공보 업무 외에 문화예술을 총괄하고 여기에 문화재관리국을 외국으로 두어 민족문화유산의 관리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것은 행정조직 상 문화재관리의 위상을 크게 진작시킨 일이었다. 이즈음에 와서 대통령은 전국의 주요 유적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유적의 정비나 복원, 수리를 지시하고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아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첫 번째 발길이 닿은 곳은 충남 아산의 현충사였다. 현충사는 이충무공의 외가 후손들이 살던 곳으로 1932년에 중건한 사당이 남아있었다. 1966년 이곳을 들른 박정희 대통령은 해당되는 정부 각료들과 문화재관리국장에게 현충사의 경역을 넓히고 사당을 새로 짓고 주변을 정비하여 현충사를 성역화시키는 일을 추진시켰다. 이듬해에는 경주에 들렀다가 불국사 주변의 무질서한 모습을 보고 불국사 건물을 복구하고 주변을 정비하도록 했다.

1971년 7월 박정희는 세 번째 선거에서도 승리하여 제7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제는 경제개발 정책도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관광이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6월, 경주를 민족문화가 살아있으면서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지시에 의해서 경주관광종합개발 10개년 계획안이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서 경주 일원의 유적을 13개 지구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복원, 정화하고 경주의 도로나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여 경주를 관광도시로 개발하도록 하고 관광객의 방문에 대비하여 위락단지를 개발하는 안이 마련되었다. 경주에 이어 제주도의 관광개발도 계획되었다.

1975년에는 전국의 주요 성곽을 대상으로 국방유적에 대한 복원, 정비도 추진되었다. 강화의 유적이나 수원성곽이 일차적인 대상이 되었으며 서울성곽도 이때 부분적인 복원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임진왜란 관련한 유적지로 칠백의총 정비, 만인의총 정비가 이루어지고 김덕령 장군, 광재우 장군, 정기룡 장군 유적지에 대한 정화사업도 진행되었다. 뛰어난 학자들의 유적지도 복원, 정비대상이 되었다. 퇴계 이황을 모신 도산서원, 율곡 이이의 탄생지로 알려진 오죽헌의 성역화가 이루어졌다. 1978년에는 정신문화를 연구하는 구심체로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설립되었다.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등 지방 박물관이 신설되고 위인의 행적을 전시하는 전시관도 곳곳에 지어졌다.

이런 일들은 주로 문화공보부가 주관을 하고 그 중 문화재와 관련한 것은 문화재관리국이 업무를 주관하였다. 때로는 청와대에서 직접 업무를 살피고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지원했다. 때때로 대통령이 직접 유적 조사 현장에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주요한 유적의 정비가 끝나면 준공식의 테이프를 끊었다. 이 시기에는 유적의 정비가 완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책자로 간행하였다. 이 시기의 보고서인 「아산 현충사 연혁지」(1969),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1971),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1973), 「도산서원 중수지」(1970), 「행주산성 보수정화지」(1970), 「칠백의총 보수정화지」(1973)를 보면 숨 가쁘게 돌아가던 당시의 정황을 충분히 엿볼 만하다. 때로는 지나치게 서둘러 일을 추진한 곳도 있고, 미처 유적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복원, 정비하느라 본말이 뒤바뀐 곳도 없지 않지만 국가 원수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루어 낼 수 없는 일들이 추진된 것이 1970년대의 10년 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유적 보존의 전성기였다는 평가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현충사의 정비

5.16 이듬해인 1962년 4월 28일, 최고회의 의장으로 있던 박정희는 충무공 탄신기념일을 맞아 현충사에 들러 사당에 가서 충무공 영정에 참배하였다. 군인이었던 박 의장은 이때 충무공에 대한 남다른 감회를 지녔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대통령이 되어 1966년 다시 이곳을 방문하여 '이충무공의 위업을 추모하기 위해 아산 현충사 일대의 성역조성사업을 실행할 것'을 목표로 현충사 주변을 크게 정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골자는 경내를 기존 1,345평에서 5,339평으로 크게 확장하고 유물관을 새로 짓고 사당 뒤에 본전과 정문을 신축하는 것이었다. 문교부는 성역 경내를 사적으로 지정토록 하고, 경내에 있는 민가를 철거하여 주민을 이주시키고 이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부가 추진하도록 하고 경내 외 경작지를 정리하여 소유자에게 토지를 분할하는 예산을 농림부가 확보하도록 하고 내부무에는 부수적인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충무공 탄신일을 국경일로 하기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현충사 하나를 두고 문교부(당시는 문화재관리국이 문교부에 속해 있었다) 등 네 개 이상의 중앙 부처가 협력하여 유적지를 정비하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본전과 유물관이 지어지고 경내에 살던 주민들이 이주할 공영주택 38동이 세워졌다. 1968년에는 현충사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경내와 묘소 관리를 후손의 손길이 아닌 관리사무소가 맡도록 했다. 이 해에는 문화공보부가 신설되었는데 현충사관리소는 문화공보부 직속기관으로 두어 소장의 지위를 2급으로 격상시켰다. 경내 수목에 대해서도 박대통령은 직접 스케치를 작성하여 현충사 초입에는 무궁화와 동백나무를 심고 사당 동쪽 언덕에는 철쭉, 진달래를 심고 묘소에 침엽수를 심을 것을 지시할 정도로 강한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해서 정비된 현충사는 정문에서 북쪽으로 긴 진입로를 따라 홍살문, 삼문을 거치면 본전에 이르게 되고 경내 서쪽에 유물관, 동쪽에 구택과 묘소가 자리 잡아 넓은 영역이

완성되었다. 현충사 성역화는 이후에 전개되는 유적 정화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도산서원과 오죽헌

도산서원과 오죽헌은 각각 영남의 대표 학자인 퇴계 이황과 기호지방 학자인 율곡 이이의 유적지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란을 극복한 위인과 함께 우리나라 정신문화를 꽃피운 학자를 현창하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두 유적에 대한 정비를 지시하고 구체적인 보수 방안을 직접 구상했다.

도산서원에 대해서는 1969년 4월에 막 취임한 신범식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중수에 대한 특별지시를 내렸다. 장관은 허련 문화재관리국장과 협의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일사천리로 일을 추진하였다. 우선 그해 4월 24일에 기초조사를 하고 8월 5일에는 보수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월 6일에는 기공식을 치렀다. 기공식 며칠 뒤인 10월 14일 대통령이 공사현장을 찾았다. 그 자리에서 담장을 사고석으로 하고 기와공사와 단청을 완벽히 할 것과 주변 산림녹화는 전문가에게 시공을 맡길 것을 당부하고 전적의 보관을 철저히 하고 유물관을 건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그해 12월 30일에 1차로 건물 보수와 축대 시공이 끝나고 이듬해 4월에는 단청과 담장이 이루어지고 6월부터 12월까지 유물전시관 공사가 진행되어 1970년 12월 8일 준공을 보았다.

오죽헌은 이보다 조금 늦어서 1974년 박 대통령이 강원도 연두순시를 하는 자리에서 강원도지사에게 특별지시를 내려 보수정화를 하도록 했다. 오죽헌은 이미 일제강점기인 1938년에 보물로 지정되었고 이후에도 문중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옛집 주변에 어제각, 율곡기념관을 갖추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오죽헌 정화사업은 문화공보부와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오죽헌에 살던 소유자에 대해서는 현충사에서 경내에 살던 후손을 밖에 이주시킨 전례에 따라 집을 보상하고 이주시키도록 하였다. 이듬해 1975년 강원도 연두순시 때 보고에 의하면 정화사업을 위해 토지매입이 10,695평이 이루어지고 가옥철거 14동, 영농작물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1975년 10월 14일 박 대통령은 영동, 동해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하고 나서 오죽헌 현지를 순시하여 유적지 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는데, 오죽헌은 원형보존하고, 어제각은 규모를 키워서 새로 짓고 전시관도 위치를 바꾸어 새로 짓고 대문을 고치고 계단을 넓히며 계단 양측면의 녹지는 수종을 바꾸고 몽룡실을 수리하고 단청은 현대적인 색조로 다시 칠하고 전시관의 진열장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오죽헌 정화사업이 종료된 것은 1976년 4월말이었다. 5월 7일에는 대통령이 현지에 와서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공사의 전말은 「오죽헌정화지」로 간행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1975년 10월 14일 날짜가 명시된 두 장의 스케치를 실었는데 박 대통령이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하고 오죽헌에 오면서 구상한 정화사업 안이었다. 하나는 강릉과 속초 사이 도로에서 오죽헌으로 진입하는 전체 배치구상이고 또 하나는 오죽헌 경내의 어제각, 전시관의 배치와 진입계단 및 각 세부 정화방안을 메모한 것이었다.

국방유적 정비와 문화재보수 3개년 사업

임진왜란 전적지나 그 밖에 우리나라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쌓았던 전국의 많은 성곽에 대해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은 컸다. 이미 행주산성 복원이 대통령 지시로 1970년에 이루어졌고 1974년 7월에는 수원성곽에 대한 복원정비가 지시되어 이듬해부터 복원에 착수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수원성곽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5년에 걸친 복원보수가 이루어졌다. 1976년에는 경기도 연두순시 때 강화도의 전적지에 대한 정비 지시를 내렸다. 강화 전적지는 갑곶돈대, 초지진 등 전적지와 고려궁지 정비, 강화성문루 복원 등이 포함되어 1997년 준공을 보았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유적 정비는 1977년에 와서 문화재관리국의 행정체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3개년 계획하에 적극 추진하는 방침으로 바뀌었다. 문화재보수 3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보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문화재연구소에서 전국문화유적을 조사하여 도합 8,718곳의 유적을 조사하여 이를 「문화유적총람」이라는 책자로 펴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호국위인과 선현 및 전통문화 관련 중요유적의 목록을 만들었다. 호국정신, 전통문화 등 민족사상 중요사실을 반영하는 것을 주로 선정하였으며 이미 정화, 복원된 것을 제외하고 보수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A, B, C로 등급을 정했다. 여기에 따라 A군 사업으로 신라통일전적지 8개소, 백제문화권유적 6개소, 진주성사적지 및 기타유적지 11개소가 선정되었다. 연차적으로 B군 사업, C군 사업이 선정되어 보수대상에 올랐다.

보수대상 유적은 문화재전문위원이나 연구소의 전문가, 문화재관리국 기술직 등이 현장 조사하여 지침을 정하고 지침에 의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설계사무소가 설계안을 제출하면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설계심의위원회가 승인을 해주고 그에 따라 문화재수리 기술자를 보유한 시공회사가 시공을 맡도록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유적지 보수가 있었으며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문화재보수 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기술을 축적시킬 수 있었다.

3개년 보수사업의 주요 성과를 보면 호국위인유적 보수정화, 충효 선현유적, 중요국방유적 보수정화, 중요문화권유적 정화, 중요사적정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중요민속자료 보존, 천연기념물 보호, 조선조 궁능원 보수정화, 지방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로 나누어 각 유적별로 수십군데의 유적이 대상이 되었다. 서울성곽, 관문성, 해미읍성, 고창읍성, 상당산성 등 15군데 성곽이 이 시기에 보수, 정비되었다. 충효선현유적 보수정화에는 황희유적, 송시열유적, 김장생, 조식, 정다산, 김정희, 유형원, 정몽주 유적 등 약 30곳이 대상이 되었다. 중요문화권으로는 경주권 신라문화유적, 제주권 탐라문화유적, 가야문화권, 백제문화권이 대상이 되었으며 중요사적에는 위 문화권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사적으로 세종대왕릉역, 수원화령전, 정족산사고지, 강화선원사지, 오대산사고지, 강진도요지 등이 대상이 되었다. 이 밖에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유적이 이 기간 보수 대상이 되어 수리되었다.

1970년대 유적 보수의 성과

‘민족문화창달’은 박정희 대통령이 일관되게 밀고나간 국정 목표의 하나였다. 경제 성장에는 정신적 깊이가 따라야한다는 철학을 갖고 국정의 중요한 지표로 역사와 문화를 다듬는 것을 내세워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미 60년대 말, 현충사 정화나 도산서원 정비에서 무와 함께 문을 숭상하는 정신을 양립시키려는 의지가 엿보였으며 70년대에는 관광이라는 또 다른 명제가 수반되어 경주개발이나 제주개발이 이루어졌다. 77년부터 시작된 문화재보수 3개년 사업은 그 결산에 해당되는 일이었다. 이 사업에는 그 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전국의 수많은 전쟁 유적이나 선현유적이 조명되어 훼손되고 멸실되던 마지막 단계에서 되살아났다. 이후 80년대의 유적 정비나 문화재보수는 결국 70년대에 다져놓은 기초 위에서 모양을 가다듬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70년대는 문화유적 보존을 위한 철길을 놓은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긍정적인 부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박정희 개인의 의지가 강력하였던 만큼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취향이 지나치게 반영되어 유적 본래의 색깔이 변질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충분한 고증이나 학술조사 없이 막연한 추정으로 정비가 진행되는 일도 벌어졌다. 비전문가이면서 스스로 스케치까지하고 나무 수종이나 심는 위치까지 선정해서 지시하여 전문가의 입지가 약해진 면도 있었고 단청의 색조에도 개인적 취향이 강조되어 본래의 모습과 다른 외관을 낳은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박 대통령이 70년대에 이루어 놓은 문화재보존의 산처럼 큰 업적에 비하면 충분히 양해될 정도의 작은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특히 자칫 시기를 놓쳤을 경우 유적이 완전히 멸실될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정비의 손길을 가한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개발을 최우선시하면서도 문화유적의 보존과 상치될 때 유적 쪽에 손을 들어준 일은 박 대통령이 남긴 중요한 자취라고 하겠다. 1974년 창원기계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당초 흙을 조달할 예정으로 있던 성산동 작은 언덕에서 패총과 야철 유적이 나왔다. 공단 건설자들은 당연히 유적 보존을 반대하였고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었던 유적은 현장을 확인한 대통령의 결단으로 보존되기에 이르렀다.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되고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되었지만 단기간의 경제 손실보다 유적 보존이 주는 장기간의 정신적 풍요에 더 가치를 부여한 결정이었다.

1975년부터 5년간 진행한 수원 성곽의 정비는 유적 보존에서 시의적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수원은 경기도의 도청소재지였지만 70년대 중반까지는 아직 인구도 20만을 넘지 않고 시내 대부분이 단층이나 2층 정도 소규모 주택이 들어찬 지방 도시였다. 화성으로 불리는 성곽은 상부는 훼손이 많았지만 형태를 거의 보존하고 있었다. 다만 나날이 늘어나는 인구와 주민들의 무관심 탓에 유적이 잠식되고 시설 훼손이 심각한 단계에 와 있었다. 서울 남쪽의 교통 이점 때문에 산업시설이 늘어나고 용지부족 문제로 성벽 가까이까지 주택이나 공장시설이 발끝까지 와 있는 상태였다. 이런 시점에서 1974년 7월 대통령의 지시로 성곽에 대한 전면 보수가 이루어졌다. 만약 이때 손을 대지 않았다면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4. 유적의 발굴

건축유산과 발굴

건물지의 발굴은 지금은 알 수 없는 과거의 건물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개 건물지를 발굴하면 여러 시대의 집이 층층이 겹쳐서 출토된다. 집을 짓고 살다가 떠나고 흙이 묻힌 뒤에 다른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집을 지어 살고 또 불이라도 나서 떠난 뒤에 또 누군가 집을 짓고 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지는 사람들의 주거 흔적을 알려주는 오래된 사진첩 같은 것이다. 또 시대마다 달라지는 집 짓는 기술도 알려준다. 기둥을 땅 속에 박아서 집을 짓던 원시 단계에서 주춧돌을 놓는 기술의 진전도 보이고 두터운 벽을 쌓다가 차츰 벽이 얇아지는 차이도 볼 수 있고 구들이 없다가 방바닥 전체가 다 구들이 깔리는 변화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발굴과 건축은 불가분의 관계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발굴은 역시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주로 고대 왕국의 무덤을 위주로 시작되었다. 경주 등에서 빛나는 금관이 여럿 출토되어 발굴하던 일본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광복 후에는 우리 손으로 발굴이 이어졌다. 벌써 광복하던 이듬해 호우충 발굴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후에도 정치사회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발굴조사가 계속되었다.

건물지에 대한 첫 번째 발굴은 1959년에 착수한 경주 감은사지 조사였다. 당시 감은사터에는 석탑 두 기가 넘어갈 듯 기운 채 서 있었고 절터는 30여 호 초가집들이 들어찬 상태였다고 한다. 한반도를 통일한 문무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어진 감은사는 용과 관련한 전설이 깃든 중요한 유적이었지만 절터에 민가가 들어차 언제 유적들이 사라질지 모를 지경이었다. 김재원 국립박물관장은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미국 하버드엔칭학회로부터 연구 보조비를 지원 받아 발굴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는 건물지의 발굴 경험을 쌓은 전문가가 없었다. 마침 일본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도쿄대에서 건물 발굴의 경험을 지닌 김정기를 박물관 학예관으로 불러 현장의 책임을 맡길 수 있었다. 이때 감은사지 발굴은 윤무병과 함께 김동현도 참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서 쌍탑식 배치형식을 갖춘 감은사의 배치가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건축은 삼국시대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 실체를 전혀 알 수 없는데 감은사지 발굴을 통해서 비록 땅속에 남은 주춧돌이나 기단을 통해서지만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소득이었다. 동시에 상태가 불안정하던 석탑도 드잡이 하여 바로 잡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서탑 3층 옥개석 아래 탑신에서 사리장엄구를 찾아내었다. 함 내벽에는 사천왕상, 약기를 연주하는 사람, 공양상 등이 세밀하게 조각된 모습이 있고 청동으로 만든 사리함 안에는 수정으로 만든 사리병이 나왔다.

천마총과 황남대총-고대의 구조기술

경주는 신라 천년의 역사가 땅 속에 남아있는 유적지이다. 어디를 파도 유적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유적의 보물창고 같은 곳이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남다른 애착을 지니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6월 경주를 ‘웅대, 찬란하며 정교, 활달하고 진취적이고 여유 있고 우아하고 유현의 감’이 재현될 수 있도록 개발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경주 관광개발계획단이 구성되고 경주관광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세워졌다. 계획에 따라 경주의 유적과 유물을 종합적으로 복원 정비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발굴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초에는 쌍분인 98호 고분을 조사하려고 하였지만 경험도 부족한데다 규모가 커서 대상을 바꾸어 주변의 작은 고분인 155호를 택했다.

발굴단장은 김정기가 맡았으며 김동현이 부단장이었다. 무덤은 커다란 봉분 형태인데 밑 둘레가 157m이고 높이는 12.5m였다. 표면을 덮고 있는 흙을 제거하자 산더미같은 돌더미가 나왔다. 돌은 직경 15cm 정도의 냇돌을 수없이 쌓아올려 봉분을 이루었다. 이 돌을 다 제거하자 한 가운데서 나무로 짠 관이 나왔다. 이렇게 냇돌로 봉분을 쌓고 나무로 관을 짠 무덤을 적석목곽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축조방식은 냇돌을 전부 들어내지 않는 한 도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물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

목관을 파내자 금관이 나타났다. 발굴자들은 놀라 말문을 열지 못했다고 한다. 처음 고분발굴의 연습삼아 선택한 155호 분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금관을 발견한 것이다. 뒤 이어 순금으로 된 새날개 모양과 나비 모양 장식도 나왔다. 금으로 만든 모자도 뒤따랐다. 금붙이와 함께 색다른 유물이 출토되었다. 천마 그림이 그려진 말 탈 때 곁에 대는 말다래가 나온 것이다. 이 그림 덕분에 피장자 신분을 알 수 없는 이 무덤은 천마총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천마총 발굴이 한창 진행되던 1973년 7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굴현장을 방문했다. 이것은 국가 원수가 발굴현장을 방문한 첫 번째 일로 기록된다. 이때는 아직 금관은 확인되기 전이었다. 대통령은 현장을 살펴보고 발굴을 마친 뒤에는 내부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현장을 떠나면서 발굴자들을 격려해주고 금일봉도 전달했다. 금일봉은 1백만 원이었는데, 1990년대 발굴이야기를 쓴 책에서는 당시 금액으로 거의 2천만 원쯤 되는 액수라고 한다.³⁾

1973년에는 예정대로 98호 고분 발굴이 시작되었다. 남북 쌍분이고 남북 아래쪽 직경이 120m, 동서직경이 80m에 높이가 지표에서 22.9m에 이르는 거대한 봉분이었다. 155호분 발굴의 경험이 쌓여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7월에 시작한 봉분제거 작업은 거의 1년 4개월만인 74년 10월에 가서 찬란한 또 하나의 금관을 수습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북쪽 무덤에서 여성 무덤임을 시사하는 ‘부인대’라는 명문이 허리띠 유물에서 확인되었다. 남쪽 무덤에서는 큰 칼이 많이 나왔다. 피장자 신분은 확인이 안 되었다. 마땅한 이름을 붙일 것이 없어서 소재지인 황남동의 큰 무덤이란 뜻으로 황남대총으로 이름 지어졌다.

3) 조유전, *발굴이야기*, 대원사, 1996, 107쪽

두 발굴에는 건축적으로 주목할 부분이 있다. 황남대총에서는 산터미처럼 쌓은 냇돌들이 중간중간 틈이 비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틈은 냇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길게 통나무를 걸쳐 댔던 흔적으로 판명되었다. 만약 냇돌만을 가지고 큰 봉분을 만든다면 쉽게 무너져 내려 쌓아 올리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냇돌을 싸면서 군데군데 통나무 지지대를 걸쳐서 냇돌의 붕괴를 막았던 것이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면서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기술이다. 신라의 적석목관분은 이런 단순하면서 탁월한 기술이 바탕이 되어 축조되었던 것을 황남대총 발굴이 알려주었다.

안압지

안압지는 1970년경 만해도 경주 외곽의 보잘것없는 연못에 지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경주 관광종합개발계획에도 발굴계획은 들어있지 않았고 못을 파내서 간단히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1974년이 되어 한 건설회사가 일을 맡아 물을 빼내고 못을 파내는 작업을 하였다. 일을 시작하고 보니 생각지 않았던 석축이 나오기 시작하고 못 바닥에서는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서둘러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발굴조사에 들어간 것이 이듬해 3월이었다. 근 2년이 걸려 발굴을 완료하고 난 안압지는 통일신라 왕실의 장대한 휴식처요 연회장의 면모를 갖춘 모습이었다. 못 가운데는 3개의 섬이 있고 북쪽과 동쪽 못가에는 12개의 봉우리가 솟은 모습이었다. 건너편 석축은 반듯하게 쌓아올린 축대 위에 스물이 넘는 크고 작은 건물들의 유적이 노출되었다. 연못에 기대어 큰 전각들이 늘어서고 건너편은 자연 산봉우리 형상을 본 뜬 언덕을 꾸민 것이었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유물이 건져졌는데 그 중에는 14면체의 작은 나무토막도 있었다. 각 면에는 술 석 잔 마시기, 다 마시고 크게 웃기, 팔뚝 구부린 채 다 마시기 등 나무토막을 주사위식으로 던져 별을 서도록 한 놀이기구였다. 길이 6.2m의 나무배도 나왔다.

건축적으로 관심을 끈 것은 당시 건축물에 쓰여 졌던 공포나 난간 부재가 고스란히 출토된 점일 것이다.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인데, 실물이 남아있지 않은 통일신라 건축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그 중에 공포를 구성하는 주두나 첨차같은 것도 들어있었다. 주두의 세부 형상이 당시 당나라의 그것과 유사하여 주목되었다. 삼국시대의 공포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가 알려진 것이 없고 고구려의 벽화고분에 당대 건물의 공포 세부 그림이 묘사되어 있어서 그 형상을 짐작하고 있는데 안압지에서 나온 주두는 고구려 벽화와는 다른 것이었다. 고구려 벽화의 주두는 받침재가

붙어 있고 하부가 직면으로 좁아지는 형상이다. 그런데 안압지 출토 주두는 받침재가 없고 하부는 곡면을 이루고 있다. 현존 몇 동의 당나라 건물 역시 주두 형상은 안압지처럼 받침이 없이 하부가 곡면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통일신라의 건축이 고구려 식을 벗어나 당나라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첨차의 경우에도 하부의 곡면 처리가 당대의 그것과 유사하여 같은 현상으로 보인다. 비록 작은 부재 몇 점이지만 신라의 건축이 갖고 있던 국제성을 엿보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발굴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안압지의 발굴조사는 김동현이 단장을 맡아 작업을 진두지휘하였다.

황룡사지와 미륵사지 발굴

황룡사는 경주관광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정비·정화되는 대상에 들어갔다. 이미 1974년까지 천마총, 황남대총, 안압지 발굴이 완료되어 발굴에 대한 자신감도 갖춘 시기였다. 마침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담당관실이 문화재연구소로 개편되면서 경주지구 고적발굴 업무가 연구소의 소관으로 바뀌었다. 그 첫 번째 대규모 발굴로 황룡사지가 선택된 것은 자연스러운 추이였다고 하겠다. 1976년, 당초 3년으로 잡고 시작한 조사는 결국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 1983년에 일단락을 지었다. 민가 1백여 동을 철거하고 사유지 18만5천㎡를 매입하였으며 조사면적이 2만5천 평에 이르렀고 작업인원만 연 10만 명에 달하는 건국 이래 최대 발굴 작업이었다. 조사단장은 당시 연구소 보존과학실장으로 있던 김동현이 맡아서 진행하다가 김동현이 고대사지연구를 위해 일본으로 가면서 조유전이 맡아 마무리하였다.

황룡사 조사를 통해서 과거 일제강점기에 추정했던 가람배치와 전혀 다른 배치가 확인되었다. 중심 건물이 하나이고 내부가 세 구역으로 구획되었던 창건 시 건물배치와, 두 번째에 가서 세 개의 금당이 나란히 놓이고 중앙 금당 남쪽에 거대한 탑지가 놓이는 중건 가람, 마지막으로는 탑지 좌우에 종루와 경루가 놓이고 낭무가 남쪽으로 이전하는 세 번째 배치가 확인되었다. 4만 점 가까운 유물이 출토되었다.

황룡사지 발굴은 우리나라 만이 아니고 중국, 일본의 고대 사지 발굴에서도 획기적인 사업이었다. 절터 자체가 유례를 보기 어려운 넓은 곳인데다 8년이라는 긴 기간을 집중적으로 조사가 진행된 점도 당시로 드문 일이었고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학술 성과에서도 단연 주목되는 일이었다. 50년대에 소규모 조사로 시작한 발굴조사가 70년대에 와서 잇단 고분조사를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여 황룡사라는 거대한 사지 조사로 마무리되어 학술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달성한 것이다.

미륵사지 발굴은 1980년에 착수되었다. 1980년 7월에 착수한 조사는 1994년까지 무려 1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크게 3차로 나누어 진행된 조사는 1차 조사(1980~1984)에서 사지 중심부가 조사되고 2차 조사(1985~1989)는 사역 외곽 서북편이, 3차 조사(1990~1994)는 사역 남측 연못지가 다루어졌다. 3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서 백제 최대 사찰로 알려진 미륵사지의 거의 전모가 드러났다. 조사단장은 장경호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장이 맡았다. 조사를 통해서 미륵사가 3탑3금당식이라는 독특한 가람을 형성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앙은 목탑을 두고 동서 좌우는 석탑을 세우는 독창적인 건축구성과, 사지 전체를 물길에 흘러나가도록 하고 이들 물길을 적절히 살려내며 건물을 조성한 백제의 뛰어난 건축기법이 알려졌다. 금당은 초반 위에 장초석 형태의 초석을 두고 그 위에 건물 바닥을 조성하는 구조방식을 택했다. 당시 중국이나 일본에서 볼 수 없는 백제 건축기술의 독창성이 여기서도 확인되었다.

5. 유적 복원과 건물설계(1975~1990)

불국사의 복원

경주 불국사는 지금은 진입부 한쪽에 상가가 집결해 있고 상가를 지나면 수목이 울창한 구간을 지나게 된다. 수목 사이로 연못이 있고 경내 중심에 이르면 장대한 신라 때 석축 위에 하늘을 날 듯 휘어진 처마를 자랑하는 범종루가 구름무늬 돌 장식 위에 세워져 마치 수미산이 현세에 재현된 듯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만해도 불국사 경내 바로 앞까지 여관과 음식점이 늘어서있고 석축은 겨우 형체만 갖추고 어설프게 지어진 누각이 석축 위에 서 있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경주를 자주 들르던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5월 불국사를 복원하고 정비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청와대정무실이 그 일을 주관하였다. 불국사 복원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설계를 담당할 위원회가 별도로 조직되었다. 사단법인으로 불국사복원위원회가 결성되고 경제인들이 여기에 참여하여 시주금을 내도록 하였다.

복원을 위해서는 우선 경내 발굴조사가 필요하였고 고대 사찰 건축에 대한 학술연구도 뒷받침이 되어야했다. 1960년대는 아직 이런 부분에서 경험이 없었다. 1969년 8월부터

64일간 정내 발굴이 실시되었다. 1970년 1월에는 약 한 달간 김정기, 김동현 두 사람이 일본에 가서 고대 사찰 복원을 위한 조사를 다녀왔다.

1970년 7월,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의 설계가 완성되고 심의를 통과하였다. 그에 따라 그달 착공에 들어갔다. 10월에는 경루, 회랑, 석난간, 축대, 담장설계가 이루어졌다. 1971년에는 구품연지 발굴이 시작되었다. 연지 유구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지만 유구가 교란된데다 광장의 수목을 제거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관람객 수용이 어려워 연지 복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972년 2월과 6월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왔다. 단청에 대해서 각별한 정성을 들이되 은은하게 색이 나도록 유의하라는 당부가 있었다. 1972년 10월에는 불이문⁴⁾이 세워지고 담장이 생기고 경역 내 조정공사가 이루어졌다. 불이문, 담장이나 조정은 신라 때 불국사와는 관계없는 부분이었지만 당시 청와대의 비서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드디어 1973년 7월 3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복원공사 준공을 보았다.

공사의 총감독은 김정기였고 감독은 김동현이 맡아 실질적인 설계를 주관하고 부감독으로 유문룡, 박종석이 참여하였다. 현대건설이 시공사였으며 목수도편수는 이광규, 석수도편수 김부관 단청은 한석성이 맡았다. 모두 70년대를 풍미한 기술자들이었다.

총 공사비는 약 3억7천만 원이 들었다. 지금 화폐가치로 치면 몇 십배는 곱해야할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공사를 위해서 주요 대기업에서 시주금을 냈다. 시주금 총액은 1억3천5백만 원이 넘었다. 사찰에서도 6천만 원을 냈다. 한 사찰의 복원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한 셈인데 단지 불교사찰의 복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대 문화유적을 처음으로 제대로 복원한다는 국민적 자부심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하겠다.

불국사 복원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다룬 고대 건물의 설계였다. 실물이 남아있지 않은 고대 건물의 설계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발굴을 통해서 무설전, 비로전의 유구가 나와서 주간 길이는 확인이 되었지만 상부의 구조를 추정할 근거는 거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유사한 규모의 고려말 조선초기 건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비로전은 수덕사 대웅전의 결구수법을 따랐고 무설전은 규모가 커서 참고할 자료가 마땅치 않았는데 마침 없어지기 전에 찍은 사진 일부가 발견되어 규모를 추정하고 세부는 무위사극락전을 참고했다.⁴⁾ 용적의 결정에서부터 상부 가구, 공포의 형상, 단청 등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고뇌의 연속이었다고 짐작된다.

4)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76 참조

미륵사 동탑 복원

미륵사지의 발굴은 1980년에 시작해서 84년에 중심부 발굴이 끝나고 85년부터는 외곽 서북편 발굴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참 발굴이 진행되던 1988년 동쪽 석탑의 복원이 정부관계자에 의해 결정되었다. 문화재관리국이 사업의 주관기관이 되고 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설계를 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설계 단장은 김동현에게 맡겨졌다.

미륵사에는 동서 양 석탑이 있었는데 서탑이 상층부가 없어진 채로 6층 정도까지 간신히 형체 일부를 유지하고 있었다. 발굴조사를 통해서 동탑의 지하유구가 확인되고 일부 동탑에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석재들도 수습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탑의 본래 모습을 재현해내는 일은 지난한 과업이었다. 동탑의 복원 자체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았지만 일단 사업 자체는 승인이 되어 설계에 들어갔다. 불국사의 고대 목조건물 복원설계에 이어 석조물의 설계를 하게 된 것이다.

수습된 유구에 의하면 동탑의 세부 형태는 서탑과는 다른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문제는 탑의 층수 결정이었다. 미륵사 탑에 대해서는 이를 7층으로 비정한 견해가 있어 왔는데 유구 중에는 최상층 옥개석으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확인되었고 이 석재들에 의하면 탑은 9층이 되어야 맞아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유구에 충실한다는 원칙에 따라 탑은 9층으로 복원되었다.

1989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이듬해부터 시공에 들어갔다. 석탑의 복원은 설계도 어려운 과제였지만 석재를 가공하는 시공상에 더 많은 숙제가 남았다. 모든 공정을 인력으로 마무리하던 과거의 석재가 주는 부드러운 느낌을 기계로 가공한 현대 시공이 도저히 재현해 낼 수 없었다.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랜 느낌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그리 쉽게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 건물의 설계

불국사 복원이나 미륵사 동탑 복원은 문화재관리국 또는 문화재연구소에 속한 전문가들이 직접 설계를 담당하였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일이었고 1960년대부터 거의 대부분의 건물 수리나 신축시의 설계는 문화재실측의 전문가가 자격을 지닌 설계사무소가 담당해 왔다.

1968년 경상북도에서 봉정사 극락전 수리를 문화재관리국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일을 주관하게 된 경상북도는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문화재관리국에 했다. 이때 지명된 세 회사는 강봉진이 운영하는 국보건설단, 장기인이 이끄는 삼성건축사사무소 그리고 임천고건축미술사였다. 이때 임천은 이미 세상을 떴고

그 아들이 회사를 맡고 있었다. 이 세 곳은 60년대 말에 국내 문화재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무소로 꼽히는 곳이었다. 이후 70년대에는 삼성건축사사무소가 독보적인 위치에서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건물 설계나 유적 정비 일을 맡았다. 그 중에는 서울성곽, 수원성곽, 강화전적지와 같은 수년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된 대형 보수공사가 들어있었으며 그 밖에 국보, 보물급 중요문화재의 수리 설계는 대부분 이곳이 맡아서 했다. 70년대 중반 이후에 신진 인력이 이 분야에 종사하게 되어 사무소도 늘어나고 지방에도 전문 사무소가 생겼지만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설계력이나 기술수준은 다른 곳에서 따라오기 어려웠다.

6. 문화재 지정 확대와 인력 증가(1979-1995)

건축 문화재의 증가

우리나라 문화재 지정은 1962년 1월 12일 공포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다. 이 법령에 의해서 1962년 12월 30일 116건의 국보가 지정되고 1963년 1월 21일 386건의 보물과 125건의 사적이 지정되었다. 이보다 며칠 빠른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154건의 지정이 있었다. 이들 776건의 지정문화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해서 1934년부터 1943년 사이에 지정되었던 것을 이때 와서 재지정한 것이었다. 776건 지정 문화재 중에 건축물과 관련된 것은 1/3이 넘는 180여 건에 달했다. 1963년 1월 이후에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신규 지정을 추진해서 70년대로 넘어가면서 많은 유적과 유물이 신규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80년대에 와서 이루어진 보물 지정의 증가가 눈에 띈다. 63년에 일제 때 지정된 것을 그대로 승계한 이후에 건축물 지정은 소강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80년 초에 와서 산발적 지정이 아니고 대상이 되는 유적에 대한 전국 조사를 바탕으로 신규 지정을 대폭 늘린 것이다. 이 기간에 석탑은 거의 30여기가 지정되어 제대로 된 석탑으로 보물에서 빠진 것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목조건물로는 궁궐 내의 단일 건물과 불교사찰에 있는 불전이 대거 보물의 대열에 올랐다. 1984년과 85년 사이에 궁궐 전각 13동이 보물이 되고 불전 16동이 신규로 보물이 되었다. 1977년 서울역을 비롯한 39동의 근대건축물이 사적으로 지정된 것도 특기할 일이다. 보물급 이상의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건물 보수나 수리 업무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른 예산 뒷받침이 필요한 일이다. 80년대의 건물 지정 증가는 결과적으로는 문화재 수리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는

의미가 있지만 그만큼 책임도 증가하는 일이다. 지정 문화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각각의 건물 특성이 훼손되지 않는 치밀한 수리 기술이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주택과 마을의 문화재 지정

주택이나 마을과 관련한 문화재 지정은 초기에는 거의 공백 상태였다. 1963년 초에 지정된 700건이 넘는 문화재들 가운데 살림집은 일제시대에 보물로 지정된 강릉 오죽헌과 회덕 동춘당 그리고 광복 후 1959년에 지정한 하회 양진당, 아산 맹씨행단이 있었다. 앞의 두 집은 주택의 가치보다는 이이나 송준길 등 인물이 부각되어 지정된 의미가 컸다. 더욱이 맹씨행단은 사적으로 지정되어 집의 건축 가치보다는 맹사성의 인물 유적 성격이 컸다.

1968년 문화재관리국은 사라져가는 우리나라 민속을 학술적으로 조사하는 장기사업에 착수하였다.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농촌 생활이 급변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조사해야 할 대상이 전통적인 민속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그 주된 대상은 농촌의 살림집이었다. 그 첫 결실로 1969년에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1권 전라남도편이 나왔다. 뒤를 이어 각 도별로 보고서가 간행되어 1981년 북한지역인 함경남북도편까지 발간되고 1985년에는 제16권으로 주생활편이 별도로 간행되었다. 이것은 빠르게 사라져가는 민속 특히 농촌주택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더욱이 1970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지붕개량과 환경개선 사업이 벌어져 초가집이 급속도로 사라지는 시점이어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 의미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다보니 실제로는 대표적인 마을 몇 군데를 골라 표본조사를 하는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조사자들에 따른 내용 편차도 컸다.

이러한 조사의 성과도 바탕이 되어 살림집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1979년부터였다. 이해에 와서 우선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살림집은 40동이였다. 다시 1984년에 와서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전국적인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85동이 신규 지정되었다. 이를 위해서 1983년에 2,332건의 조사대상 목록을 확보하여 이 가운데 1,129건을 문화재관리국이 조사를 맡고 나머지는 해당 시도에서 조사하도록 한 결과였다. 이미 70년대 초에 지정된 양동 손동만 가옥(서백당) 등 4동을 합하면 모두 129동의 살림집이 중요민속자료가 된 것이다.

마을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문화재 지정은 1980년대 중반에 와서 이루어졌다. 1984년에 안동 하회마을에 이어 제주 성읍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마을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일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마을 전체가 문화재가 되면서 건물을 수리하거나 작업장을 설치하는 일을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고 어떤 경우에는 허락이 안 되어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1988년에 제정된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지정이었다. 전통건조물보존법은 살림집을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따른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살림집을 단일 문화재로 보지 않고 면 단위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이 법령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는 건물의 외형은 남기되 내부는 부분적으로 개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법령에 근거해서 1988년에 고성 왕곡마을과 아산 외암마을이 전통건조물보존지구로 지정되었다.

살림집의 문화재 지정은 그 자체로 많은 과제를 수반하였다. 일단 지정이 된 살림집은 노후된 부분을 수리하도록 했는데 초가집의 경우에는 이엉을 새로 엮는 일이 쉽지 않았다. 또 도중에 살림에 필요해서 증축한 부분이나 변개된 부분에 대한 처리도 간단하지 않았다. 문화재 보존의 원칙인 원형보존 입장에서는 가급적 후대에 개조된 부분은 제거하여 원형을 찾는 것이 수리의 방향이지만 원형 파악이 쉽지 않을뿐더러 그것이 거주자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잦았다. 아직도 이 문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

지방의 문화재 지정

초기의 문화재 지정은 전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맡아 해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문화재의 구분은 단지 ‘지정문화재’로만 되어 있어서 지방의 시도에서 별도로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었다. 이를 개정한 것이 1970년 8월이었다. 이해 문화재법을 개정하여 문화재를 지정문화재 외에 ‘지방문화재’ 및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로 나뉘어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재를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도의 문화재 지정은 1971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970년대 후반에 각 시도는 적극적으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여 방치되어 있던 많은 문화재들이 보호 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후에도 시도의 문화재 지정은 꾸준히 그 대상을 늘려 나가서 2000년대에는 수적으로는 중앙의 문화재를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지방의 문화재 지정은 각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특징을 갖는다. 건축물에 한정해서 보면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향교와 서원 지정에서 볼 수 있다. 향교는 지방 각 고을이 하나씩 반드시 갖추고 있던 시설이며 또 재산이 유림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처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수가 남아있었다. 서원은 대개 흥선대원군의 철폐령으로 사라졌다가 19세기말 이후에 와서 복구된 것이지만 그 터전이 갖는 의미가 인정되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방의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와 과거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로 구분되다가 명칭을 바꾼 문화재자료가 있다. 이 가운데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에 이들 향교와 서원이 포함되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문화재 지정 건수에서 가장 앞서며 경상북도가 뒤를 잇는다. 경상남도는 이미 70년대에 유형문화재 191건을 지정하여 경상북도 142건을 훨씬 앞질렀는데 이후에도 지정 숫자에서 앞서 나갔다. 제주도는 특별한 성격을 갖는다. 제주도의 문화재 지정은 70년대에만 유형문화재 9건, 기념물 38건, 민속자료 4건을 지정했는데 민속자료 3호 안에 가옥 10동을 묶고 4호에 5동을 묶는 등 일찍부터 제주도의 특색이 있는 문화재 지정에 앞장섰다. 경기도는 조선시대 관리들의 무덤이 많이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다른 시도에 없는 묘소 지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도 눈에 띈다.

7. 열린 문화재로 향한 길(1996-현재)

궁궐의 복원

궁궐은 고려시대 이전은 유물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가시적인 보존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조선왕조 궁궐은 서울시내 한복판에 여러 곳이 잘 남아있고 건물도 상당수가 역사적으로나 건축적으로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궐은 1970년대까지 문화재로써 크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초기 문화재 지정이 고려시대나 조선초기 같은 연대가 오랜 것에 관심이 치중되면서 주로 임진왜란 이후에 지어진 궁궐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결과가 아닌가 짐작된다. 궁궐 건물은 80년대에 와서야 국보나 보물 지정이 이루어지고 80년대 말에 와서 창경궁의 정비로 시작으로 체계적인 경내 정비와 건물 복원, 수리가 이루어졌다. 궁궐이 새삼스럽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복원이 국가적인 큰 사업으로 대두된 것은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부터이다.

궁궐 자체가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1960년 경복궁이 사적이 된 것을 시작으로 1963년에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이 사적 지정이 되면서이다. 그러나 궁궐 안에 있는 많은 중요한 전각들은 건립 연대가 앞서는 것으로 알려진 창경궁 명정전, 명정문, 흥화문, 창덕궁 돈화문을 제외하고는 따로 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보수의 손길도 잘 미치지 못하였다.

이들 전각이 비로소 개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1985년에 와서이다. 이해에 궁궐에 대한 건축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인정전 등 정전 건물이 국보로 지정되고 나머지 창덕궁 선정전, 창경궁 등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궁궐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민에게 공원으로 개방되었다. 창경궁은 이미 1909년에는 창경원으로 명칭이 바뀌어 동물원이 들어서고 벚꽃을 가득 심어 봄이 되면 시민들이 찾는 행락지로 전락하였다. 경복궁도 1915년에 박람회장으로 쓰였고 이후에도 총독부청사를 제외한 후면은 공원으로 바뀌었다. 궁궐을 시민의 공원으로 인식한 것은 광복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창경궁은 봄이면 서울시민들이 밤 벚꽃놀이 하는 장소가 되어 술판이 벌어졌으며 경복궁이나 창덕궁도 시민의 휴식처로 쓰였다.

1977년 문화재보수 3개년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설이 크게 훼손된 창덕궁에 대해서 1978년부터 2년간 개방을 않고 내부를 정비하는 방침이 정해졌다. 창덕궁 후원은 우리나라 궁궐 후원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동안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면서 수목이 절단되고 유적이 훼손되는 등 파손상태가 심하였다. 2년간의 정비 후에는 제한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관람도 안내인의 인솔하에 정해진 곳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 덕분에 훼손이 극심하였던 창덕궁은 궁궐의 면모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게 되었다.

1984년에는 과천에 서울대공원이 개장되었다. 창경원 안 비좁은 우리에게 간혀있던 코끼리, 사자 등이 넓은 공원으로 이주하였다. 동물이 이주하는 것을 계기로 창경원의 대대적인 복원 정비가 추진되었다. 우선 명칭을 본래대로 창경궁으로 되돌리고 1983년부터 86년까지 3년 동안에 동물우리를 모두 철거하고 경내를 가득 메웠던 벚나무를 모두 제거하여 전통 수종으로 바꾸고 홍화문 좌우행각과 문정전 일곽을 복원하였다.

창덕궁은 1989년에 와서 인정전 일곽에 대한 중건 사업이 추진되었다. 일제 때 변조된 인정전 행각을 복구하고 진선문 주변 행각을 다시 짓고 규장각 권역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낙선재 권역에 대한 정비도 1993년에 완성되었다. 창덕궁 정비는 2004년 규장각 일원의 복원으로 일단락을 이루었다.

경복궁의 복원과 정비사업은 90년대에 시작된 궁궐 정비의 가장 핵심이었다. 1990년에 경복궁종합정비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그 방향은 경복궁을 본래 모습으로 복원하려는 것이었다. 이 회의에는 청와대의 여러 보좌관과 육군본부 참모차장, 서울특별시장, 경호실차장, 수방사참모장 등이 참석하였다. 당시 경복궁에는 구조선총독부건물이 전면에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을 경호하는 군부대가 궁궐 경내에 숙소를 두고 경호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복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들 여러 기관의 협력과 이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경복궁을 본래 모습으로 복원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침전권역의 복원이 착수되었다. 건물 복원에 앞서 침전지 발굴을 한 결과 건물자리에서 4차레에 걸친 선대 건물지 유적이 확인되어 이 위치에서 침전이 여러 차례 복구와 소실을 거듭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듬해 1991년 6월 5일에는 강녕전 복원 기공식이 노태우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1994년에는 경복궁 정비를 위한 장단기 계획이 세워졌다. 단기적으로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9개년에 걸쳐 궁궐의 중요시설을 복원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건물복원이 시작되었다. 1995년에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구조선충독부건물 철거가 거행되었다. 청사 철거에 따라 우선적으로 흥례문 권역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졌다. 뒤이어 동궁 권역이 복구되고 다음으로 서북쪽에 과거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에 태원전 일곽이 복구되었다. 2006년에는 건청궁 일곽도 복구되었고 2007년부터 1968년 콘크리트로 다시 지었던 광화문을 철거하고 원래 위치에 목조로 다시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광화문은 2010년 복원되었다. 고주 일부가 노후되어 수리가 시급해진 근정전에 대한 전면 해체수리도 이루어졌다. 거대한 철제 가설덧집이 세워지고 국내 1급의 전문가들이 모여 건물수리에 임했다. 수리결과에 대한 보고서도 이제까지의 수준을 뛰어 넘는 완성도 높은 책자로 간행되었다.

경복궁 복원은 1990년에 시작되어 2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우리나라 문화재 복원기술이 총 집결되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이 있었다.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복원 과정에서 궁궐건축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궁궐의 복원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자신의 일처럼 가깝게 다가온 점이였다. 건물 복원이라는 생소한 일이 일상의 뉴스거리가 되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궁궐을 관광객에게 안내하는 자원봉사자가 생기고 궁궐을 시민들의 힘으로 지키려는 NGO(비정부기구)들이 속속 조직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루어진 궁궐복원은 단순히 건물 복원과 수리의 차원을 넘어서 문화재수리가 일반 시민들의 일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1995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그리고 종묘를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때까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산은 유럽의 대다수 건물 외에 중국의 자금성, 만리장성,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일본의 법륭사 등 350건이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1975년 유네스코의 특별위원회의 하나로 발족된 기관으로, 인류 공동으로 보존, 관리해야 할 뛰어난 가치가 있는 유산을 선정하여 유네스코가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1988년에 이 기구에 가입하였다. 가입 이후에도 이렇다 할 활동이 없던 우리나라는 1994년 정부가 국제화, 세계화를 국가시책으로 삼으면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문화유산을 세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삼는 일에 비로소 동참하게 된 것이다.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이 대상이 되며 문화유산은 유적, 건축물,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1994년 우리 유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사업을 추진할 당시 일차적인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석굴암, 해인사팔만대장경, 종묘, 창덕궁, 수원성곽, 삼년산성, 무녕왕릉, 강진도요지 8곳이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신청대상으로 위 세 곳을 선정한 것인데 모두 등재가 되었다.

다시 1997년에는 창덕궁과 수원화성이 등재되었다. 수원화성은 유적 자체는 잘 정비되었지만 주변의 시가지 경관이나 성곽의 관리상태 등에서 지적이 많아 탈락의 위기가 있었지만 당시 수원시장이던 심재덕이 총회 현지까지 가서 정비를 약속하여 등재될 수 있었다. 이후에는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유적과 경주역사지구가 등재되고 2009년에 조선왕릉 40기가 한꺼번에 등재되었다. 2010년에는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2014년에 남한산성, 2015년에는 백제역사유적이 등재되었다. 이로써 1995년 시작된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2015년 현재 11건이 등재되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지만 잦은 전란과 목조건축이라는 제약 때문에 남아있는 유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나라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성과의 이면에는 광복 이후 우리가 해 온 문화재 보존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창덕궁은 1978년 일반인의 개방을 막고 2년에 걸친 정비를 하고 또 1989년부터 훼손되었던 부분의 복구가 있었다. 수원성곽은 1975년부터 5년에 걸친 훼손 유구의 복원과 정비를 하고 도 성벽에 근접해 있던 민가 수십 동을 이전하는 힘든 노력이 있었다. 석굴암도 비록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1963년의 보수가 없었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무난히 넘어갔었을지 의문이다. 경주 역사지구 역시 1972년 이후 전개된 경주관광종합개발의 일환으로 황룡사지와 안압지가 발굴되고 무덤이 조사되고 도십지 정비가 꾸준히 진행되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계유산등재는 아무 노력 없이 얻어낸 결실이 아니고 광복 이후 여러 사람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가꾸고 다듬은 결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와 경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3호로 문화재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약 8개월 전인 1999년 4월, 정부는 각종 행정규제조치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중에 문화재에 대해서도 종전에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에 대해 문화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한 건축법시행령을 폐지하였다. 이 시행령이 폐지된 것은 과거에는 문화재 근처에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100m 이내에서는 반드시 문화재청이나 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던 규제가 없어진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 시행령이 폐지되면서 그 동안 소극적이거나 유지되던 문화재 주변의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문제가 전국에서 발생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문화재와 바로 근접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기도 하고 공장이 신설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은 서둘러 문화재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지키도록 새로운 법령을 제정한 것이다.

문화재영향평가제도에 의하면 문화재가 있는 경우, 그 보호구역에서 500m 이내에 건물을 짓거나 다른 시설이 들어설 경우에는 건설행위를 허가하기 전에 그 건설행위가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검토는 전문가 3인 이상이 검토하여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대로 허가되 영향이 있을 때에는 다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2000년부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 일반인이 도심지에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문화재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에 만약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문화재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아파트 높이를 낮추거나 건물을 문화재에서 멀리 떨어져 짓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것은 문화재가 그 건물 하나만으로 보존되어 온 과거와 달라진 점이었다. 이제는 문화재는 주변 경관까지를 고려해서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으로 달라졌다. 지난 10년 동안 문화재영향평가제도 때문에 의도했던 건설공사에 차질이 생겨 곤혹을 치른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겼다.

이 제도는 10년 동안 시행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도 낳았다. 어떤 문화재는 땅속에 선사시대 조상들이 까먹고 버린 조개껍질이 묻혀 있어서 주변 500m에 집을 지을 경우 함부로 층수를 높이거나 큰 집을 짓는 것이 제한되었다. 그곳이 이미 도심지가 되어 인근에는 20층이 넘는 아파트가 즐비하건만 자신이 지으려는 땅은 500m 안에 들어 있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였다. 집을 지어 돈을 벌려던 건설회사 사장은 남득이 가지 않았지만 법을 어길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속을 태웠다. 어떤 곳은 주변이 이미 현대식 고층 건물이 가득하지만 한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된 오래된 초가집 한 채가 있어서 그 인근에 큰 집을 새로 지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모처럼 집 지으려던 꿈이 물거품이 되기 일쑤였다.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지만 문화재 경관을 살려야 한다는 커다란 원칙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수긍을 하고 심의결과를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문화재영향평가제도는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500m를 일률 적용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평가의 기준이 모호하여 합리성을 잃는 경우도 있는듯하다. 앞으로 제도를 더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문화재 경관도 지키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약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인식도 확산되었다. 이제 문화재는 어디 관광지에 가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일상생활 가까이에 다가와서 시민들에게 불편도 주고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안겨주는 대상이 되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재들을 두고 그 역사적 가치와 예술성, 그리고 거기에 얹힌 재미난 사연들을 엮어 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유홍준)가 출간되어 공전의 인기를 얻은 이후 문화재 답사는 우리나라 사람 모두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자가용 보급이 늘어나고 토요일부터 일에서 해방되면서 승용차를 몰고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가족들의 모습은 이름난 문화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목격되는 일이 되었다. 문화재는 더 이상 소수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리 없이 관찰되고 지켜지는 숨어있는 유물로 머물 수 없게 되었다. 문화재는 시민 모두에게 개방되고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된 시대가 열린 셈이다.

이런 시대 분위기에 맞추어나타난 새로운 현상 중 하나는 문화유산과 관련한 NGO의 확산이다. 이런 움직임은 처음에는 문화재 안내 자원봉사자나 궁궐 지킴이 형태로 시작되어 점차 정부의 문화재보존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로 확대되고 있다. 2014년 문화재청이 집계한 문화유산 관련 비정부조직은 서울에 24개소, 부산 울산과 경상남북도에 22개소, 경기와 인천에 15개소, 강원 5개소, 대전과 충남북에 19개소, 광주와 전남북에 16개소, 제주에 1개소로 도합 116개소나 된다. 단체들 중에는 이름만 걸어 놓고 크게 활동을 하지 못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활발하게 각 지역 문화재에 대한 안내와 보존 활동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나가고 있다.

90년대까지의 문화재보존이 소수 전문가와 행정 당국의 힘으로 지켜져 왔다면 2000년대에 와서는 이들 시민들의 힘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아직 그 힘이 어떻게 모아지고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는 모색단계라고 생각되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이들의 힘이야말로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과 같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시민단체들의 열의와 의지라면 그날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문화재 보존의 여정과 와본 김동현

돌이켜보면 1945년 광복 직후 전문가 한 사람 제대로 없는 황무지에서 6.25전란의 혼란을 겪으면서도 선조들이 짓고 살아 온 건축물을 지켜내려고 갖은 애를 쓴 극소수 인사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시작한 문화재의 보존이 이제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두고 힘을 합하게 되었다. 1950년대 문화재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분들이 이제는 대부분 70을 훌쩍 넘긴 고령이 되었다. 적지 않은 분이 유명을 달리했다. 초창기 이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시민단체들이 무엇에 기대어 힘차게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도 평가되어 마땅할 것이다. 70년대 경제 성장에만 목표를 두었다면 그 많은 공장이 지어지고 도시가 변화하면서 살아남은 문화재가 얼마나 될까?

와본 김동현은 50년대 말부터 문화재에 발을 디더 60년대에는 약관 나이에 법주사 팔상전과 봉정사 극락전 해체를 담당하고 70년대에는 천마총에서 황남대총, 황룡사 발굴로 발굴계를 섭렵하고 불국사 복원을 비롯해서 미륵사 동탑 등 많은 설계 활동에 참여하였다. 80년대에는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장으로 이 분야를 이끌었고 연구소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동국대 교수와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로 후학을 이끌었다. 90년대부터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리 현장에 나타나 현장에서 고생하는 후배들을 위로하고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직도 발굴과 수리현장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문화재에 종사하는 후배들의 큰 위안이 되고 있다.

이제 문화재는 단지 전문가 몇 사람에 의해 유지되는 단계를 벗어나 시민 모두의 관심사로 참여거리로 확산되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과거 없는 미래가 없다는 말대로 시민들이 향유하고 지켜나가려는 우리 문화재는 많은 선배들의 각고의 노력이라는 언덕이 있기에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와본 김동현 선생은 우리에게 참으로 든든한 언덕이 되어 오늘도 우뚝하게 자리하고 계신다.



와본 김동현 구술집

한국건축 보존연구에 바친 한평생

인쇄일 2015년 12월 23일

발행일 2015년 12월 30일

지은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펴낸이 김대익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전 화 044-417-9600

팩 스 044-417-9608

홈페이지 www.auri.re.kr / www.hanokdb.kr

이메일 information@auri.re.kr

책임편집 이강민

감 수 우동선

편 집 이강민, 박민정

디자인 · 인쇄 디자인 나무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05호

©2015,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ISBN 979-11-5659-069-9